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박혜은·오병찬·정진주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연구내용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정책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부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야간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남에서 역시 야간경관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각 시·군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특히,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일환으로 야간관광 등 기반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야간경관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충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2023년 9월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관리 과제를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법 제도, 정책동향과 선진 사례를 파악하여 야간경관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 분석을 위해 시·군 담당자 대상 FGI와 설문조사, 위

크숍을 진행하여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조례 및 훈령 등 야간경관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 유도 및 사업 이해관계자의 야간경관에 대한 이해 향상의 ‘추진주체 역량강화’, 야간경관 전문가 활용 활성화와 공모사업 추진의 ‘시범사업 지원 및 활성화’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경관조례」 개선’,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의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정책과제별 도와 시·군의 역할도 함께 제안하였다.

먼저 ‘「경관조례」 개선’은 도 및 15개 시·군 「경관조례」에서의 야간경관의 정의부터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사업추진 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여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 그리고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직 배치와 사업추진 시 디자인 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에 대하여, 충남에서는 2015년부터 디자인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디자인컨설팅 범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디자인 범위를 포함하면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국·도비지원사업 및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등 경관 및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범위로 해 왔다. 도 및 일부 시·군에서는 심의 전 사전 검토로서 디자인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필요시 야간경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컨설팅 범위에 야간경관사업을 포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합하고, 심의 전 사전 검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전 검토 제도로 활용할 시 디자인컨설팅 반영 여부를 심의도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컨설팅 제도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과제는 야간경관계획이 전무한 충남에서 도가 우선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야간경관의 개념부터 정의 및 범위, 시·군에서 빛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심의 기준, 주민이 야간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야간경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야간경관의 이해부터 사업 기준과 민간참여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충남의 도농복합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군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정책과제는 사업 추진 주체인 공무원, 정책결정권자인 시·군의원, 사업의 수혜자이자 추진 주체인 주민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 정책홍보로서, 야간경관 및 법 제도의 이해에 대한 이론부터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 사후관리 방안과 선진사례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야간경관사업 이해관계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은 현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관협정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주민의 야간경관자원 발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관 중심의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 중심의 상향식 사업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충남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충남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이 중앙부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경관 업무를 부 업무로 다루고 있는 시·군도 있으며,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의 실행주체인 행정조직 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경관사업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경관법」에서 계획 수립 및 심의 범위, 전문가 자문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야간경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등 야간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관련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6
3. 주요 연구 내용	7
4. 연구 전체 흐름도	9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정책 검토	10
1. 경관 및 야간경관의 개념	11
2. 정책 동향 분석	22
3. 관련 법 제도	36
4. 선행연구 분석	53
제3장 타 지자체 야간경관 정책 및 사업 분석	60
1. 인천광역시	61
2. 경기도	80
3. 서울특별시	99
4. 시사점	108
제4장 충남 야간경관사업 현황 및 추진주체 의식분석	114
1.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115
2.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26

3. 추진주체 의식분석	140
4.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62
제5장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개선방향과 과제	172
1. 기본방향	173
2. 정책과제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7
1. 결론 및 정책제언	198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204
 사업 담당자 FGI조사	 205
워크숍 주요내용	208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한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	222
선정위원회 의견 반영사항	228
연구설계 자문회의	230
착수연심회	231
중간연심회	235
최종연심회	237
참고문헌	239

표 목차

〈표 2-1〉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상 유형별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중 기본방향	12
〈표 2-2〉 야간경관과 경관조명의 요소	14
〈표 2-3〉 조명 용어의 의미	16
〈표 2-4〉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18
〈표 2-5〉 경관의 기본방향,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정리	20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경관 관련 사업	24
〈표 2-7〉 국가유산청 야간경관 관련 사업	25
〈표 2-8〉 광역자치단체 야간경관 관련 사업	27
〈표 2-9〉 기초자치단체 야간경관 관련 사업	30
〈표 2-10〉 중앙부처 야간경관 관련 사업 비교	33
〈표 2-11〉 관광진흥법	37
〈표 2-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8
〈표 2-13〉 경관법	41
〈표 2-1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43
〈표 2-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44
〈표 2-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47
〈표 2-17〉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50
〈표 2-18〉 관련 법 제도의 비교	52
〈표 2-19〉 선행연구 분석	55
〈표 2-20〉 본 연구의 차별성	59
〈표 3-1〉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도출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대상지	66
〈표 3-2〉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및 기능	70
〈표 3-3〉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 개요	71
〈표 3-4〉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2014.3. ~ 2024.4.)	76

〈표 3-5〉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주요 내용(2016-2021)	76
〈표 3-6〉 빛공해 관련 민원 현황	77
〈표 3-7〉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77
〈표 3-8〉 경기도 내 31개 시·군 「경관조례」 상 야간경관사업 심의 대상 여부	83
〈표 3-9〉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추진사업 방향 및 주제	85
〈표 3-10〉 경기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중 '공원'의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가이드라인 ..	86
〈표 3-11〉 공모 신청 대상지 특징별 분류	89
〈표 3-12〉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90
〈표 3-13〉 연도별 야간경관 조성사업 내용	91
〈표 3-14〉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2019.1. ~ 2024.4.30.)	97
〈표 3-15〉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주요 내용(2019-2024)	97
〈표 3-16〉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사업	107
〈표 4-1〉 도 및 15개 시·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6
〈표 4-2〉 도 및 13개 시·군 중 경관 조례 상 야간경관 정의 규정 내용	116
〈표 4-3〉 야간경관 관련 조례별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심의 대상 및 내용(야간경관, 조 명 관련)	118
〈표 4-4〉 시·군별 야간경관 관련 심의 대상	121
〈표 4-5〉 야간경관 관련 조례 담당 조직 현황	123
〈표 4-6〉 도 및 15개 시·군 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	125
〈표 4-7〉 최근 5년간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진행중인 사업 포함)	130
〈표 4-8〉 FGI조사 대상	131
〈표 4-9〉 사업 담당자 대상 FGI조사 내용	132
〈표 4-10〉 사업 유형별 담당자 대상 FGI조사 주요내용	138
〈표 4-11〉 설문조사 개요	140
〈표 4-12〉 응답자 기본정보	141
〈표 4-13〉 야간경관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143
〈표 4-14〉 야간경관사업의 가장 큰 효과	144
〈표 4-15〉 '야간경관사업'과 '야간조명사업'의 차이	144

〈표 4-16〉 '야간경관사업'과 '야간관광사업'의 차이	144
〈표 4-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충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145
〈표 4-18〉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 야간경관사업이 높은 수준인지에 대한 의식	145
〈표 4-19〉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필요성	145
〈표 4-20〉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	147
〈표 4-21〉 야간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147
〈표 4-22〉 야간경관사업 사업 추진 시 디자인관리 방법	148
〈표 4-23〉 야간경관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	148
〈표 4-24〉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진행 방식	149
〈표 4-25〉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진행 단계	150
〈표 4-26〉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시 기준	151
〈표 4-27〉 [‘총 사업비’로 답한 경우] 적정 사업비	151
〈표 4-28〉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의 효과를 위한 개선 사항	153
〈표 4-29〉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155
〈표 4-30〉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57
〈표 4-31〉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것	159
〈표 4-32〉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충남도의 역할	161
〈표 4-33〉 타 지자체와 충남의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비교	164
〈표 4-34〉 FGI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시사점	170
〈표 4-35〉 추진주체의 의식 및 시사점	171
〈표 5-1〉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워크숍	173
〈표 5-2〉 정책과제 및 주체별 역할	177
〈표 5-3〉 도 및 시·군 「경관조례」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2024년 기준)	178
〈표 5-4〉 시·군별 야간경관 관련 심의 대상(2024년 기준)	183
〈표 5-5〉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교육 주요내용(안)	191

그림 목차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범위	35
[그림 3-1] 인천광역시 행정조직도	61
[그림 3-2]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63
[그림 3-3] 야간경관 10대 명소	65
[그림 3-4] 야간경관사업 추진 절차	67
[그림 3-5] 경관사업 추진 절차	68
[그림 3-6] 인천항 사일로 미디어파사드, 월미공원 야간경관조성 사례	69
[그림 3-7] 군·구 경관형성사업 사례	72
[그림 3-8]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74
[그림 3-9] 경기도 행정조직도	80
[그림 3-10] 경기도 경관 조례	82
[그림 3-11]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85
[그림 3-12]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87
[그림 3-13]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절차	88
[그림 3-14]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사업’ 추진 일정	89
[그림 3-15] 오산 고인돌 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92
[그림 3-16] 광명 한네 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93
[그림 3-17] 남양주 오남 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94
[그림 3-18] 시흥 오이도 물빛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95
[그림 3-19] 서울특별시 행정조직도	99
[그림 3-20]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101
[그림 3-2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103
[그림 3-2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의 심의대상	104
[그림 3-23]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정비·개선	105

[그림 3-24]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중 남대문교회 경관조명 설치 전과 후 ..	106
[그림 5-1]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정책방향 도출	174
[그림 5-2]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75
[그림 5-3]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경관협정의 야간경관사업 연계 추진절차	193
[그림 5-4] 충남 도민참여예산제 야간경관사업 공모사업 추진절차	194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전체 흐름도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야간경관사업 추진

야간경관은 빛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야간에 사람들이 인지 가능한 경관 요소들의 총합체라 할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정책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부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유형 중 경관자원 활용 및 경관 요소 조성을 통한 야간경관 명소가 포함되어 있다¹⁾.

또한 국가유산청에서는 ‘야간경관 조명 사업’ 및 ‘문화유산 야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①야간 콘텐츠(상설/비상설 야간 축제 및 행사, 체험 및 프로그램 등), ②야간경관명소(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시설물 또는 조성지역), ③야간관광여건(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관광기반시설 및 환경)으로 구성

· 야간경관계획 수립으로 야간경관 명소화, 빛공해 발생 대응 추진

야간경관계획은 1994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처음 수립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으며²⁾, 계획을 재정비³⁾한 곳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광역시(2006년)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08), 부산광역시(2008), 대구광역시(2011), 대전광역시(2011), 광주광역시(2011) 등에서, 광역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이전까지는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라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야경 및 랜드마크 조성, 주·야간 경관의 연속성과 빛과 어둠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명소화 조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충남은 야간경관계획이 부재하나 야간경관사업 추진에 적극적

충남에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없으나, 도 및 시·군 자체사업 또는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충남 서산(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서산해미읍성), 부여(궁남지, 부여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홍성(남당항 해양공원음악분수), 당진(삽교호관광지 대관람차, 합덕제), 예산(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

2) 서울특별시(2008), 인천광역시(2006년), 부산광역시(2008년), 대구광역시(2011년), 대전광역시(2011년), 광주광역시(2011년), 경기도(2020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수립

3) 서울특별시(2018년), 인천광역시(2018년), 부산광역시(2015년, 2021년), 대구광역시(2019년)

4)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공주시 ‘제민천 밤문화 체험과 공산성 야경사업’ 선정, 충청남도의 ‘2024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서산시 ‘서산해미읍성 야간경관사업’과 아산시 ‘은행나무길 야간경관사업’이 선정

분수) 등 5개 시·군의 8개소가 선정되는 등 야간경관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충남의 야간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경관관리 방안 모색 필요

충남의 야간경관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각 시·군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야간경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일환으로 야간관광 등 기반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야간경관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충남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충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2023년 9월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연계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관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 다양하게 추진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추진체계 정립
 - : 법 제도 개선
 - :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관련 법제 간 연계
- 야간경관 관련 사업 참여주체의 역할 제시
 - : 충남도 및 시·군 담당 부서, 전문기관(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등 관련 주체 역할
- 야간경관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 주민참여 및 공모사업 연계 방안

3) 정책 활용(기대효과)

- 도 및 시·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으로 활용
- 도 및 시·군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시 활용
- 야간경관사업 개선을 통해 충남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 선행연구 : 개념 분석, 최근 10년간 야간경관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법 제도 :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고시, 충청도 및 15개 시·군 관련 조례 분석
- 정책동향 :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및 광역지자체, 충남의 야간경관 관련 정책과 사업 조사, 분석
- 선진 사례 : 야간경관 사업 추진체계 선진 사례 조사, 분석

2) FGI

- 충남 야간경관 관련 사업유형별(근거법에 따른 사업) 사업 담당자 대상 심층 인터뷰조사(2~3명씩 3차례 진행)
- 문화관광, 디자인, 경관조명, 문화재단 등 다양한 부서 담당자 대상 조사

3) 설문조사

- 충청도 및 15개 시·군 경관 및 디자인, 문화, 관광 관련 부서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담당자 의식조사

4) 방향 및 과제도출 워크숍

- 충청도 및 시·군 야간경관 관련 사업 담당자 참여 워크숍

3. 주요 연구 내용

1) 야간경관사업 추진 과제 및 시사점 도출

-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야간경관의 개념 및 기능에서 본 야간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도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분석
- 법 제도 분석 :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분석을 통해 관계 및 연계 방안 도출, 충남 조례 분석을 통해 야간경관사업 여건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정책 동향 분석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동향 분석
-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야간경관 사업 추진 조직 현황, 사업 추진체계(법 제도, 관련 계획, 경관관리 수단 등), 사업 추진 사례 등 분석

2) 충남 야간경관 사업 추진 방향 제시

- 충남도 및 15개 시·군 야간경관 사업 관련 법 제도 분석 :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관광진흥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경관계획 내용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
- 행정조직 현황 조사 : 조직 현황 분석을 통해 충남의 야간경관 사업 여건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법 제도 간 연계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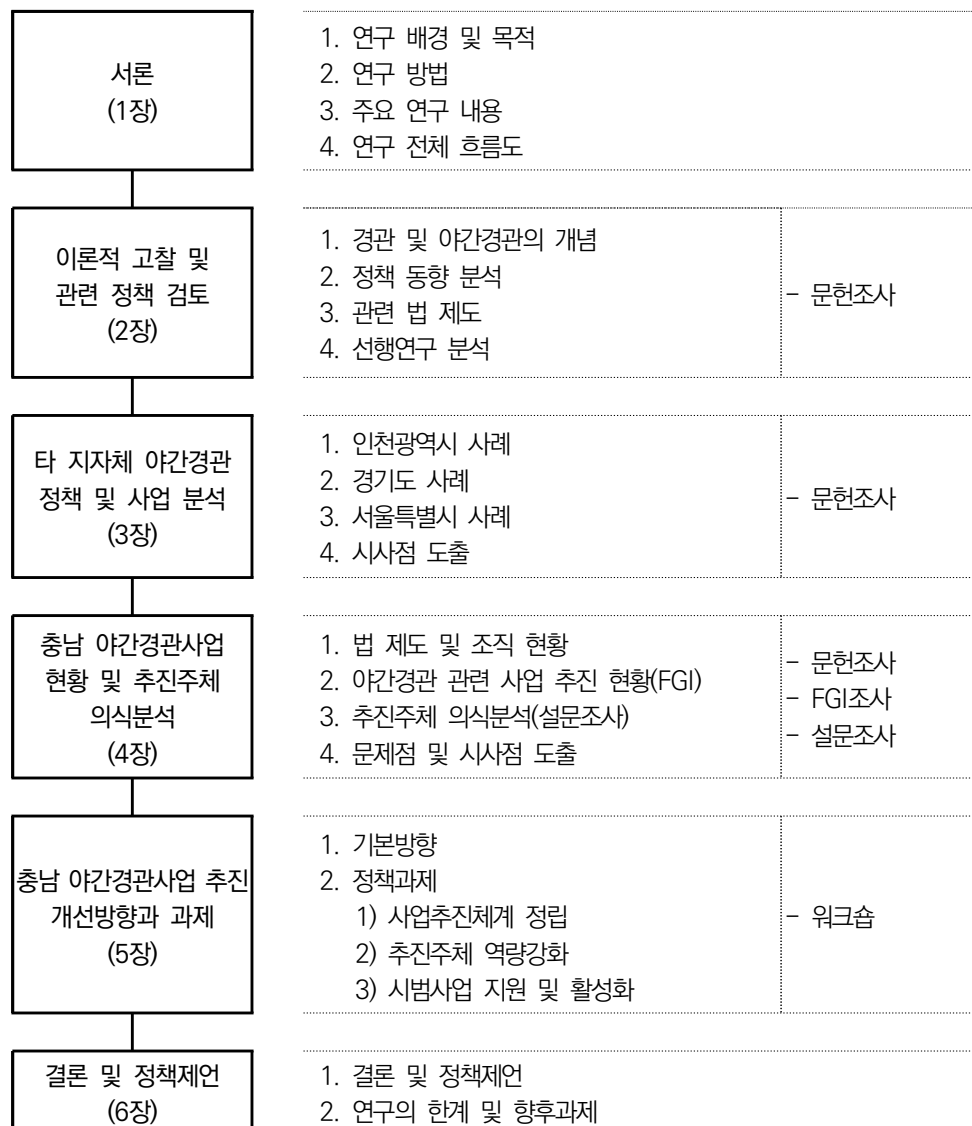
- 야간경관 사업 현황 분석 : 사업유형별 야간경관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를 통해 사업 발주방식 및 설계비, 사업 디자인관리, 대상지 선정 방법, 사업내용, 주체별 역할 등 분석
- 충남도 및 15개 시·군 경관/디자인, 문화/관광 부서 야간경관 사업 담당자 대상 사업 발주방식 및 설계비, 야간경관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선정 방법, 사업 디자인관리, 사업내용, 참여주체 역할, 사후관리방안, 사업 효과 및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주체 의식분석
- 타 지자체 선진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충남의 현황과 여건에 맞는 방향 제시

3)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 사업 담당 부서 의식차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도출
- 사업추진체계 측면, 추진 주체 역할 측면,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
 - 사업추진체계 : 관련 조례 개선 방안 및 조례 간 연계 방안, 경관관리 및 지원 방안
 - 추진 주체 역할 : 행정 조직 체계 및 담당자의 역량 향상 방안 제시, 참여주체별 역할 제시, 주민참여 확대 등
 - 사업 활성화 : 충남의 법 제도와 참여주체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제시

4) 결론 및 정책제안

4. 연구 전체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정책 검토

1. 경관 및 야간경관의 개념
2. 정책 동향 분석
3. 관련 법 제도
4. 선행연구 분석

1. 경관 및 야간경관의 개념

1) 경관의 개념 및 기본방향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경관이란, 자연을 비롯하여 주변을 이루는 건축물을 포함한 인공적인 요소와 인간의 생활상으로 이루어진 한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흔히 우리가 경관이라 할 때 떠올리는 경치나 풍경과 같은 시각적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지닌다(이종현, 1998).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에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경관법」을 통해 각 지자체 고유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계획수립,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계획수립,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심의위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관 보전·관리·형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지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경관계획이나 경관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 및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을 제외한 4개 유형이며, 내용은 사업자용, 심의위원용이 동일하다. 체크리스트상에서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내용을 개념어로 나타내본 결과 ‘조화성’, ‘연속성’, ‘조망성’, ‘인지성’, ‘편의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고유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관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주로 ‘주변과의 조화’, ‘시각적 연속성’, ‘조망성’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상 유형별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중 기본방향

구분		개념								
		조화성	연속성	조망성	인지성	편의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고유성
도로	주변 경관과 조화	●								
	자연환경 고려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고려		●	●						
철도시설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 고려	●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 확보		●	●						
	인지가 쉽고 이용 편리				●	●				
하천시설	주변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	●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확보		●	●						
	접근성과 쾌적성 고려							●	●	
개발사업	고유한 지역 현황 반영 및 우수한 경관자원 보존, 활용									●
	지역 전체의 경관 향상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고시)

2) 야간경관의 개념

(1)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최근에는 사람들의 야간활동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경관에 조명으로 빛을 밝힘으로써 야간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 야간경관은 사람들이 야간에 인지하는 도시경관 요소들의 총합체이다(차주영, 2012). 야간경관은 일상적인 용어로서 ‘야경(夜景)’이라고도 한다. ‘Nightscape’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밤이라는 ‘Night’에 조명과 연계되어 연출되는 경관이라는 의미의 ‘scape’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밤의 경관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김용범·최현주, 2007). 이에, 야간의 경관 중 의도적으로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김성민·이훈, 2020). 그러므로 야간경관에는 조명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경관학회(2011)는 야간경관과 경관조명의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야간경관의 조명은 도로조명, 보도조명, 건물의 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라이트업 된 건물, 조형물, 자동차의 전조등, 광고조명, 공원조명 등 다양한 빛으로 구성되고, 경관조명은 야간경관요소 중 자연의 빛을 제외한 빛들로 건축물 조명, 수목조명 등 경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해당되며,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의 도시 구성요소 중 도시경관 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포함된다며 야간경관과 경관조명의 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경관조명은 지역의 환경 요소들을 빛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다양한 조명의 관계를 상호 체계화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명에 사용되어진 조명과 가로시설 조명 등의 조화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적 영역까지 내포하며 조명대상 중 경관을 위한 연출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야간경관은 경관조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만들어진 경관과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의 빛,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빛들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야간경관과 경관조명의 요소

구분	요소
야간경관	수목조명, 건축물 조명, 랜드마크 조명, 건물라이트업, 가로등, 발광간판, 테일램프, 자연의 빛, 항공장애방지등, 광고판 등
경관조명	수목조명, 건축물 조명, 랜드마크 조명, 건물라이트업

출처 : 한국경관학회(2011),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조명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 빛과 조명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빛은 자연의 빛과 인공 빛이 있으며 인공 빛은 조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만들어진 빛으로서 조명의 배치 및 수량, 밝기 및 색 등은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형복(2014)은 조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연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며 인간의 인공 빛의 체험은 시점별 경관에 대한 인지로서 ①‘장면(Scenery)’의 정지한 시점에서 야간경관 조망, ②‘연속성(Sequence)’의 이동하는 시점상에서 야간경관 조망, ③‘시간의 연속’의 시점상은 일정해도 시간 변화에 따른 빛의 변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명에 의한 인공 빛은 발광체 자체가 형성하는 야경요소와 비추어지는 빛이 형성하는 경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명에 의한 야간경관은 조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빛으로 비추어지는 대상과 그 주변을 포함한 요소들과 함께하는 조망과

연속성, 그리고 주간 경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즉, 야간경관은 앞서 서술한 「경관법」에서 경관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 ‘주변과의 조화’, ‘시각적 연속성’, ‘조망성’, 그리고 ‘시간성’을 고려하면서 ‘연출’, ‘유도’, ‘억제’⁵⁾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한다.

한편, 최근 야간경관 또는 야간조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빛 공해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진·김주연(2018)은 야간 조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빛 공해 요인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빛공해 요인은 휘도, 조도, 색온도, 연색성이었으며, 이 중 휘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휘도는 조명으로 조사하는 대상에 입사되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대상과 주변 밝기 비율로 나타내고 주변 지역의 밝기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휘도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휘도대비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빛이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며 빛공해 및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야간경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조도는 광원으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광속의 총량으로서 역시 조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안전성 등 CPTED 측면에서는 특정 공간 내에서 빛의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 정도의 조도의 균질성이 매우 중요하다.

5)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야간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야간경관계획을 ‘연출’, ‘유도’, ‘억제’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표 2-3〉 조명 용어의 의미

용어	의미
광원	-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여 인공으로 가시광선을 만들어내는 물체의 총칭
조도(lx)	- 광원으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광속의 총량 - 광속과 빛이 비추어지는 면적과 비례
휘도(cd/m ²)	- 조사면 밝기의 정도로서 대상 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 대상과 주변 밝기 비율로 나타내고 대상과 주변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야간경관 계획 시 과도한 빛의 경쟁발생을 낮추는 빛으로 활용 - 주변 지역의 밝기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주변 빛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휘도비 권장 수준이 제시됨 - 휘도율의 평균값과 최대값 간의 비율은 해당 대상들 내의 대비 정도를 결정하며, 휘도대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빛이 과도하게 반영된 점을 의미하며, 야간경관에서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이질적 경관을 나타내는 결과를 형성
색온도(K)	- 광원의 광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감성적인 부분을 연출 - 색온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광색이 되고 색온도가 낮을수록 따뜻한 느낌을 주는 광원을 뜻함
연색성(Ra)	- 자연광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색을 보여주는 성질, 100을 최고값으로 연색지수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색 재현도는 떨어지며, 평균연색성지수가 80을 넘는 광원은 연색성이 우수하다고 함

자료 : 한국경관학회(2011), 정법관(2017)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

(3) 야간경관의 기능

이지은(2009)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야간경관의 기능을 8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물을 인식하는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성, 지역의 정체성, 아름다움의 심미성, 쾌적성,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성 및 보안성, 건물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 여가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구경거리의 8가지이다. 한편, 이형복(2014)은 24시간 도시화를 위한 안전성,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정체성, 도시 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성, 야간경관

의 관광자원화인 경제성, 도시 야간경관의 아름다움 추구를 위한 심미성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진행한 지남석(2024)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의 중요성으로서 김지연 외(2011)의 연구를 토대로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경관 형성의 정체성, 도시경관의 심미적 역할의 심미성, 안전성, 색다른 체험 기회 제공의 구경거리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안전과 보안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여흥과 즐거움, 여가제공의 구경거리는 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쾌적성에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성과 방향성 역시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식별하는 의미에서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야간경관이 사물의 식별을 위한 기능성, 방법이나 교통안전의 안전성 등의 빛에 중점을 두었지만, 문화유산 및 건축물, 교량, 공원, 수변 등 점차 쾌적하고 심미적인 것의 경관연출용 빛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이다(이형복, 2014). 즉, 도시의 다양성 또는 개성을 만들 수 있는 정체성, 아름답고 쾌적하면서 지역 경쟁력의 요소로서의 심미성, 쾌적성, 경제성이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기능	야간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계획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 (2009)	대전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연구(2014)	세종시 야간경관 정책 추진 방안 :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2024)
기능성	빛을 통한 사물의 존재인식		
정체성	지역마다 개성있는 경관 연출	도시 이미지 형성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경관 형성
심미성	시각적 연출효과로 미적 즐 거움을 부여	도시 야간경관의 아름다움 추구	야간의 특색있는 경관 이미 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의 심 미적 역할 수행
쾌적성	밝은환경 조성으로 정서적인 아름다움 제공	도시공간과 삶의 질 향상	
안전성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한 환 경제공	24시간 도시화	야간의 방범 효과, 안전성 제고
보안성	조명은 강력한 범죄예방수단		
방향성	건물, 주변지역의 특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구경거리	도시에 여흥과 즐거움, 여가제공		색다른 체험 기회 제공
경제성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자료 : 이지은(2009), 이형복(2014), 지남석(2024)을 재정리

3)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의 기본방향

앞서 「경관법」 및 관련 고시와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토대로 경관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을 분석하여 유사하거나 중첩된 내용들을 나타내는 개념어 및 요소들끼리 범주화했다.

먼저 ‘조화성’, ‘연계성’, ‘연속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과 연계 및 연속된 경관의 ‘조화성’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조망성’ 및 ‘심미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경관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있는 ‘조망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인지성’, ‘편의성’, ‘접근성’, ‘기능성’, ‘방향성’, ‘쾌적성’, ‘대중성’, ‘안전성’, ‘보안성’은 누구나 쉽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쾌적성’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고유성’, ‘정체성’은 지역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면서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부여되는 ‘정체성’으로 포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을 ‘경관조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만들어진 경관과 의도적이지 않은 빛,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빛들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라 하며, 야간경관사업의 기본방향으로서 ‘조화성’, ‘조망성’, ‘쾌적성’, ‘정체성’, ‘구경거리’, ‘경제성’, ‘시간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5〉 경관의 기본방향,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정리

구분	방향 및 정의	개념어 및 요소						
		조화성 연계성 연속성	조망성 심미성	인지성, 편의성, 접근성, 기능성, 방향성, 쾌적성, 대중성, 안전성, 보안성	고유성 장체성	구경거리	경제성	시간성
경관의 기본방향	주변 경관과 조화	●						
	자연환경 고려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고려	●	●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 고려	●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 확보	●	●					
	인지가 쉽고 이용 편리			●				
	주변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확보	●	●					
	접근성과 쾌적성 고려			●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고유한 지역 현황 반영 및 우수한 경관자원 보존, 활용				●			
	빛을 통한 사물의 존재 인식			●				
	지역마다 개성있는 경관 연출				●			
	시각적 연출효과로 미적 즐거움을 부여		●					
	밝은환경 조성으로 정서적인 아름다움 제공			●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제공			●				
	조명은 강력한 범죄예방			●				

방수단							
건물, 주변지역의 특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도시에 여흥과 즐거움, 여가제공					●		
도시 이미지 형성				●			
도시 야간경관의 아름다움 추구	●						
도시공간과 삶의 질 향상			●				
24시간 도시화			●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경관 형성				●			
야간의 특색있는 경관 이미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의 심미적 역할 수행	●						
야간의 방법 효과, 안전성 제고			●				
색다른 체험 기회 제공					●		
시간의 연속							●
야간경관사업의 기본방향	조화성	조망성	쾌적성	정체성	구경거리	경제성	시간성

2. 정책 동향 분석

최근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야간경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인구감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정주 인구 확보 및 유입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역지자체에서 역시 자체적으로 경관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주간에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나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야간경관 또는 야간관광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중앙부처 야간경관 관련 공모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으로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명소형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지원형으로 구분되며 야간관광 명소, 야간경관 명소로 성장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는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야간경관이나 야간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모 선정 지자체에 따라 야간경관 또는 야간관광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경관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개요	선정 사례(사업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관광 진흥법)	지역체류형 관 광기반 마련을 통한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지원, 기반구축 및 저변확산, 홍보·마케팅 ■ 지원대상(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명소형(특별시 및 광역시) :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 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 로벌 야간관광 명소로 성장 가능한 도시 - 성장지원형(기초지자체(광역시 자치구 제 외), 특별자치시, 특례시 등) : 잠재력 있는 지역기반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특 화 야간경관 명소로 성장가능한 도시 	여주시(밤의 소리가 특별 한 야간관광 도시, 여수), 공주시(공주 온(ON) 밤 온(溫) 밤 사업), 성주시 (스위트나이트 참외 별도 시 성주)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관광 진흥법)	지역에 소재하 는 독특한 역 사·문화·관광레 포츠자원을 관 광자원화 함으 로써 다양한 관 광수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비 또는 개·보수비, 프로그램 개 발비 등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속동 스카이라이프 지 조성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인터넷 기사 검색하여 연구자가 정리

(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에서는 야간시간대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야간경관 개선
및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야행사업은 「문화유산보호법」⁶⁾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문화

6) '문화재'의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약칭 「문화유산법」 이라고 함

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야간에 특화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관광화로 지역의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에 문화유산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은 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지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며, 세계유산미디어 아트사업은 미디어아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에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표 2-7〉 국가유산청 야간경관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개요	선정 지자체(사업명)
문화유산 야행사업 (문화 유산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야간에 특화된 문화유산 향유·체험 콘텐츠 육성·지원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의 문화·관광·경제 활성화에 동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한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24년 사업운영 시 기후변화 대응 사업계획 필수 반영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지자체 ■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중소도시 - 시범형(마을공동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시 	공주시(미드나잇 인 공주, 1926), 당진(당찬 당신, 당진으로, 당장 오래!), 보령(바다를 열다, 시대를 열다), 부여(사비 새나라 부여 밤마실), 아산(선비, 외암마을의 밤을 거닐다), 예산(모더니 그린 달빛), 홍성(홍주 읍성, 조선의 밤을 밝히다) * 총 47곳 중 충남 해당 사례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문화유산 및 역사적 유적지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에게 야간에도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조명 설치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지 	황성군(황성성당), 익산시(미륵사지), 부여군(왕릉원)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사업	-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기술을 국가유산과 결합하여 지역의 문화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아트 제작·운영(미디어아트, 프로젝션 맵핑, AR, VR, 	익산(2023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고창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사업)	산을 보다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야간 콘텐츠로 육성 - 다양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 방안을 모색	MR, 이머시브 사운드, 인터랙티브 아트 등) ■ 지원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 실외 실경을 배경으로 미디어아트가 가능한 세계유산 또는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수원(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부여(2023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공주(2023 공산성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등
----------------	--	--	--

자료: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인터넷 기사 검색하여 연구자가 정리

2) 지자체 야간경관 관련 사업

(1) 광역지자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관 또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시·군을 선정하고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주야간 복합 또는 야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한 지자체별로 ‘경관사업’, ‘공공디자인사업’을 구분하여 사업 명칭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경관 및 환경 개선, 시설물 디자인, 경관조명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전라북도, 인천의 경우 ‘야간경관사업’, ‘야간관광사업’을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공모사업 방식은 아니지만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대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관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 조망 장소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 등 ‘야간경관사업’과 ‘야간관광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 및 야간경관, 야간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같이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야간경관 및 야간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 중 야간경관사업이 포함, 야간경관과 야간관광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8〉 광역자치단체 야간경관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개요
서울	도시경관 사업	역사·문화적 가치나 지역 활성화 요소를 품고 있음에도 소외·낙후된 지역을 쾌적하고 매력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지역 녹화,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지역의 역사적 및 문화적 경관 형성 사업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개소 : 도시의 매력 향상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야간 환경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특성 조사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래된 다리나 하천의 경관개선, 공원 조명 장치 조성 등 대상지에 맞는 디자인 도출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군 중 선정

강원도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생활 환경 조성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공공공간, 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 ■ 지원대상 : 18개 시·군 중 선정
충청남도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및 환경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 -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공공디자인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 경관자원을 활용한 경관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지원대상 : 15개 시·군 중 매년 3~5개소 선정
전라북도	야간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경관조명 설치 등 야간관광자원 시설 구축관리, 콘텐츠 개발, 야간행사 개최 등 ■ 지원대상 : 도 내 10개 시·군(인구감소지역 대상)
전라남도	남도 특화 경관조성사업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숨은 문화자원을 발굴해 지역 명소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경관이 있고 호기심을 끌 만한 특징이 있는 생활환경 등 남도의 문화가 스며있는 곳에 창의적 콘텐츠를 입혀 '블루 투어'를 견인할 새로운 지역 명소로 육성 ■ 지원대상 : 17 시·군 중 매년 2~3개소
인천	IFEZ 10대 야간 명소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 볼거리를 제 공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 -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다양한 야간활동 유도과 주변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활력을 제고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10대 명소 경관 조명 연출 디자인 및 기본설계, 10대 명소와 연계한 체험코스, 뷰 포인트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10대 명소의 단계별 조성과 홍보 ■ 지원대상 : 송도 :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스타트업파크,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 영종 :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공원, 구읍벤티 - 청라 : 청라호수공원, 커널웨이, 정서진문학공원
	공공 디자인 지원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지원대상 : 매년 10개소 이상 선정

대전	야간경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마련 - 그린시티 대전의 쾌적한 빛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하천 교량 및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건축물 주변에 대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경관 시설 조성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소(둔산대교, 한샘대교, 대화대교, 보문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내 관광여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적극적인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분수, 놀이시설, 캠핑 시설, 산책로 등 관광기반 시설 조성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마다 상이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검색하여 연구자가 정리

(2) 기초지자체

사업 실행 및 운영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사업 대상지의 위치나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①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②지역 자원의 활용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인프라 이용 향상, ③주민의 생활 및 거주환경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즉,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장소의 이용 활성화, 더 나아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생활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의 사업은 산책이나 휴식을 위한 보행 및 가로등,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지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지역 자원을 랜드마크화 하거나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조명 설치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공원이나 교량 등 점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하천, 수로, 항구 등 선적인 공간, 그리고 구역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사업 목적이 다양하며,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내용 및 범위, 대상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9〉 기초자치단체 야간경관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주요내용	대상지
경기도	김포시 라베니체 야간경관 개선사업	상업시설과 연계한 아름다운 수로 경관조성,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파사드 - 인터랙티브 체험 - 고보조명 및 수목투사 조명 - 난파선 분수대 및 벽면 간접조명 - 돌고래 조형물 조명 	수로
	마송, 걸포 중앙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링 공간 조성 - 미디어맵핑, 인터랙티브 조명 등 설치 - 분수 조성 	공원
	평택시 군문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평택의 대표적인 명소에 야간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 교량 경관조명 설치(역새축제가 열리는 노을생태문화공원과 연계)	교량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경관사업	색다른 조명 연출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 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체험 콘텐츠 제공	공원
충북 청주시	야간경관 사업(문체부 사업 공)	밤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성 미디어파사드 및 간접등 설치 - 교차로 및 마을 입구에 가로등, 경관조명, 토광조명 설치 	문화유산, 교량, 하천,

		모 예정)	객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난간조명 설치 - 관광명소에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주요 관광명소 5개 중심축 대상) - 수목투사 조명 및 보행조명, 사인조명 등 설치 	공원, 마을 입구, 주요 도로, 광장
충남	천안시	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특화 사업	천호지 경관자원과 주변사업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공간활용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별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 조성 - 정원 공간 정비 - 경계구역 조경 개선 - 광장 및 천수교에 경관조명 설치 - 테마산책길 및 무장애 산책로 조성 	공원
	서산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	자연, 역사, 문화 정체성 등을 반영한 경관조성사업을 통해 개성있고 활력있는 경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조명 - 낙지 조형물 - 트릭아트 	항구
경남	진주시	야간 경관 조명사업	역사도시 야경을 밝고 매력적인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설치 - 수목조명 설치 	수변, 역 및 관문, 자연유산, 문화유산, 도시기반 시설, 공원
	통영시	조명 경관 개선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라인조명 설치 - 와이어조명과 낙화분수 설치 - 미디어파사드, 압정형 조명, 상징조형물 설치 	수변, 민간 건축물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검색하여 연구자가 정리

3)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범위 설정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관련 공모사업들의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사업유형을 살펴보고 ‘야간경관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

중앙부처의 야간경관 관련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3개 사업, 국가유산청 2개 사업의 총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에서 보면, 야간관광 및 야간경관, 야간관광, 야간경관, 관광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간관광 및 야간경관 사업유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야간시간대의 관광 프로그램(체험, 전시, 관람 등)과 경관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관광유형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 및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사업 목적이나 주요내용이 야간관광과 야간경관으로 다르지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야간시간대에 관람, 체험, 전시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경관자원으로서 조망성과 심미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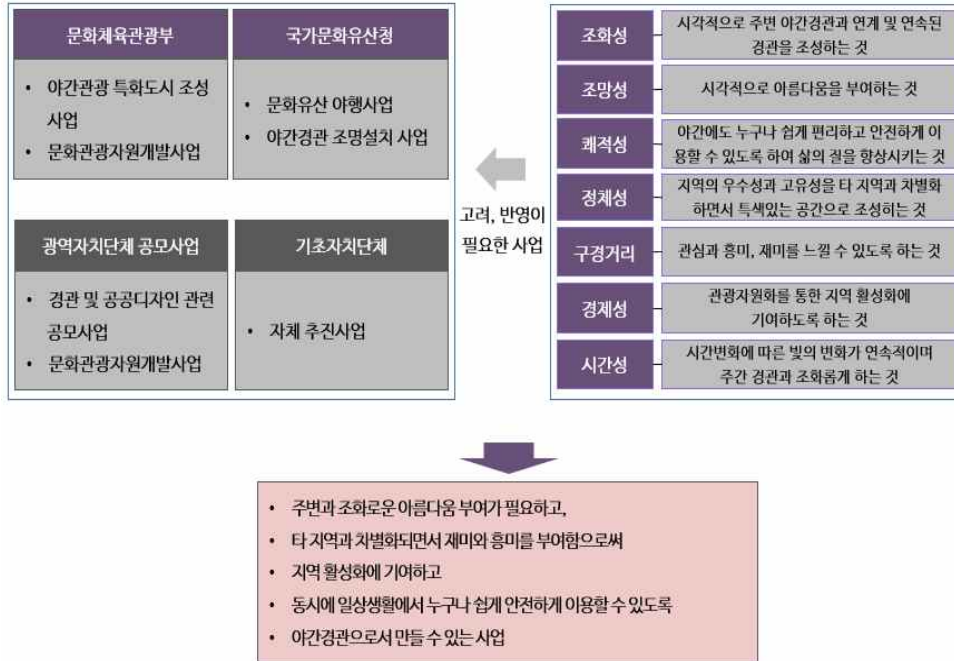
이 외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사업’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의 조망성이나 쾌적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표 2-10〉 중앙부처 야간경관 관련 사업 비교

사업명	사업 목적	주요내용	사업 유형	야간경관사업 기본방향						
				조망성	정체성	조화성	쾌적성	구경거리	경제성	시간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야간관광 - 지역 활성화	-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 야간관광 기반 구축 - 지역특화 야간경관 명소화	야간 관광, 야간 경관	○	○	○	○	○	○	○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 역사, 문화, 관광레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 자원개발 기반조성 - 프로그램 개발	관광	○	○	○	○	○	○	○
문화유산 야행사업	- 문화유산 가치 확산 - 지역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자원 연계 야간 관람, 체험, 전시	야간 관광	○	○	○	○	○	○	○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 문화유산의 야간 경관 개선 - 야간 감상 기회 제공	- 야간경관조명 설치	야간 경관	○	○	○	○	○	○	○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사업	-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대표적 야간 콘텐츠 육성	- 미디어 아트 제작, 운영	관광		○	○		○	○	○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광역지자체 공모사업, 해당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원 유형, 위치, 규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모하여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 경관 및 환경 개선, 시설물 디자인, 경관조명 등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야간경관사업 역시 경관사업, 공공디자인 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아름다움을 가져 누구나 조망 및 방문하고 싶게 하고 구경거리가 있는 야간경관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범위로 한다. 또한 공공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민간사업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범위

3. 관련 법 제도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은 「관광진흥법」, 국가유산청의 사업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사업은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야간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 제48조4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 자원화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유희자원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의7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 발굴·육성과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며, 관광숙박업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지 조성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 등의 절차가 있다.

〈표 2-11〉 관광진흥법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p>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흥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이라고 하며, 「문화유산보호법」을 개정한 것으로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문화재’의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의 심의, 제71조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문화유산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문화유산위원회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표 2-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5. 17.] 제4조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p>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3. 27.>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유산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장 시·도 지정 문화 유산	<p>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p> <p>②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p>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p> <p>[제목개정 2023. 8. 8.]</p> <p>[시행일: 2024. 5. 17.] 제71조</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경관법」

「경관법」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16조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지역의 경관 및 경관의식 향상을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사업 유형은 가로환경, 녹화, 야간경관, 역사적 및 문화적 특성의 경관사업, 농산어촌 경관 등이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에 경관 관련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30조와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 타 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와 같이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 행정규칙으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서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근거법에 따른 위원회, 그 밖에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 유연하게 타 법 제도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3〉 경관법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여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경관 사업	<p>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p>②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제6장 경관 위원회	<p>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p>

시 행 령	<p>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p> <p>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p> <p>④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2. 28.></p> <p>⑤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28.></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p> <p>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p>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p> <p>④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1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구분	내용
제6장 경관 위원 회의 구성· 운영 등	<p>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p> <p>6-2-1.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 국민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p>제9조(지역위원회) ①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추진협의체) ①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p> <p>③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많은 국가들이 빛공해를 심각한 환경공해로 인지하고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야간의 외부 조명에 대한 빛방사기준을 설립하는 등 빛공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함에 따라(이새롬·최춘웅, 2020),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 제정에 따라 제7조와 같이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9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리고 제3조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습지주변관리지역, 그 밖에 특별·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의 4단계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1조의 환경부에서 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제11조 환경부 제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적용되는 조명기구 ①「도로법」에 의한 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그 밖에 특별·광역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③「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것,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옥외체육시설 조명기구에 따른 눈부심 민원이 많아 지자체 조례에서 옥외체육시설 조명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에 적용되는 조명기구 유형 중 장식조명의 경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서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장식조명의 발광조명 설치 기준에서 역시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경관 조화를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식조명 설치는 점등 및 소등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및 야간 상징성이 필요한 장식조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나 관리주체가 별도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식조명의 색변화, 영상 등의 연출 역시 제한시간을 두면서 과도한 빛을 형성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빛공 해방 지계 획의 수립 등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제3장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의 지정 등	<p>제9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⑦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⑧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9. 11. 26.]</p>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7.>

③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7., 2019. 11.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시·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⑤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시행 령	<p>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건축법</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17〉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구분	내용
기본 원칙	<p>제3조(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나 장식면으로부터 방사된 빛이 빛방사 허용기준에서 각 관리구역별로 제시된 최대휘도 및 평균휘도를 준수하고 산란광, 침입광 및 글레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점·소등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3. (경관/주변환경과의 조화)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설치 기준	<p>③(발광조명 설치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ED 등 발광광원을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발광 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글레어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발광체 전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발광표면 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3. 이때, 설치 이전에 제작된 조명기구를 점등하여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색 또는 밝은 계열(노랑, 베이지 등)의 표면색을 갖는 조명기구는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후 휘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4. 사전측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발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한다.
유지 관리	<p>제6조(유지 관리) 설치된 장식조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할 것을 권장한다. ①(점등 및 소등시간)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23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숙박시설 및 야간 상징성이 필요한 장식조명 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출 시간제한)장식조명을 이용하여 색변환,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 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관련 법 제도의 야간경관 관련 내용 비교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한 법 제도들을 살펴본 결과, 야간경관 관련 내용은 「경관법」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각 법에서 지원 또는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관리 및 지원 수단에 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를 제외하고 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업의 관리 및 지원 수단은 사업추진 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자문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경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관법」이 유일하며,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이 구분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서는 경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법에서는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경관관리 수단 규정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경관관리를 위한 법 제도 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2-18〉 관련 법 제도의 비교

구분	지원사업	사업 관리·지원(위원회)			야간경관 내용 포함 여부
		자문	심의	경관 분야 전문가 포함 여부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상품 개발 -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사업 -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 발굴, 육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시책 수립·추진 	×	○	×	×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 - 지역 녹화 관련 사업 -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 그 밖에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업 	○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지자체 조례에 위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	지자체 조례에 위임	○

4. 선행연구 분석

1) 관련 선행연구 분석

최근 10년 간 야간경관 관련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책 방향 제시, 제도 개선,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요인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형복(2014)은 2011년 대전시에서 수립한 야간경관계획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야간경관계획 분석 및 2012년에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내용 분석을 통해 대전시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방향, 시범사업,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홍보방안 등 야간경관 활성화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경관 사업이 활성화 되기 이전 기 수립한 야간경관계획의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석호 외(2023)는 충남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야간관광 조례 및 계획 마련, 장소 및 시설의 활용과 교통·안전·상업활동 지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운영관리 주체 및 정책 및 사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야간경관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장소 조성 유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야간경관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관리와는 연구의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 중 이임정·최주영(2020)의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야간경관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관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 조명 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새롬·최춘웅(2020)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구분 기준 강화 및 인접 지역과의 관계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야간경관계획 및 사업 추진 시 필요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광국 외(2015)와 안지윤 외(2015)는 야간경관과 공공디자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가 도시이미지 및 만족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야간경관계획 및 사업추진 시 고려할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양정순(2016)과 김현근·김아연(2018), 이나겸·임수영(2021)은 도시공원의 이용자 이용후 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야간경관계획에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계획 필요성, 조명 계획 및 수목과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경관조명이 야간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현·박숙진(2017)은 야간경관 조명과 야간관광 활성화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조도, 심미성 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성민·이훈(2020)과 김성민·이훈(2023)의 연구에서는 야간관광지에 대한 야간경관 이미지 및 인식분석을 통해 관광객이 선호하는 야간경관 이미지 및 야간관광자원과 야간경관 요소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야간관광지 경쟁력 향상 및 야간관광자원화를 위한 야간경관 요소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9〉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자 및 과제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정책 방향 제시	· 연구자(년도): 이형복(2014) · 과제명: 대전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연구	야간경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빛공해 방지법 시행 및 경관법 전부 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전시의 야간경관정책 재정비 방향 모색	· 야간경관의 개념과 특성 분석 · 타 지자체 야간경관계획 내용 분석 및 행정의식분석 · 기존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특성 분석, 시민 의식조사 · 대전 야간경관 활성화 기본방향 제시(시범사업 확대 방안, 가이드라인 구상안, 야간경관 조명 및 홍보방안)
	· 연구자(년도): 한석호 외(2023) · 과제명: 충청남도 야간관광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충남 실정에 맞는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제시	· 야간관광의 개념 및 정의, 기능, 범위, 필요성 및 효과성 등 조사, 분석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야간관광 관련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야간관광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 충남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충남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획(계획, 법, 제도), 물리적(장소 및 시설, 수용태세), 서비스(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운영관리(추진 및 관리주체, 정책 및 사업관리)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제안
제도 개선	· 연구자(년도): 이임정·최주영(2020) · 과제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야간경관 계획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연구	도시개발사업 시 야간경관계획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을 도시계획, 경관 및 조명계획, 건축 분야 관점에서 제시	·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개념 분석 · 경관 및 조명 관련 법규, 계획, 조례 등을 고려하면서 도시개발 체크리스트 항목과 연계한 야간경관계획 평가항목 도출 · 야간경관계획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제시
	· 연구자(년도): 이임정·최주영(2020) · 과제명: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 의한 야간경관계획의 전문가별 특성 연구	사전경관심의 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의 전문가별 상대적 중요도 특성 분석을 통해 사전경관심의 단계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야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 선행연구 분석 · 경관심의 제도의 문제점 분석 · 도시, 건축, 경관 관련 실무자, 공무원,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별 야간경관계획의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 다양한 평가항목 기준 제시를 통해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필요성 제시
	· 연구자(년도): 이새롬·최춘웅(2020)	빛공해 지도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빛공해 정도	· 조명환경관리구역 개념 · 서울의 자치구별 용도지역 및 방사허용기준 초

계 획 및 사 업 추 진 시 필 요 요 인	· 과제명: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를 통한 서울시 조명환경관 리구역 기준 분석	분석을 통해 빛공해 저감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기준 검증	· 과율 현황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빛공해 수준 분석 · 제3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용도지역 특성별 빛 방사허용기준 개선방향 제시
	· 연구자(년도): 이광 국 외(2015) · 과제명: 도시이미지 및 만족도에 야간경 관 공공디자인이 미 치는 영향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야 간경관 관련 요소 도출, 요소가 도시이미지 및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 도시이미지 개념 분석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수립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가 도시이미지 및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자(년도): 안지 윤 외(2015) · 과제명: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야간경관의 공공디자인 요소가 야간관광지 부산 의 추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공디자인 요소 및 추천의도 개념 분석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수립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영향 실증 분석 ·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야간경관의 경험에서 오 는 편안함과 스트레스 감소의 복지성, 레저생 활의 환경 제공의 쾌적성이 높은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도출
	· 연구자(년도): 양정 순(2016) · 과제명: 도시공원의 야간경관디자인 이 용후 평가	도시공원 이용자 평가를 통해 도시공원의 야간경 관계획에 있어 이용자 중 심의 계획 방법론 도출	· 이용자를 고려하기보다 행정적 편의성 및 시공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문제점 도출 · 도시공원 야간경관디자인에 있어서 이용자중 심의 계획의 필요성을 도시경관적 측면, 공간 구조적 측면, 공간지각적 측면에서 규명
	· 연구자(년도): 김태 현 박숙진(2017) · 과제명: 서울한양도 성의 경관조명이 체 험관광가치와 야간 관광 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	서울한양도성 야간경관조 명의 야간체험관광가치를 통한 야간관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관계 고찰	· 문화유산과 경관조명의 관계, 야간체험관광과 야간경관의 관계 분석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 야간경관조명이 야간관광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역사문화와 조화로운 빛과 조도, 계절 및 시간대별 심미성 등 감성적 측 면을 고려 등 전략 제시
	· 연구자(년도): 김현 근·김아연(2018) · 과제명: 도시공원 야간경관의 조성 과정과 실태 분석 - 여의도공원을 중	도시공원 야간경관 실태 분석을 통해 주간에 초점 이 맞춰져 있던 도시공원 계획-설계 과정을 야간 으로 확장하고, 야간경관 에 대한 계획원칙과 설계	· 도시공원의 야간경관 실태를 계획 및 설계단 계, 설치 및 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 ·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야간경관 연출 방법론 개발 필요성 제시 · 야간경관을 위한 연직면 조도, 색온도, 균제도, 반원통형 조도, 연색성, 배광 제어등 등 평가

심으로 -	지침 수립의 구조적 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 계획 기준 다양화 필요성 제시 · 도시공원 수목 성장 등 내부적 요인 변화에 대처한 조명의 조도, 공간의 성격 및 식생 분포,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한 야간경관 계획의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년도): 김성민·이훈(2020) · 과제명: 부산 야간경관 이미지의 사회 연결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을 사례로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야간경관 이미지 및 인식 분석을 통해 관광지 경쟁력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관광지 이미지 개념, 관광 목적의 야간경관 분석 · 소셜 네트워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산 야간경관 키워드 도출 · 관광객이 선호하는 야간경관 이미지 연출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년도): 이나겸·임수영(2021) · 과제명: ESG행정을 위한 야간경관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사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명소의 대두와 MZ세대의 정보습득 행태 분석 · 공원의 야간경관 선호도 분석 · 공원 및 야간경관 인식 분석 · 야간경관조성 사업 시 조닝 및 동선계획, 야간경관 요소나 연출 방법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년도): 김성민·이훈(2023) · 과제명: 도시 야간관광지의 관광객 야간경관 경험 평가척도 개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경험하는 도시 야간관광의 다차원적 개념 정의 및 평가척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학 및 야간경관, 야간관광의 개념 분석 · 하르트만의 미학 이론에서 본 야간관광 구조 분석 · 야간관광지 유형(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축제 및 이벤트) 도출 · 야간관광자원의 디자인, 형태, 감정 및 경험과의 관계 규명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야간경관계획 및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거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으며, 충남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제안한 연구에서 물리적 장소로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필요함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최근 다양한 근거법에 의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야간경관 관련 사업이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법」 상 야간경관사업이 아닌 타 근거법에 의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경관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본 연구는 경관관리 관점에서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경관관리 방안을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야간경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충남도 및 15개 시·군 야간경관사업 부서,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등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고,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야간경관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충남 야간경관관리를 위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 근거법 간 연계 방안 검토, 그리고 충남의 여건을 반영하여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는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방지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0〉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주요내용
①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의 경관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에 의한 야간경관사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야간경관 관련 사업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청의 야간경관 관련 사업 - 도 공모사업 및 도민참여예산제의 야간경관 관련 사업 <p>→ 이들 사업의 경관관리 방안으로서 법 제도 연계, 추진주체 역할, 사업 추진 절차 제시</p>
② 사업 추진주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 시·군 야간경관사업 추진 부서 - 전문기관(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 주민 <p>→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관련 행정 담당자의 의식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과제 도출, 참여주체의 역할 제시, 사업 추진 자원 방안 제시</p>
③ 관련 법제 간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관련 사업 근거법에서의 경관관리를 위한 연계 방안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반영 방안 <p>→ 충남 야간경관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연계 방안 제시, 충남에서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방지법」 연계 방안 제시</p>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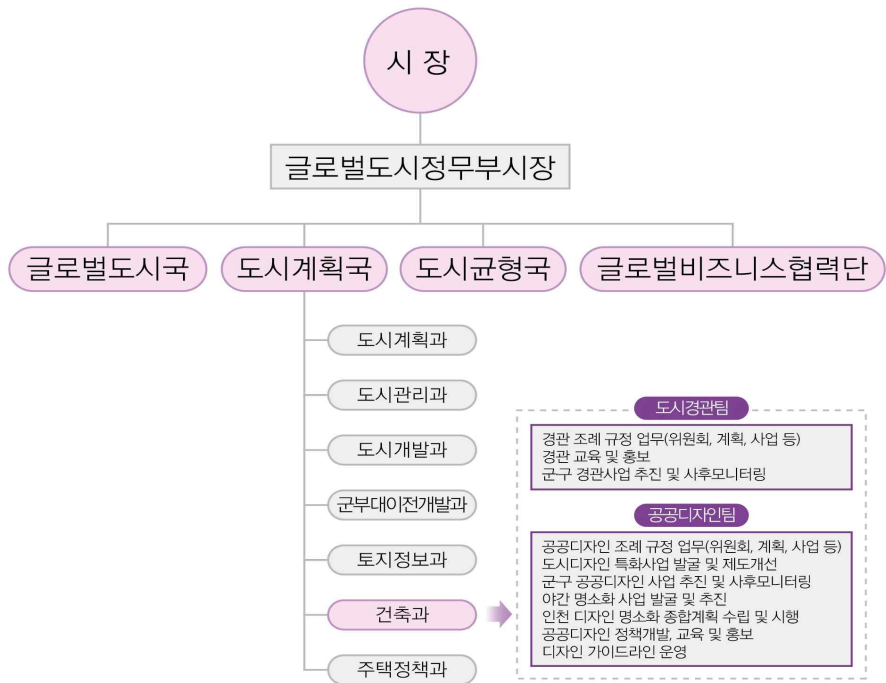
타 지자체 야간경관 정책 및 사업 분석

1. 인천광역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시사점

1. 인천광역시⁷⁾

1) 조직 현황

2024년 4월 기준 인천광역시는 「경관법」 소관 업무를 도시계획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공공디자인 진흥법」은 공공디자인팀에서 맡고 있다. 도시경관팀의 주요 사무는 ①경관위원회 운영, ②경관계획수립 및 운영, ③경관사업 추진, ④ 각종 사업에 대한 경관협의 업무, ⑤경관기록화사업 등이다.



[그림 3-1] 인천광역시 행정조직도

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황희정 주무관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함

2) 야간경관사업 추진 체계

인천광역시는 2003년 「도시경관조례」 제정, 2004년 도시경관위원회 구성 등 도시경관 행정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최초 「경관조례」 제정 때부터 도시의 미관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권장 사항을 명시하는 등 야간경관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다. 또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야간경관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내 2군, 8구의 사업계획을 조정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⁸⁾.

(1) 「경관조례」

인천광역시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고대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이나 공업도시의 성장 배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원도심과 비도시지역의 쇠퇴, 그로 인한 산·구도심 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천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관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추진, 야간경관형성 등의 시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2003년 자치조례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였다. 「도시경관조례」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 미술 작품, 환경조형물에 야간조명을 권장하고 공공건축물, 문화유산, 항만, 교량, 상징조형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야간조명설치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4년 「경관법」 전부 개정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야간

8) 시에서는 주로 사업을 기획하여 군·구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하며, 사업비는 50%를 지원함.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련 시설물 등을 구로 이관하기도 함

경관사업의 경관심의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즉, 인허가권자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승인,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시설의 경관심의와 달리 야간경관사업은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은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⁹⁾.

제6장 경관위원회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도시미관의 개선 등

제30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5제1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31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국가와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 3. 향만시설과 교량 4.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그림 3-2]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9)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조합이나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야간조명 설치 계획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임

(2) 경관계획 수립

인천광역시는 2006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2020인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2006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과 ‘2006 인천광역시 시가지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야간경관계획은 현행 법령에 따른 ‘특정경관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권역별, 용도지역별, 시설별 야간경관연출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외에도 인천광역시 관내 2군, 8구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군구 경관형성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24년 4월 현재까지 ‘특정경관계획’ 성격의 야간경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시군 경관계획 성격의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야간경관사업을 발굴제안하였다.

2015년 이후 야간경관사업은 공공디자인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 성격이 달라졌다. 정책계획보다는 사업계획 성격의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를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발굴하고, 토지이용별 야간조명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간과 문화의 결합 등 야간경관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야간명소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 8개소를 발굴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분석을 통해서 야간명소화 사업 추진 거점, 사업 신규 추진 대상지, 중장기 추진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별 연출 방향과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림 3-3] 야간경관 10대 명소

출처 : 인천광역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

〈표 3-1〉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도출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대상지

연 번	계 획	군 구	대 상 지	유 형	인천다운 빛
1	과업 대상지	중구	인천항 사일로	관광문화기반형	경관의 빛
2			동인천역	도시경제기반형	경관의 빛
3		미추홀구	수봉공원	관광문화기반형	전통의 빛
4		남동구	시청 열린광장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5			인천대공원	주거환경기반형	경관의 빛
6			중앙공원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7		서구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8	신규 추진 대상지	중구	상상플랫폼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9			개항장 지구 일원 (치이나 타운 + 개항장 지구)	관광문화기반형	전통의 빛
10		동구	동일방직	도시경제기반형	미래의 빛
11		미추홀구	문학산	주거환경기반형	경관의 빛
12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13			송도 석산	주거환경기반형	미래의 빛
14		남동구	소래포구	관광문화기반형	경관의 빛
15	중장기 대상지	서구	청라 호수공원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16		중구	인천대교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17			용유노을빛타운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18			북성포구	주거환경기반형	전통의 빛
19		동구	배다리골	관광문화기반형	전통의 빛
20		미추홀구	제물포역	도시경제기반형	전통의 빛
21		연수구	선학경기장	도시경제기반형	미래의 빛
22			청량산	주거환경기반형	경관의 빛
23		남동구	남동유수지	주거환경기반형	경관의 빛
24			소래습지생태공원	주거환경기반형	경관의 빛
25		부평구	부평역 주변 + 지하상가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26			캠프마켓(미군기지)	도시경제기반형	전통의 빛
27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관광문화기반형	경관의 빛
28			영종대교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29		강화군	강화대교	관광문화기반형	미래의 빛
30			교동읍성	관광문화기반형	전통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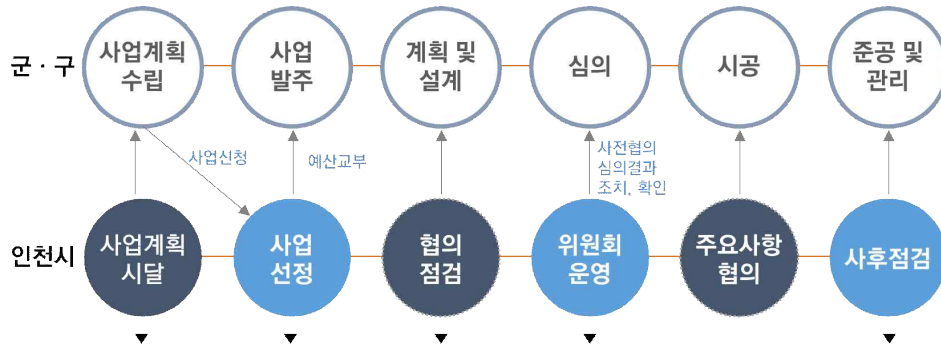
(3) 경관사업 추진 및 관리

2006년 야간경관계획 수립 이후 2024년 4월까지 ‘군구 경관형성사업’으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이후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징조형물, 공공시설물 야간연출,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의 사업이 활발해졌다.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발굴 및 사업추진 방향을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하여 군구로 전파하면, 군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신청하고, 사업 선정 후 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로 승인 신청을 하면, 시는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사업 시공 후에는 시와 군구가 공동으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 증진과 지속성을 도모한다. 경관사업은 군구 보조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 과정에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사업발굴, 계획안 확정, 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 현장 시찰을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후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와 군구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군구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 시달(시) → 사업 신청(군·구) → 사업선정(시) → 추진(군·구) → 협의·점검(시, 군·구) → 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시) → 준공(군·구) → 사후점검(시, 군·구)

[그림 3-4] 야간경관사업 추진 절차



[그림 3-5] 경관사업 추진 절차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4) 협력체계 구축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빛공해를 유발하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여 주요 현안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① 월미도 주변 경관정비 TF

시에서는 월미도를 순회하는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함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야간경관사업의 사업계획을 경관심의 상정 및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조율하고,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②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관광명소 확대 협업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20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업 회의에서는 사업 부서와 경관 부서, 그 외 예산 및 홍보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상정 사항이나 인천항,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이 요구되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 강구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림 3-6] 인천항 사일로 미디어파사드, 월미공원 야간경관조성 사례
(경관심의 지원, 세부디자인 조정)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③환경국과 협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빛공해방지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주로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야간경관사업과 유사한 안건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심의 시 야간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도시경관팀장이 배석함으로써 관련 분야 부서 간 협업을 하고 있다.

〈표 3-2〉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명 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3명) - 위원장 : 환경국장 - 위원 : 당연직(2), 전문가(4), 협회(1), 산업(3)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표 3-3〉 인천광역시 빚공해방지위원회 개요

연 도	처리 건수	심의안건
제1기 (16.4.1.~18.3.31.)	2	- 빚공해방지계획(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안)
제2기 (18.4.1.~20.3.31.)	2	- 조명환경관리구역 유예지역 변경(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 조명기구 변경(안)
제3기 (20.4.1.~22.3.31.)	1	- 조례일부개정 심의 (빚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 규정 및 빚공해 환경영향평가 규정 신설)
제4기 (22.4.1.~24.3.31.)	3	- 조명환경관리구역 유예지역 변경(안), - 인천광역시 빚공해 방지 및 관리계획(안), - 친환경적 빚환경 관리계획(안)
제5기 (24.4.1.~26.3.31.)	3	- 제5기 빚공해방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인천광역시 빚공해 방지 및 관리계획(2023-2027) 추진 보고 - 빚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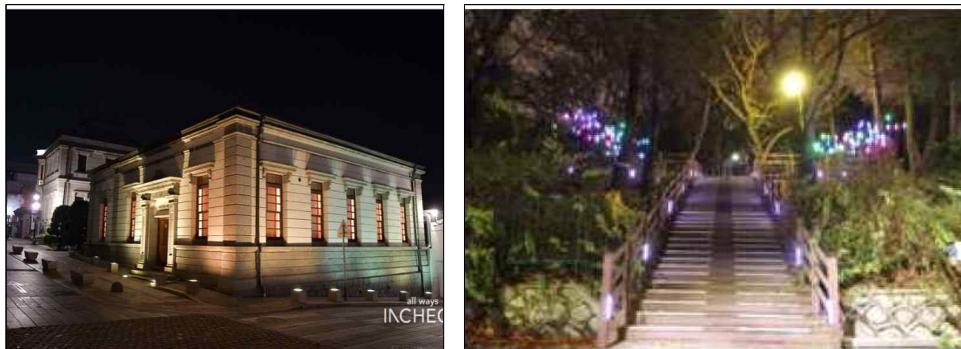
3)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

(1) 군·구 경관형성사업

2015년까지는 주로 2006년 시가지 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을 근거로 경관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역사문화경관지역 대상의 야간경관형성 위주로 실시하였고, 일부 보행환경 정비의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군·구 경관형성사업으로 16개소의 사업 중 14개소 사업이 야간경관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군·구 1특화가로 17개소의 사업 중 6개소의 사업이 야간경관형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인천연구원과 함께 시에서 추진한 경관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윤혜영·정민선, 2015). 경관사업 실시 효과에 대하여 상업 및 지역 활성화, 이미지 개선, 공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는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야간경관사업 정책 방향 도출 연구(윤혜영·정민선, 2015)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야간경관사업은 점적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적고 야경요소의 적극적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위계에 따른 디자인 도입 등 장기적, 사업 통일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역 용도와 특성에 부합한 야간경관사업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2015년 이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림 3-7] 군·구 경관형성사업 사례(좌: 근대건축전시관, 우: 수봉공원)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2)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인천만의 특징과 개성을 갖춘 야간경관 형성으로 관광활성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다.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7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과 연계하여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야간에는 야간경관 형성으로, 주간에는 색, 디자인을 활용한 주간 명소 조성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TFT를 구성하여, 경관 사업 외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도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8년부터 총 8개소의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색채 및 디자인 명소화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10대 명소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¹⁰⁾.

지역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관광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야간경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사업 대상지가 접근성이 낮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¹⁾.

10) 2020. 11. 23.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도자료 ‘IFEZ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태어난다’

11) ‘인천야간 명소화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의문...실효성 없다.’ 2024. 5. 21. 경기신문.



[그림 3-8]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미디어파사드, 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3) 문제점

①사업 대상지의 편중

야간경관사업은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시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천의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2022년 문체부 제 1호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관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편중되어 있어 원도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를 원도심까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②사업계획의 수준 문제

인천광역시시는 야간경관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심의를 통해 야간경관 관리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위원회 상정 결과를 살펴보면, 재검토의결 비율이 약 45%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인천광역시 전문위원 사전협의부터 심의의견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 사업이 도시경관 측면에서 야간경관 현황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시는 경관위원회 상정 전 시 전문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심의도서를 검토하여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주요 내용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경관변화 예측과 통합디자인, 조도 및 휘도 분석 등 관련 서류 추가 또는 보완 등이다.

경관심의에서는 마스터플랜 부재, 야간경관 사업의 연출대상과 연출방식의 적합여부 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재검토 의결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사업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현란한 야간 조명 연출 계획, 당초 사업 추진 목적과 상이한 야간 조명 연출 계획, 타 지자체에서도 흔히 보이는 차별성이 부족한 야간 조명 연출 계획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 부서가 재검토 의결 빈도가 높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산의 신속집행, 낮은 설계단가와 입찰 방식, 담당 공무원의 역량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야간경관 관련 컨설팅 제도 도입, 관련 사업 담당자 교육 등, 사업의 수준을 높이고, 경관위원회의 재검토의결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4〉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2014.3. ~ 2024.4.)

구분	SOC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계획	경관사업	야간경관	기타	총합계
총계	41	72	181	11	32	31	1	369
	11.1%	19.5%	49.1%	3.0%	8.7%	8.4%	0.3%	100.0%
재검토	5	16	49	3	13	14	0	100
	12.2%	22.2%	27.1%	27.3%	40.6%	45.2%	0.0%	27.1%
조건부	23	44	104	7	14	13		205
	56.1%	61.1%	57.5%	63.6%	43.8%	41.9%	0.0%	55.6%
원안 의결	13	12	28	1	5	4	1	64
	31.7%	16.7%	15.5%	9.1%	15.6%	12.9%	100.0%	17.3%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표 3-5〉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주요 내용(2016~2021)

구분	심의 의견	제시 빈도
1	공간적 범위 내 조명 연출 컨셉과 연출 전략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야간경관을 이루도록 계획한다.	64.29%
2	조형미 또는 예술성 증진과는 무관한 RGB 광원의 무분별한 연출은 지양한다.	42.86%
3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및 조명연출기법을 도입한다.	28.57%
4	조명환경관리 및 KS 기준 등 적정 조도, 휘도,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14.29%
5	입지 환경의 기후적,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조명연출 방식을 적용한다.	14.29%
6	시거리(근경/중경/원경)별 야간경관 조망 현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14.29%
7	투사 대상의 구조미를 살리는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14.29%
8	주간시간대의 조명기구 노출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설치 및 배치한다.	14.29%
9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 연출에 대한 작가 선정 및 콘텐츠에 대해 제시한다.	14.29%
10	조명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연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14.29%
11	객관적인 조도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7.14%
12	적정 색온도(3000k)의 광원을 적용한다.	7.14%
13	조명기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야간환경을 조성한다.	7.14%
14	조명기구 및 기기 외함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14%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③각 부서별 개별사업 추진, 관련 규정과 연계한 가이드라인 부재

야간경관 관련 사업이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산만하고 무질서한 경관을 야기하고, 빛공해 유발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45.9%로 나타났다으며, 조명 종류별 초과율 현황에 따르면 장식조명이 가장 높으며, 빛공해 침해로 인한 민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의 유예지역 중 중심상업지역과 산업단지는 4종 관리지역으로 조정하였으나, 월미관광특구는 여전히 유예지역으로 대상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야간경관형성 사업 추진 시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디어아트의 열풍으로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야간경관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어 빛공해 방지와 야간경관 형성 문제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표 3-6〉 빛공해 관련 민원 현황

연도별 민원 현황						2021년 유형별 피해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생활불편	수면방해	눈부심	기타
민원 (건)	962	140	208	286	338	338	175	126	36	1

* 2021년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자료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표 3-7〉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초과율						조명종류별 초과율			
구 분	계	제1종 (보전녹지)	제2종 (생산녹지)	제3종 (주거)	제4종 (상업·공업)	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초과율 (%)	45.9	100	63.0	46.4	43.4	45.9	29.2	49.3	59.8

* 표준지 404개소, 총 4,363개의 주거지연직면조도, 발광표면휘도, 기타조도 등 측정·평가 결과임
출처: 인천광역시 제공자료

④야간경관 계획 및 사업만 별도 추진

경관사업 외,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 야간경관 연출이 추가 요구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야간경관연출 계획만 연차별로 별도 발주되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이나 구조물, 기타 공간 설계가 진행된 이후 야간경관조성 계획이 별도로 발주되고 경관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통합디자인에 한계를 드러내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업 초기 기본 구상부터 야간경관 연출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4) 소결

(1) 대상지 선정 및 종합적 관점 고려

야간경관사업은 야간에 빛 연출을 통한 경관형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된다. 실제 수봉공원 야간경관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명소로서 지역으로의 방문객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다.

다만, 접근성이 좋고 주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사업효과가 극명한 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외된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유관 사업과 협업으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2) 사업계획 수준 향상 방안 마련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분명히 사업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예산 반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관위원회 심의는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내부 결정과정을 거친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정에 한계가 있다.

사업계획은 우선 관련 전문성을 지닌 전문 회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 구조가 유연할수록 사업계획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건축계획이나 구조물 디자인 및 설치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을 고려한 조명설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며, 기본 구상 단계부터 경관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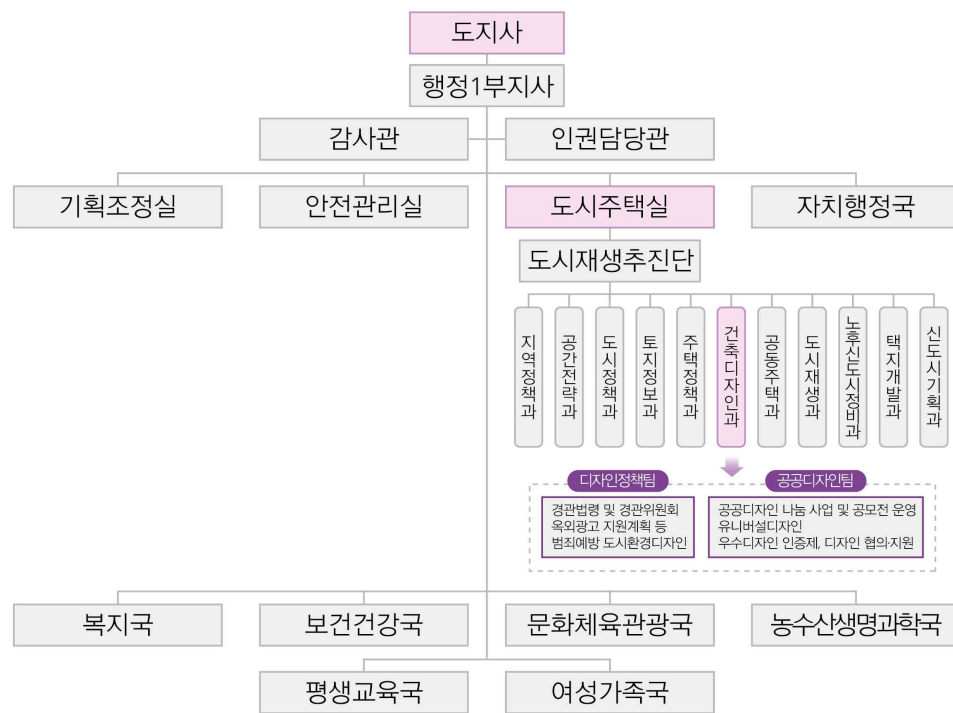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현재 사업계획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사전검토제도¹²⁾’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기본 구상 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심의위원의 검토가 진행되므로 사업계획의 질 향상과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야간경관사업은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시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12) 경관심의 운영 지침 5-1-1.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경관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사전검토제를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안은 재검토의 절차를 할 수 없다.

2. 경기도¹³⁾

1) 조직 현황

경기도 경관 업무는 도시재생추진단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관 외 옥외광고물, 범죄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림 3-9] 경기도 행정조직도

13)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이서화 주무관이 작성한 원고, 경기도 제공 내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2) 야간경관사업 추진 체계

(1) 「경관조례」

경기도는 「경관조례」에서 야간경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에 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야간경관형성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등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 사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사업이다. 즉, 경기도의 경우 사업비 기준이 아닌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 및 대상 중 도비 보조사업을 경기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야간경관 사업을 해당 시·군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개 시에서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은 자문, 또 1개 군에서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자문을 하도록 「경관조례」에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도 및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군 보조사업 포함) 중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2016.12.16.]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신설 2023.7.1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별표] 조명계획 관련 야간경관 심의 대상(제25조제4호 관련)

구분	심의 대상
1.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포함)
2. 옥외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호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이벤트조명, 수변조명 등
3. 도시기반시설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

[그림 3-10] 경기도 경관 조례

〈표 3-8〉 경기도 내 31개 시·군 「경관조례」 상 야간경관사업 심의 대상 여부

시·군	야간경관사업 심의대상 여부	
	여부	내용
수원시	×	
고양시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용인시	×	
성남시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자문
화성시	×	
부천시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남양주시	×	
안산시	×	
안양시	×	
평택시	○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업 (단,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조명시설의 색채와 조도의 변경 없이 시행되거나, 일시적 설치의 목적으로 설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업은 제외)
시흥시	○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파주시	×	
김포시	×	
의정부시	×	
광주시	×	
광명시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군포시	×	
하남시	×	
오산시	×	
양주시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이천시	×	
구리시	○	공동주택의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다)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 1(경기도 조례와 동일)에 해당하는 사업
안성시	×	
의왕시	×	
포천시	△	야간경관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은 자문
양평군	○	경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며,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여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과천시	×	
연천군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2) 경관계획 수립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 「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 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2020년에 「제2차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경관계획이자 2012년에 개발한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재정비 성격의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에서는 인공조명의 빛공해 관리에서 더 나아가 생활 체감형 야간경관계획으로서 경기도민의 야간 활동 및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일상적 야간경관 형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경기도 야간경관 비전과 전략, 경기도의 대표 야간경관자원을 도출하여 전략별 대표 야간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별 실행방안을 보면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문화향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명소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 향상 및 야간경관 특화 등 경기도의 야간경관 관련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향 및 주제별로 사업추진 유형, 즉 광역도 주도형, 도와 시·군 협업형, 지자체 공모형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주제별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사업 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사업 부서 및 설계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소별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아트의 열풍으로 미디어 파사드, 고보조명 등 영상 및 패턴조명 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요소에 따라 도농복합의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11]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출처: 2020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표 3-9〉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추진사업 방향 및 주제

구분	경기도 주도형 야간경관사업	경기도-시·군 협업형 야간경관사업	지자체 공모형 야간경관사업
사업 추진 방향	대표 야간경관자원의 경기도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도차원의 선도 사업 시행	대표 야간경관자원의 경기도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 수립	공모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경기도 사업 평가(협의 사항 실시 설계 반영 여부 감독)
		시·군 대표 야간경관자원 연계 야간경관 세부 사업 시행 및 정책 이행	시·군 사업 공모 신청 및 시행, 사업 종료 후 인공조명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경기 도민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점소등 시간 참여	경기 도민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사업 주제	"경기도 주관 빛문화 프로그램 기획"	"도·시·군 협업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생활 밀착형 야간경관 활성화"
	주제1 34대 경기문화야경 선정 및 홍보	주제1 야경특화자원 중심 빛의 클러스터 조성	주제1 밤길 안심 빛 환경 조성
	주제2 경기도 밤하늘 별빛 명소 브랜드화	주제2 경기도 야간 관문경관 형성	주제2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생활조명 개선
		주제3 산업단지 야간경관 개선	

출처: 2020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표 3-10〉 경기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중 ‘공원’의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가이드라인

도시지역		
구 분	가이드라인	반영여부
조명연출	고층 조망이 발생할 경우 공원의 평면계획이 나타나도록 연출한다.	
	조명과 연계된 스트리트퍼니처 개념의 오브제 설치를 권장한다.	
	활동성 및 이용자가 많은 공원은 연속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명연출을 적용한다.	
	체육시설 설치 시 인접 생활지 빛공해 발생 방지를 위해 컷오프형 렌즈타입을 우선 권장하고, 부득이할 경우 덮개·루버 등의 보조장치를 미관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비도시지역		
구 분	가이드라인	반영여부
조명연출	빛공해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생태보전지역에는 조명 사용을 지양한다.	
	환경친화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자연요소 심미성과 이용 안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명을 연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밤하늘의 별과 함께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절제된 조명을 연출한다.	
	연출 타당성 및 기대효과가 미미한 영상 및 패턴 조명은 설치를 지양한다.	
	낙조, 월출 명소의 경우 낙조, 월출 시간과 연계한 연출 및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출처: 2020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3) 경관사업 추진 및 관리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토대로 31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관 조례」를 근거로 도비 포함 사업은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경관심의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경관심의 운영 지침’의 사전 검토 제도와 다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군 사업부서에서 경기도 디자인정책팀에 경관심의를 요청하면 디자인정책팀이 경기도 경관위원회(소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이 제시한 사전 검토 의견서의 내용을 사업 부서에 전달, 사업 부서에서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до서를 수정하여 경기도 디자인정책팀에 전달하면 디자인정책팀이 경관심의에 상정한다. 경관심의에서 사전 검토 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 재검토/조건부/원안 의결이 되며, 이 부분이 국토부 고시 ‘경관심의 운영 지침’의 사전 검토 제도¹⁴⁾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절차	참여주체	역할
경관심의 요청	사업 부서 (시·군)	- 경기도 디자인정책팀에 요청
사전 검토 요청	심의 담당부서 (경기도 디자인정책팀)	- 경기도 경관위원회(소위원회) 전원에 요청
사전 검토 진행	경기도 경관위원회	- 검토 의견서 작성
사전 검토 결과 공지	심의 담당 부서 (경기도 디자인정책팀)	- 경관위원회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 부서에 공지
사전 검토 의견 반영	사업 부서, 사업주체 (심의신청자)	-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도서 재작성
경관위원회 심의 진행	심의 담당부서 (경기도 디자인정책팀), 경기도 경관위원회	- 사전 검토 반영 여부 검토 - 재검토/조건부/원안 의결 등 심의 결과 사업 부서에 통보

[그림 3-12]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14) 경관심의의 운영 지침의 사전 검토 제도는 경관심의의 위원 중 3명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사전 검토에 참여했던 위원이 본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 반영 여부를 심의하여 사전검토제를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안은 재검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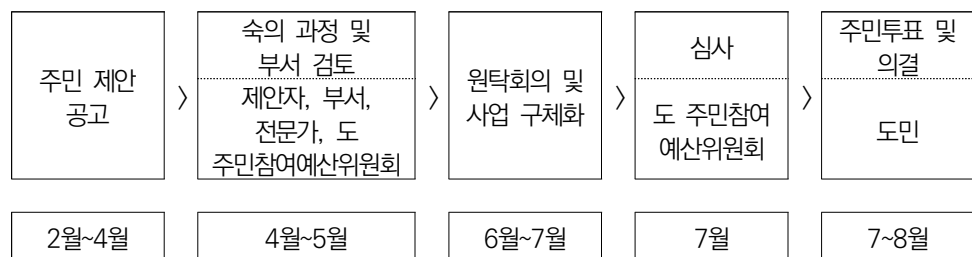
3)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1)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력 있는 야간환경 개선을 통해 경관이미지 및 경관 의식을 향상시키고 오래되고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인공조명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민의 야간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받은 야간경관 및 야간환경 개선 요청의 주민 의견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구체화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주로 공원, 원도심, 시 관문,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환경을 영위하고 야간의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선정 절차는 1월에 공모사업을 31개 시·군에 통보하고 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경기도)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한다. 평가는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 평가하여 3월에 선정 결과 통보 및 도비 보조금 교부 후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디자인 개발을 추진한다.



[그림 3-13]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절차

1월	2월	3월	4월 ~
공모계획 알림 및 신청 접수	평가 (1차 서류, 2차 현장)	선정 결과 알림 및 도비 보조금 교부	시·군 자체 예산 편성(추경) 입찰 공고, 디자인 개발, 주민 설명회, 공사 추진 및 준공

[그림 3-14]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사업' 추진 일정

(2) 사업 대상지 특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7개의 사업지가 공모되었으며, 수변 및 근린공원이 24개소(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교량 및 육교 시설물 8개소, 산책로 및 녹지 7개소, 원도심이 6개소, 문화유산, 시·도 관문, 관광지, 지상철 및 경전철의 철도 시설물, 시 대표 건축물 등이 신청되어 도시 전반에 야간경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공모 신청 대상지 특징별 분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27개소 공모	19개소 공모	21개소	
관문(도로)	2	-	2	4
문화유산	2	-	2	4
원도심	2	4	2	6
관광지	1	-	1	2
수변 공원	3	3	3	9
근린 공원	6	4	5	15
교량 및 육교	5	2	1	8
산책로 및 녹지	2	3	2	7
자연경관	2	-	-	2
철도 시설물	1	2	1	4
건축물	1	1	2	4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3) 사업 추진 대상지 분석

3년간 총 14개소의 시·도 관문, 교량 및 육교, 공원 및 원도심, 수변 및 산책로, 철도 시설물 및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예산은 2021년 4개소에 각 3억 5천만 원, 2022년과 2023년에는 5개소에 각 5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으로 평균 5억 원 이내에서 추진되나, 시 재정 상태 및 추진 의지에 따라 비율 편성 외 자체 예산 및 특보조금 등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 추진한 사례도 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별 사업 목적을 보면 시·군을 대표하는 공간의 활성화 또는 주간의 공간 특징을 야간에도 향유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표 3-12〉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4개소	5개소	5개소
사업비	3.5억원/개소 (도비 1.05/시·군비 2.45)	5억원/개소 (도비 1.5/시·군비 3.5)	5억원/개소 (도비 1.5/시·군비 3.5)
총 예산	14억원	25억원	25억원
사업대상	공원, 광장,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경기도의 상징 공간 등 지역 특성이 잘 나타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및 품격 있는 경관 조성이 필요한 공간		
신청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2),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평군(5), 용인시(5), 오산시, 파주시, 포천시, 시흥시, 가평군, 이천시(2), 성남시, 김포시(3)	남양주시, 의정부시(2), 군포시, 부천시(4), 동두천시, 이천시(2), 용인시(2), 양평군(5), 광명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안성시, 구리시(2),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2), 과천시, 부천시(2), 의정부시, 포천시(3), 연천군
선정	오산, 시흥, 광명, 포천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양평	안산, 평택, 이천, 여주, 구리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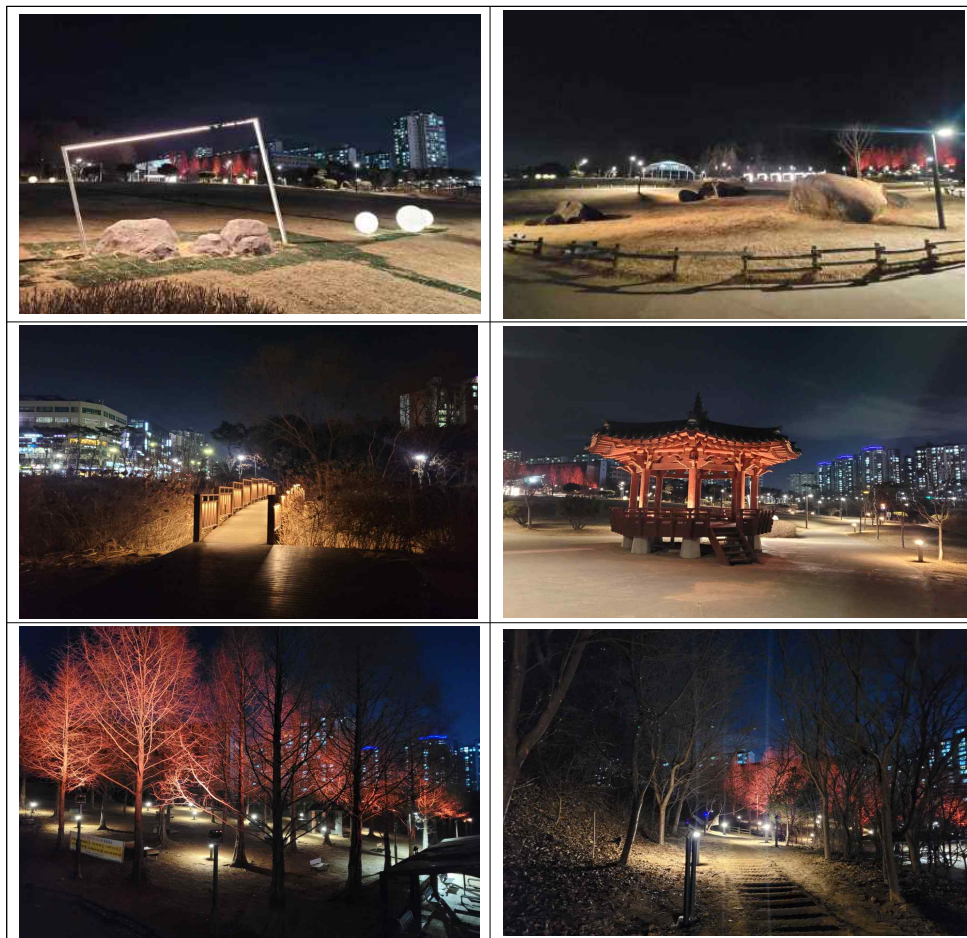
〈표 3-13〉 연도별 야간경관 조성사업 내용

연도	선정 시·군	대상지	사업량	사업 목적 및 내용
2021	오산시	문화유산 공원	0.19km ²	역사 문화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 및 휴식과 체험이 공존하는 명소 조성
	시흥시	서해안 관광지	2km	해안변 관광지로써의 응집력 강화, 안전하고 쾌적 한 정서적 커뮤니티 제공, 차별화된 야간경관 조성
	광명시	도심 하천변 공원	1.08km	도심속 하천변 근린공원의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공원 이용 경험 향상 및 지역 명소화
	포천시	시 관문 (IC입구)	3.5km	시 관문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방문객 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홍보효과를 극 대화
2022	광주시	교량 및 하부 공간	253m 3,203m ²	교량 및 하단의 노후화되어 방치된 공간의 경관개 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군포시	도심철도 교각	0.5km	노후 된 지상철 교각에 조명을 설치하여 원도심 환 경을 개선하고, 야간특화구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남양주시	호수공원 일대	3.27km	호수공원에 공간별 빛 조닝을 통해 안전한 빛 머무 는 빛, 보호의 빛이라는 컨셉을 이용한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특색있는 야간경관 공간 조성
	부천시	근린공원	17,591m ² 15,143m ²	인접하지만 다른 특징의 2개 공원의 야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빛의 특화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평군	남한강 수변 산책로	1.8km	도심속 남한강변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함으 로써 주민들에게는 친수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자연과 조명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여 주고함
2023	안산시	건축물 (체육시설)	17,608.27m ²	주간 대비 야간 상징성이 부족한 체육 문화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도시의 활력을 고취
	평택시	도 관문 (평택항만길)	0.8km	경기도 상징관문인 평택항 진입가로를 대상으로 한 선형경관 연출로 글로벌 상징경관 형성
	이천시	시 문화유산, 수변 산책로	27,200m ²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지정 문화유산에 야간경관 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명품 야 경을 제공
	여주시	남한강 수변 산책로	1.7km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주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야간경관 형성
	구리시	교량 하부	4,300m ²	토평교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하고 미디어 조명 갤러리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①오산 고인돌 공원

고인돌이라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도심 공원으로 고인돌을 야간에 도 조망할 수 있는 조명 연출과 포토존 설치,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전반적 조도 개선을 위한 보안 조명 교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레이저 연출, 도심 속 녹지를 강조하는 수목 투사 조명 등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한 사례이다.



[그림 3-15] 오산 고인돌 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②광명 한내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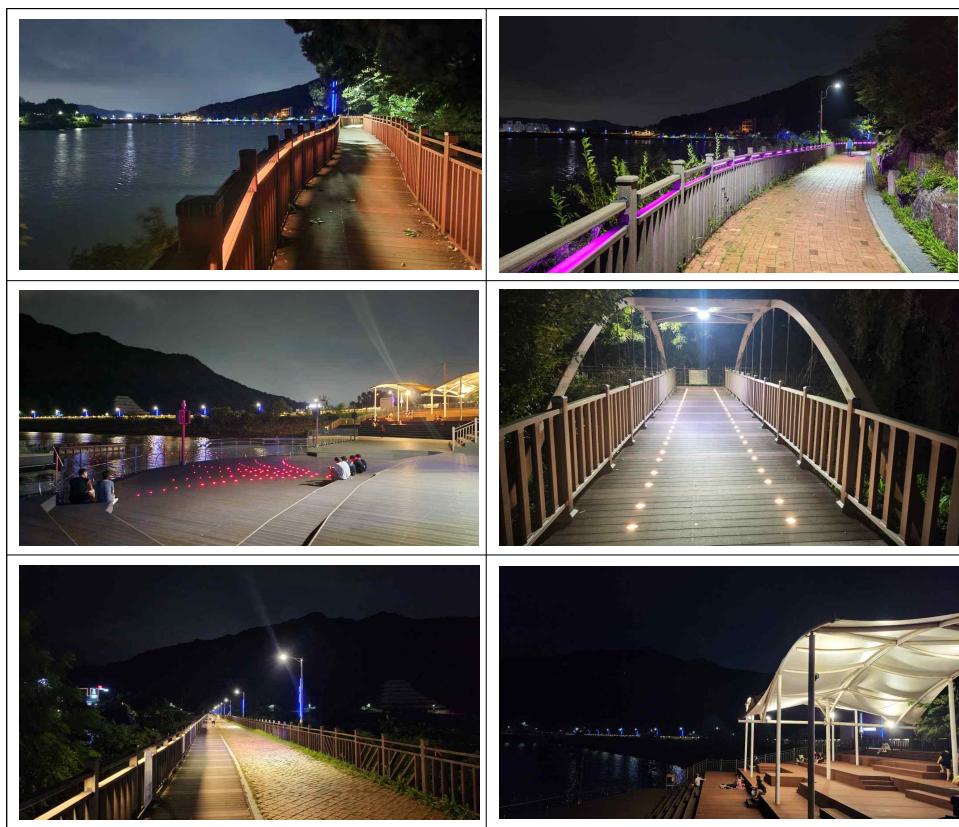
도심 하천을 따라 형성된 선형적 특징을 가진 수변공원으로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있는 공원으로 하천 교량 하부를 활용하거나 징검다리 상부에 원형 조형물 설치 등으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벤치 및 파고라 등 주민 활용이 높은 시설물에 디자인 조명 설치, 고보 조명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야간 참여형 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야간에도 활동성 있는 공원을 조성한 사례이다.



[그림 3-16] 광명 한내 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③남양주 오남 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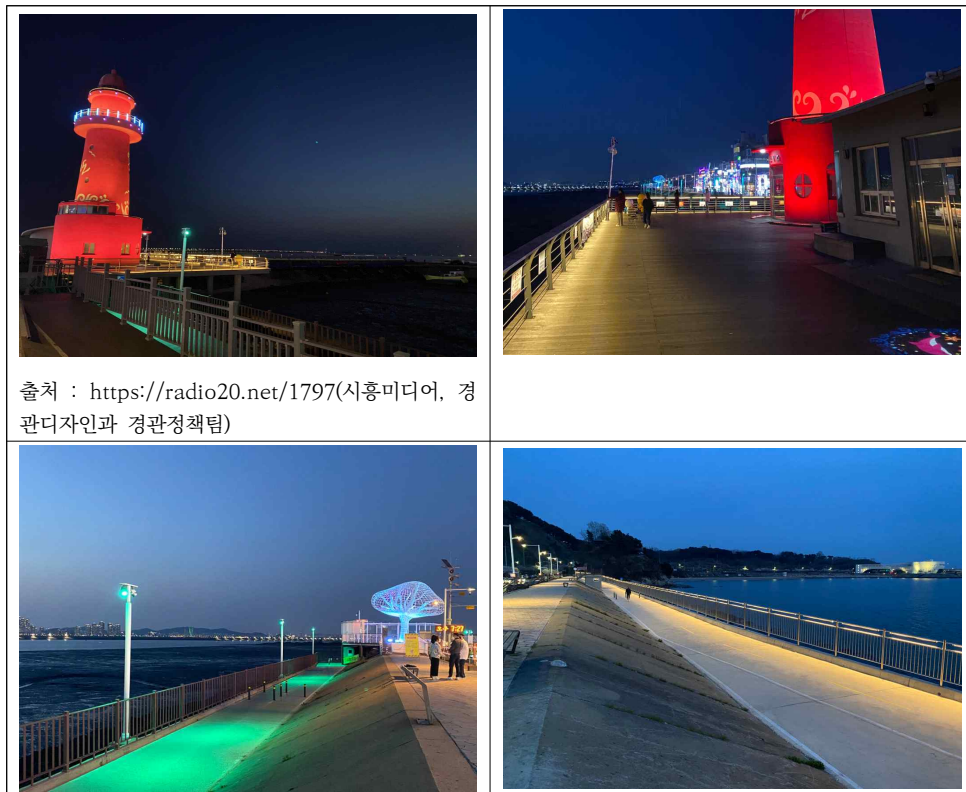
호수공원 주변 산책로 난간을 이용한 조도 확보 및 이벤트 요소 추가, 기 조성된 음악분수를 조망하는 공간 조성 등 야간 환경 개선과 야간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그림 3-17] 남양주 오남 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④시흥 오이도 물빛길

서해안에 조성된 오이도 물빛길은 서해 바다와 건너편 인천 송도의 도심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시흥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주변 상업지역 및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하면서 빨간등대 전망대를 랜드마크화 하여 야간 포토존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해안길을 따라 난간을 활용하여 자전거길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대상지 내 빛의 강약과 안전한 이용, 공간을 활성화한 사례이다.



[그림 3-18] 시흥 오이도 물빛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후

(4) 문제점 및 과제

①담당자의 능력에 따른 시·군 간 격차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의 담당자 교체와 디자인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심의를 통과한 설계안이 공사까지 완료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실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안을 삭제하여 공사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시·군 담당자의 직접 실행 능력 및 전문성에 따라 디자인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경관 및 인공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라 할 수 있다.

②사업 담당부서의 경관심의 기피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도민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화 된 사업으로 근거와 방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준공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로 알 수 있다¹⁵⁾. 주민 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경관심의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 담당자들은 경관심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 시 조명계획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경관심의 안건 중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적지 않은 상황이며, 원안 의결이 없는 만큼 설계안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사업 담당자의 부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관심의에서 주로 제시된 의견들 중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조명연출, 주변과의 조화, 빔공해 및 눈부심 고려 등이 많이 제시되어 사업 부서 및 설계사의 야간경관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활성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15) 각 사업 대상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 해당 시·군이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며, 총 사업 대상지 14곳 중 현재 사업 준공된 7개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3-14〉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2019.1. ~ 2024.4.30.)

구분	SOC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계획	경관사업	야간경관	총합계
총계	10	24	28	1	1	18	82
	12.1%	29.2%	34.1%	1.2%	1.2%	22.2%	100.0%
재검토	2	8	2	0	1	1	14
	20.0%	12.5%	7.1%	0%	100.0%	5.5%	17.0%
조건부	8	16	26	1	0	17	68
	80.0%	87.5%	93.9%	100.0%	0%	94.5%	83.0%
원안 의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처: 경기도 제공자료

〈표 3-15〉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주요 내용(2019-2024)

구분	심의 의견	제시빈도
1	대상지의 특성 반영한 조명연출(조도, 조명색, 조명 패턴, 조망, 조명 설치 대상, 조명기구 형식, 조명 수량 등)	18.59%
2	조명계획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인공조형물과 조화	10.55%
3	주변 이용자에게 빛공해 및 눈부심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9.55%
4	조명기구 운영시스템 및 관리	7.54%
5	지나친 원색 이용 또는 패턴 등 주변 밝기 고려하지 않은 조도 계획, 과도하게 많은 연출 지양	7.04%
6	주간경관과의 조화성	5.53%
7	조명 색온도 및 조명 투사방식	5.03%
8	연출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시뮬레이션, 빛 요소 추가 등)	5.03%
9	특화된 연출계획의 구체성	4.52%
10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성	4.02%
11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 개념 반영	3.52%
12	작품성, 공공성, 예술성 확보	3.52%
13	조명기구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심플한 디자인	3.02%
14	마스터플랜에 의한 연출 필요	3.02%
15	이동동선 고려 및 주변과 조화	2.51%
16	조명 연출이 왜곡되지 않는 조명기구 및 설치방법	2.01%
17	조망, 포토존 등이 이용자 동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	1.51%
18	주변 자연경관 및 조명환경(조도 등) 분석하여 위치 선정	1.01%
19	조명기구 설치 및 배관, 배선 설치의 안전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1.01%
20	야간경관 조망을 고려한 연출	1.01%

출처: 경기도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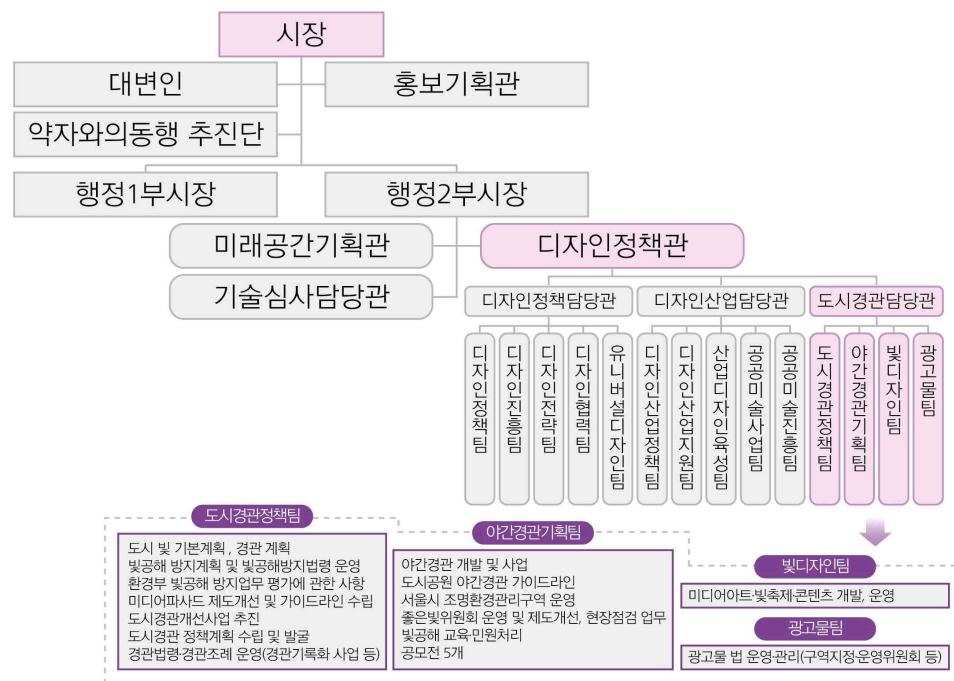
③사업 계약 방식 및 평가 체계 부재

사업 담당부서의 입찰 및 계약 방식 등의 문제 역시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 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 평가 체계의 부재로 사업 전후의 객관적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에 한계가 있다. 사업추진 전(추진일정 및 방식), 사업추진(디자인 품질), 사업완료 후(만족도 조사, 사후평가)의 사업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1) 조직 현황

서울특별시의 경우 경관 업무를 디자인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디자인 정책관은 도시경관정책팀, 야간경관기획팀, 빛디자인팀, 광고물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4개 팀 모두 야간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9] 서울특별시 행정조직도

2) 사업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와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과 관리를 하고 있다.

(1) 「경관조례」

서울특별시는 「경관조례」에서 경관협정의 내용 중 경관협정 구역 안의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경관 관련 심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에 야간경관 시설을 포함시켜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임을 명시하면서 야간경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¹⁶⁾.

또한 「경관조례」 상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에 수립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¹⁷⁾에 제시하고 있는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경관계획에서도 역시 사회기반시설에 야간경관 시설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로 제시되어 명확히 야간경관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서울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경관법」상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공해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는 별개이며,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함(2024.6.10.)

17) 서울특별시는 현재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제6장 경관위원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삭제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별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경관심의 대상(제23조제4호 관련)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고(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 도시철도시설	
하천	하천법	「하천법」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발전·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 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 른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체 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야간경관 시설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방지요령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 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그림 3-20]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2)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는 달리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빛공해방지계획에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교량 및 육교 등 구조물, 공간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에 대해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 중 야간경관시설에도 해당되어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야간경관과 관련된 심의는 경관심의회가 아닌 좋은빛위원회 심의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조명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의 조명기구 개선 및 정비, 「경관법」상 야간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체결에 의한 야간경관 정비 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도 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야간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좋은빛위원회에서는 인가나 설립신고가 아닌 심의 기능만 하고 있다¹⁸⁾.

18) 서울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음(2024.6.10.)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장 좋은빛 형성 관리

제21조(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제도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간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야간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야간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3-2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규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그림 3-2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의 심의대상

(3) 경관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에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2008년에 수립한 야간경관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2016년에 수립한 경관계획, 건축기본계획 등 서울특별시의 도시, 건축 분야 관련 계획과 에너지, 문화유산, 관광 정책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에서 그 간 야간경관 조사 결과, 2008년 야간경관 계획 수립 이후 빛의 인프라 정비 계획 중심 사업이 집중 추진되었으며, 도로 조명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역시 꾸준히 실행되어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였으며, 2010년 빛공해 조례 제정 이후 빛공해 심의가 활성화되면서 건축물 조명이 정비된 성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빛의 특화계획이 도심부에 집중 편성되어 왔으므로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에서는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심의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연출계획, 시민참여 체험형 빛축제 개발 등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

(1) 서울의 아름다운 야간경관 ‘10대 명소’¹⁹⁾

서울특별시시는 2015년에 야간의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 여가선용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처음 ‘서울의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이미 10년 전부터 관광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를 추진해 왔다.

분야는 2개 분야로 ‘야간경관 조망지점(10대)’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 포함), ‘야간경관 체험노선(10대)’의 역사적 의미, 유적지, 추억의 길 등 야간경관이 우수한 노선(경관 조명이 미설치되었더라도 매력이 풍부한 지역 포함)을 선정하였다. 공모 선정된 곳에 뷰포인트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야간경관 명소를 소개하고, 조망공간 내 빛환경 개선으로 야간경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23]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정비·개선(서울 야간경관 10대 명소 뷰포인트 디자인 제작)

1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에서 내용 발췌

(2)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²⁰⁾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한 ‘서울로 7017’ 주변을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서울 빛축제 2020’과 연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에 약 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조망명소 조성을 위한 근경/중경/원경 야간경관 연출 계획 및 요소별 야간경관개선, 광고조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24]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중 남대문교회 경관조명 설치 전과 후

2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참고

(3) 도시경관개선사업²¹⁾

서울시는 2009년에 시범사업 추진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업의 선정 방향은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통한 도시의 브랜드화, 매력있고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관점을 반영한 도시경관 개선이며, 개소당 최대 10억 원 이내, 시와 구의 5:5 매칭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대상지를 매년 5개소 내외 선정하고 있다.

대상지 선정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공모절차 후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사업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선정하고 있다.

〈표 3-16〉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2년(1년 설계, 1년 공사 및 마무리)
사업비	최대 10억 원 이내(시비:구비 5:5)
개소	5개소 내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선정대상 기준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추진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경관법」 제정 - 2008년 서울시 「경관조례」 제정 - 2009년 시범사업 최초 시행 - 2012년 ~ 현재(계속사업으로 매년 시행)

21) 박혜은 외(2021),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내용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작성

4. 시사점

1)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및 사업 추진

- 야간경관사업 추진 권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 규정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의 랜드마크화 및 상징성 부여, 관광 활성화,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경관조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서 야간경관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규정하는 등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와 사업을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례는 「경관조례」에서의 사안을 타 관련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으나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통합디자인을 위한 야간경관계획 수립

분석한 사례 대상지 모두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야간경관 통합디자인을 구축하고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관계획에서 야간경관사업을 발굴 제안, 최근에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및 야간명소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광역도 차원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시·군의 역할별 사업과 주제를 제안하고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건축, 에너지, 문화유산, 관광 정책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에 조망분석을 통한 연출 계획과 야간경관 개선 방안 도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 전반적인 계획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통합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후반부터 야간경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광역시도 차원에서 관련 법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야간경관 활성화 유도

타 지자체에서는 ①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 ②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광역도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또는 ③광역시가 자체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도모, ④시민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야간경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례와 서울시의 시민공모를 통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 사례는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방식으로 야간경관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성과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경관, 공공디자인, 빗공해 등 관련 업무의 이원화 및 협업

· 전문인력 배치에 의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나의 팀 조직에서 운영하고 빗공해 방지 관련 업무

를 환경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과는 달리, 사례 분석 지자체 모두 경관, 공공디자인, 빗공해 업무 담당 조직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은 유사 분야로서 하나의 과에서 다른 팀으로 운영되고 빗공해 업무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경관과 야간경관을 구분하여 도시경관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의 경우 현재 야간명소화 사업을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관심의회는 경관 부서에서 진행함으로써 사업추진과 지원·관리 부서가 상이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경관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한 좋은빛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경관 담당 부서에서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별로 행정조직 체계에 따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담당 부서내에 디자인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빗공해 역시 야간경관과 관련이 있고 야간경관도 경관의 일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경관이라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 야간경관 핵심사업은 부서 간 협업 추진

인천광역시의 경우 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 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 예산 확보 지원 등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타 부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부서, 예산 및 홍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중간에서 조율 및 지원하는 역할을 경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빗공해방지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야간경관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력하는 등 부서 간 협업에 의한 야간경관 관리를 하고 있다.

3)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경관관리

- 사업비 또는 관련 법에 근거한 사업요소 포함 사업별로 심의 대상 포함

앞서 사례 분석한 지자체에서는 모두 야간경관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인천광역시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을 「경관조례」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도 및 도지사가 출차·출연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군 보조사업 포함) 중 「건축법」에 의한 일부 공공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조명, 교량 및 육교 등 고가구조물에 의한 조명계획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 2개 시·군에서는 자문을 하도록 「경관조례」에 규정하면서 야간경관사업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로 운영

한편, 서울시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관조례」에서 경관과 관련된 각 분야 타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야간경관사업은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행정조직 특성에 맞도록 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경관사업은 심의에서 디자인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야간경관사업 질 향상 및 경관심의 운영 효율화 방안 필요

· 마스터플랜 부재 및 사업승인 이후 별도 발주

각 지자체에서 야간경관사업의 활성화 및 디자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찰방식, 낮은 설계단가 및 예산 신속집행 등의 구조적 문제와 사업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단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특히 전문인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의 역량 부족과 사업 담당자 교체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품질 저하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시·군별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야간경관사업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충남에서도 문제로 인식해 왔었던 부분으로서 충남에서 역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사례에서 야간경관사업은 사업승인 이후 별도 발주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통합디자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경관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구상 및 초기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경관심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사례 분석 결과 야간경관사업이 전체 경관심의 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문제로 제시했던 요인들이 경관심의 결과에 반영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 담당자의 경관심의 기피가 문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의 전 경관심의 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 또는 경관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광역시·도 경관심의 운영 부서 담당자는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기본구상 단계부터 디자인컨설팅,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경관심의 전단계에서 사업계획서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야간경관사업이 생활환경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점차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사업 담당자 역량 향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체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제 4 장

충남 야간경관사업 현황 및 추진주체 의식분석

1.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2.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 추진주체 의식분석
4.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1)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사업들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충남도 및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관광진흥조례」는 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과 도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관련 유사 조례는 서산, 당진, 금산, 청양, 태안을 제외한 10개 시·군과 도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도 및 15개 시·군 모두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는 도에서만 제정, 운영하는 등 도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군에서는 조례 운영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조례에서 야간경관 운영 현황을 보기 위해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보호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에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관조례」에서 야간경관의 정의를 규정한 곳은 보령, 아산 2곳 뿐이었다.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요소에 빛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 경관을 야간경관으로 정의하면서 야간경관에 대하여 별도 정의하고 있다.

〈표 4-1〉 도 및 15개 시·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관광진흥조례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조례	경관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도	○	○	○	○	○
천안	○	○	○	○	×
공주	○	○	○	○	×
보령	○	○	○	○	×
아산	○	○	○	○	×
서산	○	×	○	○	×
논산	○	○	○	○	×
계룡	○	○	○	○	×
당진	○	×	○	○	×
금산	○	×	○	○	×
부여	○	○	○	○	×
서천	○	○	○	○	×
청양	○	×	○	○	×
홍성	○	○	○	○	×
예산	○	○	○	○	×
태안	×	×	○	○	×

〈표 4-2〉 도 및 13개 시·군 중 경관 조례 상 야간경관 정의 규정 내용

구분	내용
보령시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
아산시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등이 도입된 경관

또한 각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심의 대상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 및 15개 시·군에서는 각 조례의 근거법, 즉 「경관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 및 15개 시·군 모두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각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금산, 청양, 태안을 제외한 도 및 12개 시·군에서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도에서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 또는 조명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도, 그리고 공주, 보령, 부여, 홍성, 예산의 5개 시·군에만 해당되며 도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에 의한 빛공해방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개의 시·군에서는 「경관조례」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도와 시·군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산의 경우 「경관조례」상 야간경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은 별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좋은빛위원회와 달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심의 빛공해방지계획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의 각 부서 및 도비 보조 사업 중 공공 미술 및 시각이미지에서의 조명계획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유형 및 요소, 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홍성군, 예산군, 그리고 여기에 조형물의 경우 높이를 기준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공주시, 유형 및 요소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령시 등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유형 및 요소 역시 상이하며, 사업비 기준 역시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등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표 4-3〉 야간경관 관련 조례별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심의 대상 및 내용(야간경관, 조명 관련)

구분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심의대상 및 내용 중 야간경관 관련
	경관	빛공해 방지	공공 디자인	문화 유산	
도	●	●	●	●	<p>〈빛공해방지위원회〉</p> <p>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p>〈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p> <p>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 각 부서 2.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p>별표 1(2.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색채 및 조명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천안시	●	X	●	●	X
공주시	●	X	●	●	<p>〈경관위원회〉</p> <p>제3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p> <p>별표 1 조명(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조형물(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p>
보령시	●	X	●	●	<p>〈경관위원회〉</p> <p>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 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은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상 공공공간 및 도시시설물(도로, 광장, 공원, 도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환경시설), 공공매체(정보매체, 공공미술)에 해당
아산시	●	X	●	●	X
서산시	●	X	●	●	X
논산시	●	X	●	●	X
계룡시	●	X	●	●	X
당진시	●	X	●	X	X
금산군	●	X	●	X	X
부여군	●	X	●	●	<p>〈경관위원회〉</p> <p>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도로사업 2.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도시공원조성사업 4.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시설(공공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등) 사업 5.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6.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경관조명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서천군	●	X	●	●	X
청양군	●	X	●	X	X
홍성군	●	X	●	●	<p>〈경관위원회〉</p> <p>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공원, 교량, 육교, 조경공사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사업비가 2억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 <p>*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p>

					지,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예산군	●	X	●	●	<p>〈경관위원회〉 제25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 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물 가.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공원, 교량, 육교, 조경공사 나. 총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p> <p>*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p>
태안군	●	X	●	X	X

〈표 4-4〉 시·군별 야간경관 관련 심의 대상

구분	유형, 요소별	사업비	그 외
공주시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조명사업, 조형물 사업)	● (5억 원 이상)	● (조형물의 경우 높이 10m이상)
보령시	● (공공공간 및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X	
부여군	X	●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경관조명사업)	
홍성군	● (공공디자인 대상물)	● (사업비 2억 원 이상 야간조명사업)	
예산군	●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시설물)	●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야간조명사업)	

2) 조직 현황 및 역할

충남의 경우 앞서 사례 분석한 타 지자체와 같이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부여군을 제외한 도 및 14개 시·군에서는 하나의 팀 단위의 조직에서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팀,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과 같은 조직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을 주 업무로 하기보다 공동주택, 건축, 도시재생을 주 업무로 하면서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함께하는 시·군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디자인 전문 인력도 도 및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에만 있는 상황으로 충남의 반 이상의 시·군에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문화유산(문화유산) 보호 및 세계유산, 향토유산 등 유사 관련 조례는 주로 문화, 관광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문화, 관광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개의 조례를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은 도, 천안, 보령, 홍성이며, 「관광진흥조례」만 담당하는 곳은 금산, 청양 2곳이다. 이 외에 9개의 시·군에서는 하나의 국내에 다른 과 단위의 조직에서 각각의 조례를 담당하며 문화유산과 관광진흥을 분리하여 업무를 하는 등 조직 체계가 다를 수 있다.

한편, 빗공해 관련해서는 도에서만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4-5〉 야간경관 관련 조례 담당 조직 현황

구분	담당 조직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디자인 전문인력	문화유산(문화유 산) 보호조례	관광진흥조례	빛공해 방지 조례
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
천안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경관조명팀	●	복지문화국 관광과		X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	문화복지국 문화유산과	문화복지국 관광과	X
보령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X	미래전략국 관광과		X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	문화복지국 문화유산과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X
서산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문화복지국 관광과	X
논산시	지역개발과 경관디자인팀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경제문화국 관광과	X
계룡시	도시건축과 도시경관팀	X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예술팀	문화체육관광실 관광진흥팀	X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팀	X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문화복지국 관광과	X
금산군	도시건축과 도시경관팀	X	X	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과	X
부여군	X	X	문화건설국 문화유산과	문화건설국 문화체육관광과	X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X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국 관광진흥과	X
청양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X	X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X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	경제문화농업국 문화관광과		X
예산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X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X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팀	X	X	X	X

3) 야간경관계획

충남의 경우 금산과 청양을 제외한 13개 시·군과 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도 및 15개 시·군 「경관 조례」에 야간경관 관리나 개선에 관한 계획 내용을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지,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경관계획에 야간경관 관리,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실제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수립한 곳은 논산, 홍성 2곳에 불과하며, 도는 「경관 조례」와는 달리 야간경관계획을, 금산, 청양, 예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공주는 금강지구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군은 야간경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경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와 각 시·군은 야간경관 관련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은 각각 다르며, 「경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6〉 도 및 15개 시·군 경관계획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

구분	경관계획 수립 여부	「경관조례」 상 야간경관계획 관련		경관계획 내 야간경관 관련 내용	
		경관계획에 야간경관 관리, 개선 내용 여부	야간경관계획 별도 수립 여부	계획	가이드라인
도	●	X	X	●	X
천안시	●	●	X	X	●
공주시	●	●	X	X	△ (금강지구만)
보령시	●	●	X	X	●
아산시	●	●	X	X	●
서산시	●	●	X	X	●
논산시	●	●	X	●	●
계룡시	●	●	X	X	●
당진시	●	●	X	X	●
금산군	X	●	X	X	X
부여군	●	●	X	X	●
서천군	●	●	X	X	●
청양군	X	●	X	X	X
홍성군	●	●	X	●	●
예산군	●	●	X	X	X
태안군	●	●	X	X	●

2.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충남에서 추진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충청남도 공모사업, 도민참여예산사업, 지역현안사업, 시·군 자체사업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업 유형

①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 관광지를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와 콘텐츠 개발, 이와 더불어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거나, 최근 행안부의 지역소멸기금에 의해 논산시와 공주시 등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홍성군에서는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추진하는 남당항 다기능어항개발, 어촌뉴딜 300사업, 속동전망대 스카이다워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문화관광과 및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야간시간대의 관광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공주시가 제민천 밤문화 체험과 공산성 야경을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상시적으로 경관조명을 운영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문화유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충남 시·군 중 3곳에서 많게는 8곳까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야간시간대에도 주민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사업들이다.

이와 같이 충남 시·군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야간 경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충청남도 공모사업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해양관광시설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공공공간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건축국에서 매년 대상지를 3곳~4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경관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서산시가 서산해미읍성 야간경관, 아산시가 은행나무길 야간경관을 내용으로 ‘2024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이고, 2023년에는 예산군이, 2022년에는 홍성군, 2021년에는 공주시, 2020년에는 공주시와 아산시에서 추진되는 등 매년 야간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해양관광자원 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서산시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③도민참여예산제 및 지역현안사업, 시·군 자체사업

최근에는 도민참여예산에 의해 교량이나 관광지, 산책로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 지역현안사업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시 예산을 수립하여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의 경우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개소씩 2026년까지 추진 계획이며, 천안의 경우 경관조명팀에서 야간경관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시, 금산군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사업은 관련 근거법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소멸기금으로 추진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관광, 경관 등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지역현안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은 주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관 및 디자인 부서를 비롯하여 조명, 도로, 시설사업소, 산림공원, 관광,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즉, 관광지나 교량, 공공건축물, 공원, 하천 등 유지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은 해당 시·군의 읍 또는 면에서 공모에 신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사업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은 관광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면서 경관조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H/W와 S/W사업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충남 공모사업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설물 조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에 반해 지역현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은 기존 조성된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경관 조망 향상 등으로 야간 시간대 인프라 이용 활성화와 야간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사업 성과

전국에서 야간관광 및 야간경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해서 야간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충남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당진시, 예산군 등 5개 시·군의 8개소가 선정되면서 충남 시·군에서 그동안 야간경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최근 5년간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상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
중앙 부처 공모 사업	문체부 공모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 인프라 기반 정비, 야간경관 개선, 경관조명 설치	관광지	홍성	문화관광
	문체부 공모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관광 인프라 정비,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경관조명 설치	관광지	공주	문화관광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문화유산 이행사업)	이벤트 조명 설치,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및 주변	보령, 부여, 아산, 공주, 당진, 예산, 홍성, 논산	문화유산, 문화재단
	행안부 공모사업 (지역소멸기금)	미디어 아트, 경관조명 설치 등	공원, 하천 등	논산, 공주	관광, 경관 등
충청 남도 공모 사업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미디어 아트, 경관조명 기호환경 개선, 조형물 설치 등	문화유산 주변 명소·거리 하천 등	서산, 아산, 예산, 홍성, 공주	경관, 디자인
	충청남도 해양관광 시설 지원 공모사업	조형물 설치, 산책로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지	서산	해양, 관광
도민참여예산제		산책로 경관조명, 교량 및 육교 경관조명 설치 등	교량, 산책로, 관광지 등	공주, 홍성, 계룡	건설
지역현안사업, 지역현장 밀착형 사업		육교 및 교량, 역 등에 경관조명 설치, 중심사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육교, 교량, 역, 중심사거리	천안, 서산	경관, 디자인, 조명
시·군 자체사업		건축물 및 공공공간 야간경관 개선, 경관조명 설치, 조형물 및 미디어 아트, 문화유산 야간경관 조성 등	관광지, 교량, 공공건축물, 공원, 하천 등	아산, 서산, 천안, 금산, 논산, 서천, 공주, 부여, 태안, 당진, 예산	경관, 디자인, 조명, 도로, 시설사업소, 산림공원 관광, 문화유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성벽/산책길 야간조명	서산 해미읍성	서산	관광
		관람차 조명	삼교호 관광지 대관람차	당진	관광
		경관조명	합덕제	당진	관광
		조명, 가상투어	궁남지	부여	문화관광
		미디어 아트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문화유산
		경관조명, 음악분수	예당호 출렁다리	예산	관광시설사업소

2) 사업 유형별 추진실태 분석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실태분석을 위해 사업유형 및 사업주체별로 사업 담당자를 선정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충남 공모사업, 시·군 자체 사업 등 사업유형별, 그리고 사업 담당자 중에서 디자인 전문직, 건축 관련 부서, 문화관광 관련 부서 등 유형별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FGI는 2명~3명씩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사업 담당자의 직렬 및 담당 부서 업무 기간 등 인적사항, 발주 및 입찰방식과 설계비 산정 등 사업추진 방식,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디자인관리 방식,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부서와 협업 현황,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 계획, 조직, 디자인관리 등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4-8〉 FGI조사 대상

구분	사군	사업명	담당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홍성군	남당한 해양공원 음악분수 (대한민국 밤밤곡곡 선정)	1인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문화유산 이행사업	공주시	미드나잇 인 공주, 공주가 보고픈밤	1인 (공주문화재단 관광산업팀)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홍성군	월계천 '고향의 강' 야간경관개선사업	1인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사군 자체사업, 지역현안사업	서산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 대산읍 경관조명 사업 등	1인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사군 자체사업	논산시	물빛 복합문화센터 야간경관 디자인개발 및 실시 설계 등	1인 (지역개발과 경관디자인팀)
	부여군	궁남지 (대한민국 밤밤곡곡 선정)	1인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지역현장밀착형사업, 지역현안사업	천안시	천안써부역, 성정1동, 불당동 원형육교 등	1인 (건축과 경관조명팀)

〈표 4-9〉 사업 담당자 대상 FGI조사 개요

구분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024. 6. 27. 15:00 ~ 17:00) : 홍성군(문화관광과 1인), 서산시(도시과 도시디자인팀 1인) - 2차(2024. 7. 3. 10:00 ~ 12:00) : 홍성군(허가건축과/디자인 전문직), 논산시(지역개발과/디자인 전문직) - 3차(2024. 7. 3. 13:30 ~ 15:30) : 공주시(문화재단), 천안시(건축과), 부여군(문화체육관광과)
조사항목	<p>〈담당자 인적사항〉 : 사업 부서 및 직렬, 디자인전문직 여부, 해당 부서 담당 업무 기간 등</p> <p>〈사업추진 방식〉 : 사업 추진단계(구상, 사업완료 후), 발주 및 입찰 방식, 설계비 산정,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 등</p> <p>〈대상지 선정 방법〉 : 도 및 해당 시·군 경관/공공디자인 계획 참고, 해당 시·군 정책 반영, 민원(주민 제안), 타 사업과 연계 등</p> <p>〈디자인관리〉 : 심의(경관, 공공디자인, 문화유산 등), 자문(전문가 자문, 디자인 전문직(행정) 자문, 디자인컨설팅), 협의(경관/공공디자인, 환경(빛공해) 등) : 디자인관리의 필요성 및 필요한 사업 단계</p> <p>〈타 부서와 협업〉 : 협업 여부 및 필요성, 협업 의향 부서(도/해당 시·군, 경관/공공디자인/환경), 협업 방식(협의, 자문, 심의 등) : 협업의 필요성 및 필요한 사업 부서, 사업 단계</p> <p>〈개선사항〉 : [경관조례] 야간경관사업 권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규정, 경관심의 대상 포함, 심의의 필요성 및 어려운 점 등 : [계획수립] 도 및 해당 지자체 야간경관계획, 사업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사업 추진 시 계획 및 가이드라인 참고 여부 : [조직] 전문직 배치, 담당자 교육 등 조직 역량 향상의 필요성 : [디자인관리] 심의 강화, 자문 강화(디자인컨설팅, 전문직 협조, 전문가 자문회의 등) : [필요사항] 조례 개선, 사업 담당자 교육, 디자인 전문직 협조 등</p>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조명계획 단계, 디자인 협의, 전문인력 배치, 전문가 자문, 심의 대상, 도의 역할, 야간경관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민간지원,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 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조명계획 단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 외에 사업은 이미 조성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추가적으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기 배선 및 배관, 조명기구 계획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수목 등 기존 시설이나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상단계에서의 조명계획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공원의 경우 구상단계부터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조명계획을 하지 않아 이후 조명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디자인 협의 및 전문인력 배치

국비 공모사업 및 시·군 자체 사업 추진 담당자들 중에는 해당 시·군에 디자인 전문직이 있어도 사업 담당 부서와 사업 방향이 다를 수 있어 법적 검토 협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디자인 전문직으로서 충남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 자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사업예산 및 사업 추진 여부를 비롯하여 사업 방향, 사업 시행 부서, 유지관리 담당 부서 등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 대상지에 따라 유지관리 부서가 달라지고 사업추진 이전에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이므로, 구상단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사결정권자가 디자인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타 부서 담당자와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업 유형에 따른 의식차이가 아닌 디자인 전문직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충남의 경우 디자인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서 야간경관사업을 전기직이나 행정직 담당자가 하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사업 담당 유형에 상관없이 야간경관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담당자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디자인 부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 부서가 있는 곳에서는 디자인 부서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와 이보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 등 담당자들 간 의식차이가 있었다.

(3) 전문가 자문

사업 유형과 상관없이 담당자들은 최근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공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 공공공간이나 시설에 야간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야간경관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디자인 전문직은 조명 사업의 경우 전기공사 기준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어 디자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야간경관 전문가풀을 구축하여 시·군에 공유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에 야간경관 전문가가 배치되어 구상단계부터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문화유산 야행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이 적어 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여군,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등 문화유산이 많은 충남의 경우 문화유산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현상변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서 상관없이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이 많아지고 있어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하여 도나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심의 대상

디자인 관리 방법으로서 충남 공모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직과 타 부서 사업 담당자 간 심의에 대한 인식차이가 많았다.

디자인 부서 담당자들은 심의는 사업의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야간경관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세분화해서 심의, 디자인 협의 및 자문 등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타 부서 사업 담당자들은 경관심의는 사업 부서의 의도를 고려하기보다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관심의보다는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다양하여 오히려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며 심의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담당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야간경관사업의 심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 유형과 상관없이 디자인 전문직 여부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도의 역할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충남은 2024년 9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충남 공모사업 및 시·군 자체 사업 담당자들은 시·군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빛공해 방지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가 심의기준과 야간경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야간경관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하지만 수립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선 도가 시·군에서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담당자들은 야간경관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도에서 우선 야간경관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심의를 일정 기간 운영 후 각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도의 시·군 담당자 대상 야간경관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담당자도 있었다.

(6) 공모사업 및 민간지원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은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안전, 지역 활성화 등에 영향을 주므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유형에 야간경관을 별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특히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디자인 전문직의 경우 충남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야간경관사업을 경관협정제도와 연계하여 민간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시·군 자체 사업 추진 담당자 역시 민간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민간지원은 필요하나 명확한 지원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7) 역량강화, 의식개선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 및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충남 공모사업 및 시·군 자체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의식차이가 있었다.

국비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경관법」의 구속력이 부족하여 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업추진 시 심의나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보다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는 상황으로, 사업 담당자들은 의사결정권자의 의식 개선과 정기적인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체 예산으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야간경관사업의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사업 유형에 따른 절차의 차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들은 의사결정권자들의 야간경관에 대한 의식 향상과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은 물론 경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유지관리

야간경관사업은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 전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우선 협의가 필요하고, 조명 기구의 파손 등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추진 시 적용하고자 하는 조명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사업 유형별 담당자 대상 FGI조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국 비 공 모	문 화 유 산	충 남 공 모*	사· 군 자 체*	지 역 현 안
조명계획 단계	- 초기단계(구상단계)에 계획 필요(전기 배선, 조명기구 배치 및 높이 등) - 주간 경관과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단계에 계획 필요 -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전기, 배관, 배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초기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	
	- 마스터플랜 또는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디자인 협약	-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협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예산, 사업 방향, 사업추진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등)				●	
	- 계획참고, 주민/시장 군수 시·군의원 제안-(디자인부서 협의)유지관리 담당 부서 협의(사업 추진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완료 후 유지관리 여부 등)-시장 군수 보고(사업비 확보)-사업추진(기본계획->실시설계)-사업준공 : 디자인부서 협의)				●	
	- 구상단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 협약이 반드시 필요			●	●	
	- 사업 담당자보다 팀장, 과장급 이상 의사결정권자가 디자인 협약하도록 필요				●	
	- 사업 추진 부서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하고 있지 않으며(법적 검토만 협의), 전문기관에서 자문 지원 필요	●			●	
	- 디자인 전문직이 의견을 제시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 판단	●				
전문인력 배치	- 조명, 디자인 부서와 자문 규정 필요				●	●
	- 전기 담당 외에 야간경관 전문인력 배치 필요				●	●
전문가 자문	- 야간경관 부서 별도 구성 필요				●	●
	- 도나 전문기관에 야간경관 전문가 배치 필요	●	●		●	●
	- 사업 구상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필요		●		●	
	- 야간경관 전문가가 부재하여 자문받기 어려움	●		●	●	●

	- 조명은 전기공사 기준으로 발주, 관내 전기 전문업체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디자인개발을 하도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			●	●	
	- 문화유산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시 현상변경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필요	●			●	●
	- 사업비가 부족해 시공사 논의하여 설계 진행, 전문가 지원 필요		●			
심의 대상 포함	- 심의, 디자인 협의/자문 대상 구분하여 포함			●	●	
	- 야간경관은 보다 세분화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 필요			●		
	- 경관심의는 부서의 의도를 통제하는 역할	●				
	- 경관심의는 규제 중심, 심의절차가 부담스러움	●				
	-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심의는 면제하는 규칙 필요	●				
	-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다양하여 정리하기 어려움				●	●
도의 역할	- 시·군 사업 담당자 대상 야간경관사업 선진 사례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빛 공해 적용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	●
	- 빛 공해 적용 심의기준 제시			●	●	●
	- 경관 및 사업 부서에서 빛공해 기준 적용 독려				●	
	- 야간경관 전문가를 구성, 심의 운영 후 각 시·군 심의 운영 유도				●	●
야간경관 계획 수립	- 계획이 필요하나, 법에 규정되지 않아 별도 수립 어려움			●	●	
	-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참고하기 위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상황				●	
공모사업	- 야간경관 분야 별도 공모사업 추진				●	●
민간지원	- 경관협정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		
	- 필요하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
역량강화, 의식개선	- 의사결정권자 의식 변화 필요(과장 이상)				●	●
	- 의사결정권자의 의견대로 사업내용 결정되는 상황				●	●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선진지 견학, 이론교육)을 도가 정기적으로 지원 필요	●		●	●	●
	- 자체 예산으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	
	- 야간경관사업 사례집 발간 필요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 필요					
	- 사업 이후 조명 기구의 파손이 많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렵고 중요			●	●	

*는 디자인 전문직

3. 추진주체 의식분석

1) 설문 개요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즉 기능적 조명 설치 사업이 아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조명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15개 시·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4년 7월~9월까지 약 2개월 간이며, 조사방법은 이메일로 설문 요청 공문을 발송 후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55명 중 41명(74.5%)이 응답하였다. 조사내용은 직렬, 사업 추진 당시 소속 부서 및 근속기간,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서 근속 경험 등 인적사항,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이해와 효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방식, 디자인관리 방법,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것 및 어려운 것, 도의 역할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1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24. 7. 16. ~2024. 9. 10.
방법	- 설문조사 요청 공문 발송(이메일) 후 모바일로 설문지 발송
대상	- 야간경관사업 추진 유경험자(15개 시·군 공무원) 55명
내용	- 인적사항 : 직렬, 사업 추진 당시 소속부서 및 부서 근속기간, 경관/공공디자인 부서 근속 경험 및 근속기간 - 야간경관사업 인식 : 효과, 야간조명과 차이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인지도, 야간관광사업과의 차이점, 사업의 필요성 등 - 사업 추진방식 :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방식, 발주 방식, 디자인관리 방법 -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어려운 것, 도의 역할 등

2) 설문조사 결과

(1) 기본정보

응답자 41명 중 10명만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부서(이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이고, 그 외에 관광, 문화, 공원 및 녹지, 조명 부서(이하 ‘타 부서’)가 31명이었다. 이중 시설직이 20명으로 가장 많으며 행정직이 10명으로 많았다.

야간경관사업 추진 당시 부서 근속기간은 4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1년 이상 근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속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26명으로 많으며, 타 부서 담당자들 중에서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속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속 경험이 있는 15명 중 1년 미만, 4년 이상이 각 5명으로 많았으며, 특히 타 부서 담당자들 중 4년 이상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근속을 했던 담당자도 있었다.

〈표 4-12〉 응답자 기본정보(*가나다순으로 정렬)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직렬	공업	5	1	4
	관리운영	1	1	0
	녹지	2	0	2
	시설	20	7	13
	연구직	2	0	2
	행정	10	1	9
	환경	1	0	1
직류	건축	1	1	0
	기계	1	1	0
	디자인	2	2	0
	산림자원	1	0	1

	일반토목	9	1	8
	일반행정	10	1	9
	일반환경	1	0	1
	전기	5	1	4
	학예일반	2	0	2
	무응답	9	3	6
야간경관사업 추진 부서 근속기간	1년 미만	8	4	4
	1년 이상~2년 미만	8	4	4
	2년 이상~3년 미만	9	0	9
	3년 이상~4년 미만	4	0	4
	4년 이상	11	2	9
	무응답	1	0	1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속 경험	있다	15	8	7
	없다	26	2	24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속기간	1년 미만	5	2	3
	1년 이상~2년 미만	4	4	0
	2년 이상~3년 미만	1	0	1
	3년 이상~4년 미만	0	0	0
	4년 이상	5	2	3

(2)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 중 90%가 야간경관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라고 응답한 담당자가 20명의 49%로 가장 많았고, 경관 향상이 15명의 37%로 많았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경관 향상을 효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타 부서 담당자들은 관광 활성화를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야간경관사업이 야간조명사업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71%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부서 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야간관광사업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49%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

서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야간경관사업은 기능을 위한 조명 설치 사업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사업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업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9월 충남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고 2024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반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부서 간 큰 차이가 없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사업의 수준에 대해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타 부서 담당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충남에서는 야간경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로 매우 높아, 사업 담당자들은 현재 충남의 야간경관사업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야간경관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20	49	3	30	17	55
그렇다	17	41	7	70	10	32
보통이다	4	10	0	0	4	13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표 4-14〉 야간경관사업의 가장 큰 효과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경관 향상	15	37	6	60	9	29
공공인프라 이용 활성화	3	7	1	10	2	7
관광 활성화	20	49	1	10	19	61
안전성 향상	3	7	2	20	1	3

〈표 4-15〉 '야간경관사업'과 '야간조명사업'의 차이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11	27	2	20	9	29
그렇다	18	44	5	50	13	42
보통이다	3	7	0	0	3	10
그렇지 않다	7	17	3	30	4	13
전혀 그렇지 않다	2	5	0	0	2	6

〈표 4-16〉 '야간경관사업'과 '야간관광사업'의 차이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7	17	1	10	6	19
그렇다	13	32	4	40	9	29
보통이다	13	32	2	20	11	36
그렇지 않다	6	14	3	30	3	10
전혀 그렇지 않다	2	5	0	0	2	6

〈표 4-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충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예	20	49	5	50	15	48
아니오	21	51	5	50	16	52

〈표 4-18〉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 야간경관사업이 높은 수준인지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2	5	0	0	2	7
그렇다	8	19	3	30	5	16
보통이다	22	54	4	40	18	58
그렇지 않다	8	20	2	20	6	19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	10	0	0

〈표 4-19〉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필요성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18	44	2	20	16	51
그렇다	19	46	7	70	12	39
보통이다	3	7	0	0	3	10
그렇지 않다	1	3	1	1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3) 야간경관사업 추진방식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39%로 동일했지만,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50%였으나 타 부서 담당자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42%로 많아 부서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대상지 선정 방법은 해당 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참고가 23%,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참고가 18% 등 계획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담당자 판단(20%)과 주민 제안(15%)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 경관·공공디자인 계획과 주민 제안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타 부서에서는 담당자 판단이 가장 많고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관광종합개발 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서 간 차이가 있었다.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관리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 41%로 가장 많았고, 해당 시·군 디자인 부서와 협의가 25%, 경관심의 또는 공공디자인심의가 19%로 많았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 전문가 자문이 34%,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가 3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 부서의 경우 전문가 자문이 44%, 해당 시·군 디자인 부서 협의가 30%로 높았으며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를 12%로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서 상관없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자인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는 심의 제도를, 타 부서는 해당 시·군 디자인 협의를 디자인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디자인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전문가나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도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심의 등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4-20〉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그렇다	16	39	5	50	11	35
그렇지 않다	16	39	3	30	13	42
잘 모르겠다	9	22	2	20	7	23

〈표 4-21〉 야간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복수응답)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해당 시·군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참고	14	23	5	29	9	21
해당 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참고	11	18	2	12	9	21
주민 제안	9	15	5	29	4	9
시·군의원 제안	0	0	0	0	0	0
자치단체장 등 의사결정권자의 제안	9	15	4	24	5	12
사업 담당자 판단	12	20	1	6	11	25
기타	5	9	0	0	5	12
합계	60	100	17	100	43	100

〈표 4-22〉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관리 방법(복수응답)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전문가 자문		26	41	7	34	19	44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8	12	4	19	4	9
해당 사군 디자인(또는 경관조명) 부서와 협의		16	25	3	14	13	30
경관심의 또는 공공디자인심의		12	19	7	33	5	12
진행하지 않았다	진행하고 싶지만 전문가나 제도를 잘 모른다	1	1.5	0	0	1	2.5
	기타	1	1.5			1	2.5
합계		64	100	21	100	43	100

(4) 야간경관사업의 향후 추진방식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응답자들 중 83%가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 간 차이가 없었다.

〈표 4-23〉 야간경관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매우그렇다	16	39	3	30	13	42
그렇다	18	44	5	50	13	42
보통이다	6	15	1	10	5	16
그렇지 않다	1	2	1	1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앞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관리 방법으로서 전문가 자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향후 전문가 자문 진행 방식으로서 ‘해당 시·군 사업부서에서 개별 진행’이 29%로 가장 높고,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이 27%로 비슷하게 높았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 관련 위원회의 사전검토나 충남연구원 전문가 활용 또는 디자인컨설팅이 똑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난 반면, 타 부서의 경우 ‘해당 시·군 사업부서에서 개별 진행’,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타 부서 담당자들의 심의 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사업 부서 개별 자문 및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과 같은 규제가 아닌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가 자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 자문 진행 단계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진행 의향이 34%로 가장 높으며, 사업 구상단계가 26%, 필요할 때마다 진행도 2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서 간 큰 차이는 없으며,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자문 진행 의향이 있으며, 특히 구상단계나 기본계획단계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4〉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진행 방식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도 및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사전검토	9	22	3	30	6	19
도 내 전문기관(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문가 활용	9	22	3	30	6	19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11	27	3	30	8	26
해당 시·군 사업부서에서 개별 진행	12	29	1	10	11	36

〈표 4-25〉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진행 단계(복수응답)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사업 구성단계	16	26	4	28	12	26
기본계획단계	21	34	4	29	17	36
실시설계단계	9	15	2	14	7	15
필요할 때마다	15	25	4	29	11	23
합계	61	100	14	100	47	100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면, 관련 법에 근거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았으나, 총 사업비 기준이 33%,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요소별 기준이 30%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총 사업비 기준 41%, 사업유형 35%로 응답한 반면, 타 부서 담당자들은 사업유형이 38%, 요소가 32%, 총 사업비가 30%로 부서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총 사업비 기준으로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업 담당자들은 5억 원 이상이 63%로 가장 많았고, 2억 원 이상이 21%였으며, 부서 간 차이는 없었다.

〈표 4-26〉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시 기준(복수응답)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사업유형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내 옥외공간 조성 사업 등)	27	37	6	35	21	38
요소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도로시설물, 도시철도 시설, 하천 시설물 등), 조형물 등)	22	30	4	24	18	32
총 사업비	24	33	7	41	17	30
기타	0	0	0	0	0	0
합계	73	100	17	100	56	100

〈표 4-27〉 [‘총 사업비’로 답한 경우] 적정 사업비

구분	전체(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사(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명	%	명	%	명	%
5천만 원 이상	1	4	0	0	1	6
1억 원 이상	2	8	1	14	1	6
2억 원 이상	5	21	2	29	3	17
5억 원 이상	15	63	4	57	11	65
기타	1	4	0	0	1	6
합계	24	100	7	100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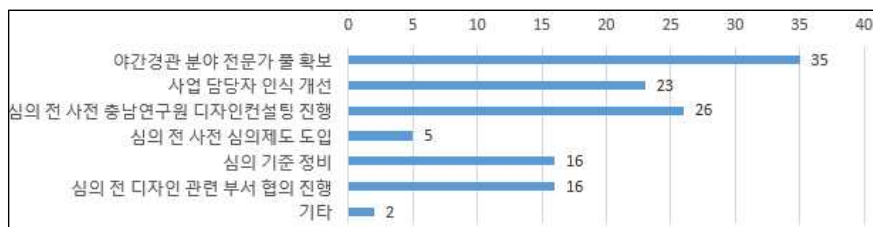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를 포함하였을 시 심의의 효과 향상을 위해서 사업 담당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53.7%)’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심의 기준 정비(19.5%)’,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12.2%)’ 순이었다. 이는 현재 야간경관 전문가 발굴과 심의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 ‘심의 기준 정비(40%)’가 가장 많았고,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가 30%로 두 번째로 많은 반면, 타 부서는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가 61.3%로 응답자의 반 이상을 차지, ‘심의 기준 정비’가 12.9%를 차지하여 부서 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1순위~3순위 선택한 합계를 살펴보면,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동일하나, ‘심의 전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 진행’과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이 ‘심의 기준 정비’보다 많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하나, 타 부서에서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담당자가 많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서 간 차이는 있지만, 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 효과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서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 ‘심의 기준 정비’, ‘심의 전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 진행’, 그리고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8〉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의 효과를 위한 개선 사항

구분	전체 (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 (31명)		
	1순위	명	%	1순위	명	%	1순위	명	%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	1	22	53.7	2	3	30	1	19	61.3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	3	5	12.2	3	1	10	2	4	12.9
심의 전 사전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 진행	4	3	7.3	3	1	10	3	2	6.5
심의 전 사전 심의제도 도입	5	1	2.4	3	1	10		0	0
심의 기준 정비	2	8	19.5	1	4	40	2	4	12.9
심의 전 디자인 관련 부서 협의 진행	6	2	4.9		0	0	3	2	6.5
기타		0	0		0	0		0	0



〈 전체(41명) 1~3순위 합계 〉



〈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1~3순위 합계 〉



〈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1~3순위 합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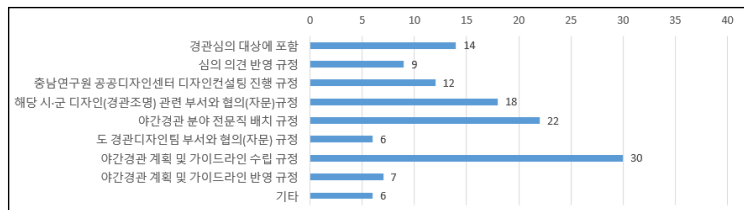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로써, 1순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29.3%)’이며, 다음으로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19.5%)’,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17.1%)’이었고, 부서 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야간경관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야간경관계획과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나, 충남의 경우 최근 야간경관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행정 조직 내에 야간경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인력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순위~3순위 합계를 살펴보면, 1순위 선택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보다 ‘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을 많이 선택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서 담당자들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진행 규정’,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을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다. 타 부서 담당자들은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을 가장 많이 선택, ‘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진행 규정’,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 순으로 많이 선택하면서, 타 부서 담당자들의 심의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부서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 담당자들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진행 규정’과 ‘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을 1순위로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9〉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구분	전체 (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 (31명)		
	1순위	명	%	1순위	명	%	1순위	명	%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3	7	17.1	2	2	20	3	5	16.1
심의 의견 반영 규정	6	2	4.9		0	0	6	2	6.5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진행 규정	5	3	7.3		0	0	5	3	9.7
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	4	4	9.8		0	0	4	4	12.9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	2	8	19.5	2	2	20	2	6	19.4
도 경관디자인팀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		0	0		0	0		0	0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1	12	29.3	1	4	40	1	8	25.8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규정	4	4	9.8	3	1	10	5	3	9.7
기타(조례에 야간경관사업 필요성 명시)	6	1	2.4	3	1	10		0	0



〈 전체(41명) 1~3순위 합계 〉



〈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1~3순위 합계 〉



〈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1~3순위 합계 〉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43.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29.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항목과 차이가 컸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을, 타 부서 담당자들은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부서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1순위~3순위 합계를 살펴본 결과,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을 다음으로 많이 선택,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 순으로 많이 선택하며, 1순위 선택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부서별로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경우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자문’ 순으로 많은 반면, 타 부서는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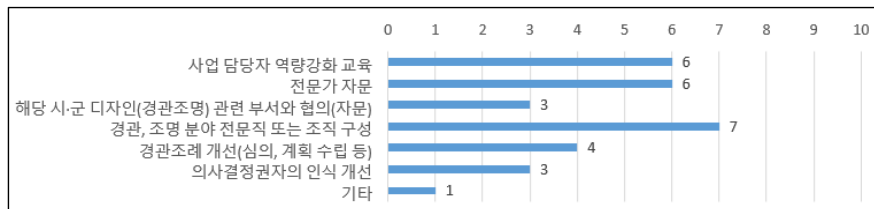
즉,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서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도 필요하지만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0〉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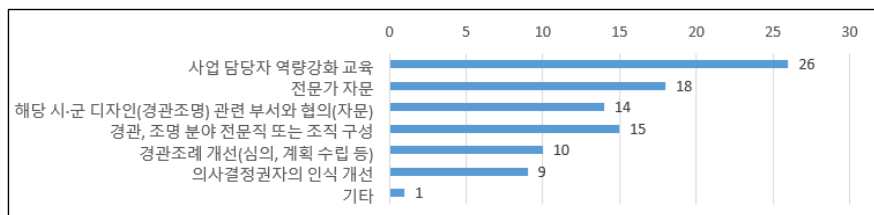
구분	전체 (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 (31명)		
	1순위	명	%	1순위	명	%	1순위	명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18	43.9	2	3	30	1	15	48.4
전문가 자문	3	3	7.3	0	0	0	3	3	9.7
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4	1	2.4		0	0	4	1	3.2
경관, 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	2	12	29.3	1	5	50	2	7	22.6
경관조례 개선(심의, 계획 수립 등)	3	3	7.3	3	2	20	4	1	3.2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개선	3	3	7.3		0	0	3	3	9.7
기타(선진지 견학)	4	1	2.4		0	0	4	1	3.2



〈 전체(41명) 1~3순위 합계 〉



〈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1~3순위 합계 〉



〈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1~3순위 합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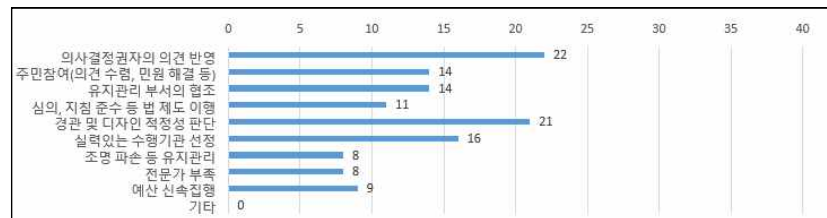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어려운 것으로서, 사업 담당자들은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24.4%)’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경관 및 디자인 적정성 판단(19.5%)’, ‘조명 파손 등 유지관리(12.2%)’ 순으로 많았다.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내용은 FGI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관 관련 법 제도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결국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의사결정권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1순위~3순위 합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이 가장 많았고, ‘경관 및 디자인 적정성 판단’, ‘실력있는 수행기관 선정’이 많았다. 부서별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이 가장 많았지만, ‘유지관리 부서의 협조’가 다음으로 많아 1순위 선택 및 1순위~3순위 선택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타 부서의 경우 ‘경관 및 디자인 적정성 판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실력있는 수행기관 선정’,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 순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서와 차이를 보였다. 즉, 타 부서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관 및 디자인의 적정성 판단과 실력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서 담당자들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과 사업 추진 이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협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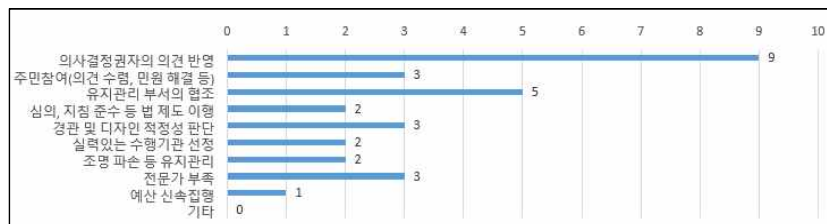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경관 및 디자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서별 차이는 있지만 실력있는 수행기관 선정과 유지관리 부서의 협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1〉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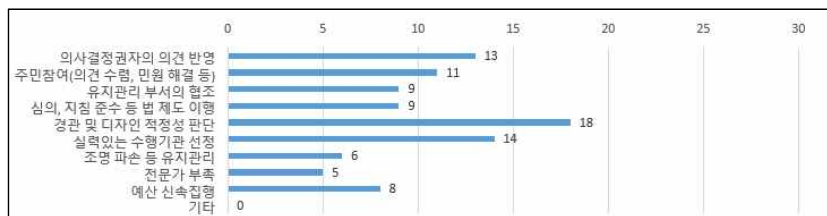
구분	전체 (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 (31명)		
	1순위	명	%	1순위	명	%	1순위	명	%
의사결정권자의 의견 반영	1	10	24.4	1	3	30	1	7	22.6
주민참여(의견 수렴, 민원 해결 등)	6	2	4.9		0	0	4	2	6.5
유지관리 부서의 협조	4	4	9.8	2	2	20	4	2	6.5
심의, 지침 준수 등 법 제도 이행	4	4	9.8		0	0	2	4	12.9
경관 및 디자인 적정성 판단	2	8	19.5	3	1	10	1	7	22.6
실행 가능한 수행기관 선정	5	3	7.3		0	0	3	3	9.7
조명 파손 등 유지관리	3	5	12.2	2	2	20	3	3	9.7
전문가 부족	6	2	4.9	3	1	10	5	1	3.2
예산 신속집행	5	3	7.3	3	1	10	4	2	6.5
기타		0	0		0	0		0	0



〈 전체(41명) 1~3순위 합계 〉



〈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1~3순위 합계 〉



〈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1~3순위 합계 〉

야간경관사업 추진시 도의 역할에 대해서 ‘빛공해 방지법 기준을 적용한 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41.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디자인 협의 및 자문(14.6%)’과 ‘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제도 개선(14.6%)’,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12.2%)’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이는 FGI 조사 결과에서도 있었듯이, 최근 충남에서도 「인공조명의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야간경관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도가 수립하여 시·군에서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순위~3순위 합계 결과는 ‘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활성화’를 선택한 담당자가 많아 1순위 합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서의 경우, ‘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제도 개선’을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타 부서의 경우 ‘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활성화’를 많이 선택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도가 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디자인 협의 및 자문의 역할과 조례 및 훈령 등 제도 개선, 그리고 야간경관 시범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하겠다.

〈표 4-32〉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충남도의 역할

구분	전체 (41명)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 (10명)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 (31명)		
	1순위	명	%	1순위	명	%	1순위	명	%
야간 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조명환경 관리구역 기준, 심의 기준 등 제시)	1	17	41.5	1	3	30	1	14	45.2
전문가 풀 구성하여 우선 도에서 경관심의 운영	5	2	4.9		0	0	5	2	6.5
디자인 협의 및 자문	2	6	14.6	2	2	20	3	4	12.9
시범사업 추진	3	5	12.2		0	0	2	5	16.1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	4	9.8	3	1	10	4	3	9.7
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제도 개선	2	6	14.6	1	3	30	4	3	9.7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활성화	6	1	2.4	3	1	10		0	0
기타		0	0		0	0		0	0



〈 전체(41명) 1~3순위 합계 〉



〈 경관, 공공디자인, 건축, 주택, 도시(10명) 1~3순위 합계 〉



〈 관광, 문화, 공원, 녹지, 조명 등(31명) 1~3순위 합계 〉

4.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 도 및 시·군 간 「경관조례」의 연계성 확보 필요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사업들의 근거법에 대하여 도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군에서는 조례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중 야간경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경관조례」에 야간경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와 보령시,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이며 도의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어 도의 조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 대상 포함 기준은 사업유형, 총사업비, 요소 등 다양하며, 각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와 시·군 간 경관관리의 연계 측면에서 봤을 때 심의 대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시·군 간 디자인 균형을 위해 디자인 지원 필요

조직 현황 및 역할 측면에서는 하나의 팀에서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디자인 전문직은 도를 비롯한 6개 시·군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타 지자체에서는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별도 구성하고 있어 인력측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충남 내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한 시·군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심의 대상 및 기준 등 「경관조례」 개선 필요

야간경관사업 추진에 근거 및 참고가 되는 야간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한 곳은 없는 실정이며, 경관계획 내 야간경관계획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곳은 도를 포함한 2곳,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12곳에 해당한다. 이 역시 도와 시·군 간 차이가 있는 실정이며, 「경관조례」에서의 규정 여부와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광역 차원에서 충남과 앞서 살펴봤던 타 지자체와의 차이를 보면, 인천의 경우 「경관조례」에서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빛 공해 방지 조례」와 연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을 하면서 충남과 차이를 보여준다. 야간경관사업의 심의 대상 포함 여부는 충남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서 시각이미지에서의 조명계획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경기도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공공건축물, 옥외공간, 조명, 그리고 도로시설에 대한 경관조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빛 공해 방지 조례」와 연계하여 공공건축물, 구조물, 공간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 심의 대상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충남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차원에서의 방향과 타 관련 분야와의 연계 방안 제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선 광역차원에서의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야간경관사업의 다양화 필요

야간경관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 서울의 경우 시민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충남과 다른 방식으로서 충남에서의 야간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4-33〉 타 지자체와 충남의 법 제도 및 조직 현황 비교

구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법 제 도	경관조례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공공건축물, 문화유산, 향민시설과 교량, 상징조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	-
	빛공해방지조례		- 빛 공해 방지 계획에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 야간경관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심의대상(위원회) ●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경관위원회) - 야간경관사업 심의는 경관팀, 야간경관사업은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	● - 공공기관 추진 시·군 보조사업 중 조명계획이 있는 사업(경관위원회) - 31개 시·군 중 11곳 심의대상에 포함(8곳은 총사업비 기준, 3곳은 사업유형 기준)	● - 「서울시 경관조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야간경관시설(좋은빛위원회)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공공청사,	● - 도 각 부서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시·군 보조사업 중 공공미술 및 시각이미지에 서의 조명계획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15개 시·군 중 5곳 심의대상에 포

		<p>(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포함), 옥외공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호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정된 관광자관광단지 및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이벤트조명, 수변조명 등, 도시기반시설 :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p>	<p>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조물(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p>	<p>함(4곳은 총사업비 기준, 1곳은 사업요소 기준)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색채 및 조명계획)</p>
야 간 경 관 계 획	●	●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사업 발굴(경관계획) - 야간경관 사업계획 수립(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빛공해 관리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20년 야간경관계획 수립 - 도와 사군 역할별 사업 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야간경관계획 수립 - 2018년에 도시, 건축, 에너지, 문화유산, 관광 등 종합적 관점에서 도시빛 	-

			- 야간경관 가이드 라인 제시(도시/비도시지역 구분)	<u>기본계획 수립</u> - 야간경관 사업 추진 전 조망분석을 통한 연출 계획과 야간경관 개선 계획 수립	
	야간 경관 사업	-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 광역시 자체 공모사업 추진	- 도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 시민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추진	-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 도 공모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추진
조직 구성	경관, 공공디자인 별도	●	●	●	x
		- 경관(야간경관 포함), 공공디자인(야간경관 포함) 별도의 팀 구성	- 경관(야간경관 포함), 공공디자인 별도의 팀 구성	- 경관과 야간경관(빛공해 담당), 공공디자인 별도 담당관 구성	-
	환경 별도	● - 빛공해 담당 부서(환경팀) 별도 구성 - 경관팀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참석	● - 빛공해 담당 부서(환경팀) 별도 구성	x - 야간경관팀이 담당	● - 빛공해 담당 부서(환경팀) 별도 구성
	전문직	●	●	●	●

2)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주체의 의식

충남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충청남도 공모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지역현안사업, 시·군 자체사업의 5가지 유형에 의해 야간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공모사업과 달리 충남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야간경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업 담당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하여 야간경관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야간경관 전문가 부족에 의해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우선시되면서 경관과 부조화, 더 나아가서는 통합적인 경관조성이 어렵다는 담당자들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적극 활용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유형별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 차이가 있으나 필요성 인식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공모신청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모 선정부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모사업 일환으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비 공모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비가 적고 기존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1년 단기사업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조명계획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계획해야 하며,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계획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

업 담당자가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마스터플랜 수립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사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 유형별 의사결정권자의 의식개선 필요성 인식 차이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평가, 전문가 자문, 심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충남 공모사업 및 시·군 자체 사업의 경우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법에 근거한 사업의 경우 구속력이 없어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업 유형별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의사결정권자가 야간경관 및 법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 야간경관사업 지원을 위해 디자인컨설팅 제도 활성화 필요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자인 관리는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 유형 구분없이 야간경관 분야 전문인력 및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충남연구원 디자인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담당자가 많았고 기본계획단계, 구상단계, 필요시 등 디자인컨설팅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로 사업 담당자가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관심의를 통해 디자인관리 유도 및 활성화 필요

야간경관사업의 심의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유형, 총사업비, 요소가 비슷하게 제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

해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면 우선 야간경관 전문가풀 확보, 사전 디자인컨설팅 진행, 빛 공해 방지 기준이 적용된 심의 기준 개선과 같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야간경관사업 추진 법 제도 개선과 기초체력 구축 필요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디자인컨설팅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경관조례」와 디자인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훈령 등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권자를 비롯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경관 관련 이론 및 법 제도, 선진지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의식 개선과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체력 및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야간경관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

최근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 문제와 민간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야간경관 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유도, 경관심의 시 조명의 운영계획 검토를 통해 유지관리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원을 위해 야간경관사업의 경관협정제도 및 도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34〉 FGI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시사점

구분	주요내용	개선방향	
		사업 추진체계 개선	역량 강화 자원
조명계획 단계*	- 초기단계(구상단계)에 계획 필요(전기 배선, 조명기 구 배치 등)	●	
	- 국비 공모사업 이외의 경우 마스터플랜이나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 많은 상황	●	
디자인 협의	- 사업 단계별로 디자인 부서와 협의 필요 - 사업 구상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특히 필요 - 디자인 부서보다 전문기관의 자문 지원 필요	●	
전문인력 배치	- 야간경관 전문인력 배치 필요	●	
전문가	- 도나 전문기관 야간경관 전문가의 자문 필요 - 사업 구상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필요	●	
심의대상	- 심의, 디자인 협의/자문 대상 구분하여 포함	●	
	- 심의는 규제중심, 통제 역할	●	●
도의 역할	- 빛 공해 방지법 기준 적용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심의기준 제시 - 사업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야간경관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필요, 예산확보 어려움	●	
공모사업	- 야간경관 분야 별도 추진	●	
민간자원	- 필요, 지원기준 명확화	●	
역량강화, 의식개선*	- 시·군 자체사업, 지역현안사업, 도민참여예산제 등 평가 및 자문 절차가 부재한 사업의 경우 의사결 정권자의 의견 반영이 우선되므로 개선 필요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필요 - 야간경관사업 사례집 발간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 필요 - 사업 이후 유지관리 중요	●	

→

* 사업유형별 차이가 있는 내용

〈표 4-35〉 추진주체의 의식 및 시사점

구분	주요내용 (우선순위 순으로 나열)	개선 방향		
		사업 추진체계 개선	역량 강화	시범사업 지원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인식	- 지역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인식(관광활성화, 경관 향상)			●
	- 야간경관사업 추진 필요성 인식			●
마스터플랜 사업	-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필요성 인식	●	●	
	- 사업 담당자 판단 > 계획(경관/공공디자인 계획, 관광개발계획)참고 > 주민 제안	●	●	
대상자선정	- 전문가 자문* > 디자인 관련 부서 협의 > 심의	●		
	* 디자인컨설팅에 진행 수요 많음			
디자인관리	- 전문가 자문 > 디자인 관련 부서 협의 > 심의	●		
	* 디자인컨설팅에 진행 수요 많음			
전문가자문	- 기본계획단계 > 구상단계 > 필요할 때마다	●		
	- 사업유형 > 총사업비* > 요소	●		
심의 대상	* 5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 전문가풀 확보	●		
심의 효율화	- 사전 디자인컨설팅 진행	●		
	- 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	●	●	
사업의 효과 향상 (법 제도 개선)	- 심의기준 개선	→ ●		
	-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		
사업의 효과 향상	-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	●		
	- 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 규정	●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	-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		
	- 디자인컨설팅 진행 규정	●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 전문가 자문	●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	- 경관, 조명 분야 조직 구성	●		
	- 의사결정권자 의견 반영		●	
충남도의 역할	- 경관, 디자인 적정성 판단	●	●	
	- 실력있는 수행기관 선정	●	●	
충남도의 역할	- 조명 파손 등 유지관리	●		
	- 빛 공해 방지 기준 적용 야간경관 계획 또는 가이드라인 수립	●		
충남도의 역할	-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디자인컨설팅 활성화	●		
충남도의 역할	- 디자인 협의 및 자문	●		
	- 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 법 제도 개선	●		
충남도의 역할	- 시범사업 추진			●

제 5 장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개선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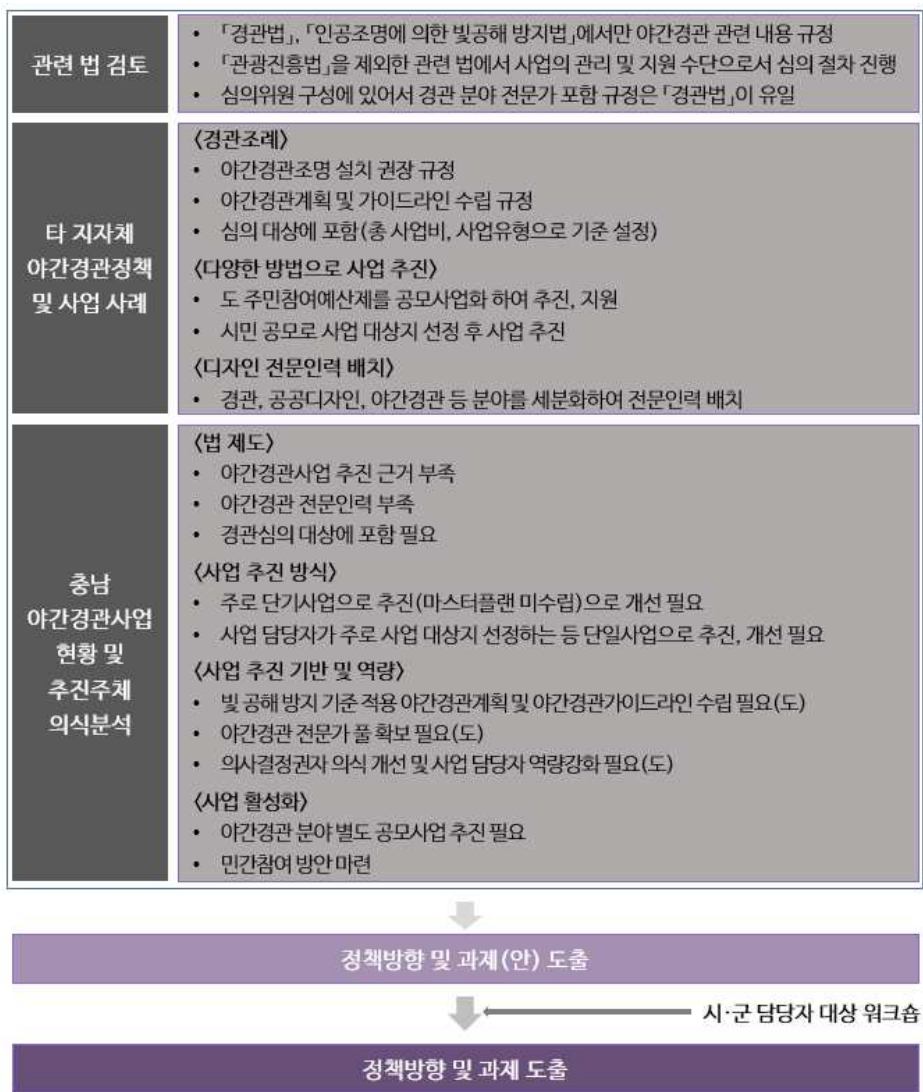
1) 기본방향 도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 근거법 검토, 타 지자체에서의 야간경관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에서의 시사점 도출, 충남 야간경관사업 현황 및 추진주체의 의식분석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7개 시·군 12명의 사업 담당자 참석 워크숍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5-1〉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워크숍

일정	시·군	사업명	분야	디자인 전문직
- 일시 : 2024.10.2. 14:00~16:00 - 장소 : 충남연구원 중 회의실 (내포)	예산군	충청남도 공모사업 :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자체사업	경관/디자인	○
	논산시	자체사업	경관/디자인	○
	홍성군	충청남도 공모사업 : 월계천 '고향의 강' 야간경관개선사업	경관/디자인	○
	공주시	자체사업	공원/녹지	
	공주시	자체사업(정원도시)	공원/녹지	
	공주시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공원/녹지	
	공주시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야행	조명	
	천안시	자체사업	조명	
	천안시	: 천안서부역, 성정1동, 불당동 원형육교 등	조명	
	부여군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관광/문화	
	예산군	자체사업, 중앙부처 연계사업 : 출렁다리	관광/문화	
	당진시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 야행	관광/문화	

야간경관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경관 및 디자인, 공원 녹지, 조명, 관광 및 문화 부서 담당자들 중 중앙부처 사업 및 도 공모사업, 시·군 자체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림 5-1]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정책방향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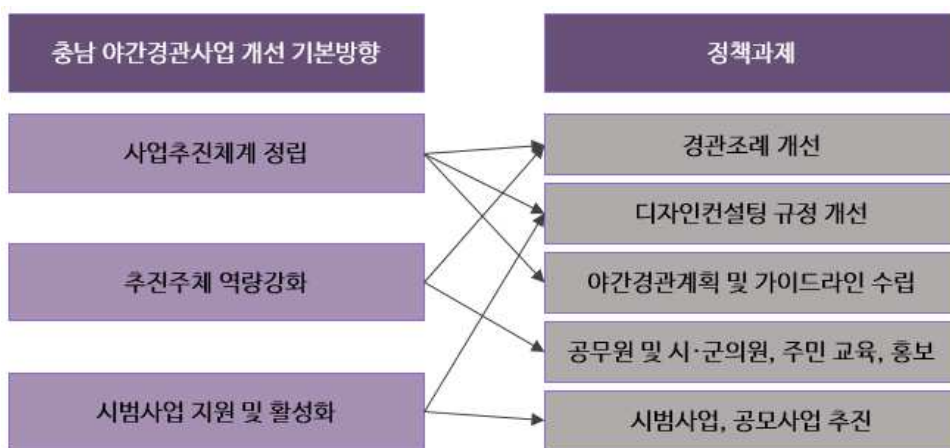
2)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가지 정책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 첫째, 야간경관사업의 추진 근거인 「경관조례」 개선을 통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유도과 심의제도 효율화, 도의 훈령인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규정」 개선을 통해 야간경관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유도, 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지자체 정책결정 이해관계자의 야간경관에 대한 이해 향상을 통해 야간경관사업 추진 기초체력을 구축한다.

셋째, 야간경관 전문가 적극적 활용 유도를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규정」 개선과 야간경관 분야 공모사업 추진으로 야간경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2.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및 주체별 역할

5가지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15개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운영 여부, 행정조직 구성 및 디자인 전문직 유무 등 야간경관사업 추진 여건이 다르지만 도와 시·군 간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시·군 간 정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의 선도 및 지원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와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5-2〉 정책과제 및 주체별 역할

정책과제	주요내용	도	시·군
경관조례 개선	- 야간경관사업의 정의 및 범위 제시	●	●
	-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 신설		●
	- 심의 대상 포함 규정(야간경관 관련 사업 근거법 포함)	●	●
	- 심의, 자문 대상 구분	●	●
	- 전문직 배치 및 디자인 부서 협의		●
디자인 컨설팅 규정 개선	- 야간경관사업 대상 포함(중앙부처, 충남도 공모사업, 시·군 자체 사업)	●	
	-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지원	●	
	- 심의 전 사전 컨설팅 진행 활성화(사전 검토 제도로 활용)	●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야간경관사업의 정의 및 개념 제시	●	
	- 빛공해 방지 적용 기준 반영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심의기준 제시	●	●
	- 주민참여 방안	●	●
	- 도, 시·군 역할별 사업 방향 제시	●	
	- 야간경관사업 발굴		●
	- 야간경관 관리(모니터링)	●	●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대상 교육, 홍보	- 사업 담당자 대상 정기적 역량강화 교육	●	
	- 지자체 시·군의원 대상 정책홍보	●	
	- 주민 대상 야간경관사업 참여 활성화 교육	●	●
	- 사례집 발간	●	
	- 디자인컨설팅 홍보	●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경관협정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등)	●	
	- 도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 사업 공모사업화	●	
	- 주민 경관관리단 야간경관 조망 대상지 발굴 사업		●

2) 정책과제별 주요내용

(1) 「경관조례」 개선

도 및 15개 시·군 「경관조례」상 야간경관 관련 내용을 보면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를 규정한 곳은 2곳,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이에, 「경관조례」에 야간경관 추진 기반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표 5-3〉 도 및 시·군 「경관조례」 중 야간경관 관련 내용(2024년 기준)

구분	도	시·군
야간경관 정의	×	보령, 아산
경관계획 내용에 야간경관 관리, 개선	×	●
야간경관계획 수립	×	×
야간경관 조성 권장	×	×
경관협정	●	●
심의 대상	×	공주, 보령, 부여, 홍성, 예산
자문 대상(야간경관 관련)	×	×

①[도], [시·군] 야간경관 정의 규정

조례에 야간경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야간경관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예 : 아산시 경관조례〉

제2조 (정의)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② [도] 경관계획 내용에 야간경관 관리, 개선 규정

현재 도 「경관조례」에는 야간경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관계획에는 일부 야간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전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전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전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전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전 및 관리 6. 역사·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 7. 야간경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법」제9조1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도], [시·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조성 권장 규정

최근 야간경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단기사업 또는 단발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계획 수립과 야간경관 조성 권장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야간경관계획 수립의 경우,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야간경관 조성은 예산 및 디자인 측면에서 구상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 실행주체인 시·군의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제시하였다.

[도]

(야간경관의 증진) ① 도지사는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충청남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특화, 활성화계획
3.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기준
4.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군]

(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군수는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의 시설물
2.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3. 공원 및 휴양시설
4. 교량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도로 난간 등
5. 시장/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워크숍 주요내용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

- 일정 규모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은 필요. 준공된 시설물에 조명 설치 시 추가 비용 및 구조물 훼손 우려

〈야간경관계획 수립 규정〉

- 별도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어려운 시·군이 많아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

④ [도] [시·군] 심의 대상 포함

- [도] : 경관심의 대상으로 개정, 우선 도가 야간경관사업 경관관리 체계 구축
현재 도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조명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경관조례」에서의 심의 대상으로 개정하고, 도비 보조사업 중 「건축법」상 일부 공공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옥외공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조명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도 심의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소규모 사업도 도비 보조에 해당되면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민원이 많다는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도가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경관심의를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점차 시·군 경관심의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의 각 부서
2.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별표 1(2.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색채 및 조명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경관조례〉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4. 제15조의 경관사업 <개정 2023. 12. 29.>
5. **도 및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군 보조사업 포함) 중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12. 29.>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별표]

	구분	심의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포함)
	옥외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호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이벤트조명, 수변조명 등
	도시기반시설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사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인 경우에만 해당)		
<p>*워크숍 주요내용</p> <p>〈심의 대상 포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심의 대상을 사업유형과 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으로 축소하고 각 시·군에서 심의 진행하도록 유도 필요(현재 5천만 원 소규모 사업도 도 심의 대상에 포함. 현재 도 심의대상이 포괄적이어서 민원이 많아 개정 필요) - 사업비 기준은 총 사업비, 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규 사업과 보수 사업 구분 필요 - 사업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컨설팅을 진행한 사업은 심의 생략 규정 필요 <p>〈심의 대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 심의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민원이 많아 개정 필요 		

· [시·군] : 사업유형, 총사업비, 요소 중에서 여건에 맞게 운영

15개 시·군 중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5곳이며, 요소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곳이 2곳, 사업유형과 사업비가 1곳, 사업비, 요소가 각각 1곳이다.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유형이 가장 많았고, 총사업비, 요소 순이었지만 차이가 없었다. 시·군마다 사업규모가 지

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현재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업비 기준이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야간경관사업의 활성화 및 경관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경관조례」에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고, 심의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도와 시·군 간 논의를 통해 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5-4〉 시·군별 야간경관 관련 심의 대상(2024년 기준)

구분	유형, 요소별	사업비	그 외
공주시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조명사업, 조형물 사업)	● (5억 원 이상)	● (조형물의 경우 높이 10m이상)
보령시	● (공공공간 및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X	
부여군	X	●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경관조명사업)	
홍성군	● (공공디자인 대상물)	● (사업비 2억 원 이상 야간조명사업)	
예산군	●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시설물)	●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야간조명사업)	

〈예 : 예산군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제25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물
 - 가.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공원, 교량, 육교, 조경공사

나. 총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

*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워크숍 주요내용

〈심의 대상 범위〉

- 예산군의 경우, 디자인이 가미된 조명기구로서 빛 공해 방지법에서의 조명기구 사양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명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 검토중(도시시설물 목적의 조명 설치 및 교체는 심의 제외, 장식조명은 심의 대상에 포함)
- 홍성군의 경우, 현재 요소별 기준을 사업비와 규모로 개정할 예정
- 문화유산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
-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에 야간경관사업은 기준 구분없이 모두 심의 또는 자문 대상으로 할 필요
- 일시적 사업 또는 상시적 사업 구분 필요
- 미디어콘텐츠도 포함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장소 및 주변과의 조화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⑤ [도], [시·군] 자문 대상

야간경관사업은 주,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 및 해당 시·군 「경관조례」에 규정한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 중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업을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군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업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공사비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⑥ [시·군] 디자인 부서 협의

디자인 부서에는 가능한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하고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한다. 조례에 디자인 부서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 전 사업 대상지 적정성, 사업 추진방향 등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사업비 확보 후 사업 기본계획단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 디자인 계획, 배선 및 배관, 조명 종류 등 협의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이에 대해서 사업 담당자들은 야간경관사업은 실무경험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컨설팅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

행정조직 구성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자인 전문직 배치가 어려운 시·군에 야간경관사업 지원을 위해 디자인컨설팅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예 : 공주시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경관 개선을 위해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시경관관련 업무부서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별표 1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하천, 공공시설물, 공원, 조경공사, 주차장, 터미널, 조명, 조형물, 기타

*워크숍 주요내용

〈전문직 배치〉

- 전문직 배치나 디자인 부서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컨설팅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

(2) 야간경관사업 디자인컨설팅을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

충남도는 2015년부터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을 운영해 왔다. 규정에는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디자인 범위를 포함하면서,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충남에서 디자인컨설팅 범위로 추진해 왔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을 디자인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와 함께 국도비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등 경관 및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범위로 하면서 광범위하게 디자인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규정을 운영하고 약 10년이 되는 현재, 디자인컨설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역할을 담당하면서 심의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야간경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사업의 지원을 위해 이를 디자인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시기도 규정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적극적 및 필요할 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 담당자들 중에는 사업 단계별로 디자인컨설팅을 진행한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도와 시·군, 디자인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컨설팅 및 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의 효과 향상을 위해 심의위원의 디자인컨설팅에 참여, 디자인컨설팅 반영 결과를 심의 도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부 고시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의 사전 검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워크숍 주요내용**

〈디자인컨설팅 규정 개선〉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단계부터 야간경관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컨설팅 지원이 필요
- 조명은 실무 유경험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시·군에서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 실무자를 위촉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컨설팅에 의해 전문가 지원 필요
- 사업계획단계에서 디자인컨설팅 참여 전문가가 심의 전 사전 검토에 참여하여 일관된 의견 제시 필요
- 경관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계별 디자인컨설팅 시행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 제외로 개선 필요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디자인컨설팅 대상) ① 디자인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관리사업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4.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구분	유형
공공공간	공원, 휴양공간, 광장, 가로공간, 항만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정보매체), 도로시설물, 임시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조형물, 공공미술, 색채 및 조명계획), 시각이미지(정보디자인,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공공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복지용품, 편의용품, 관광용품



제3조(디자인컨설팅 대상) ① 디자인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야간경관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4조(디자인컨설팅 신청 시기) ① 디자인컨설팅 대상별 신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구상,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디자인컨설팅을 신청하되,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단계별로 반복적인 디자인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디자인컨설팅 신청시기

대 상		사업구상	기본계획 및 설계 (공정 30%이내)	실시설계 (공정 30% 이내)
국도비지원사업		△	○	○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	○	○
공공 공간	공원	△	○	○
	휴양공간	△	○	○
	광장	△	○	○
	가로공간	△	○	○
	항만공간	△	○	○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	○	○
	문화체육시설	○	○	○
	의료복지시설	○	○	○
	교통시설	△	○	○
	환경시설	△	○	○
공공 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	△	○
	보행안전시설물	△	△	○
	편의시설물	△	△	○
	공급시설물	△	△	○
	녹지시설물	△	△	○
	안내시설물(정보매체)	△	△	○
	도로시설물	△	△	○
	임시시설물	△	△	○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조형물	○	○	○
	공공미술	△	○	○
	색채 및 조명계획	△	○	○
시각 이미지	정보디자인	△	○	○
	도시브랜드상징이미지	△	○	○
공공용품	안전용품		△	
	위생용품		△	
	복지용품		△	
	편의용품		○	
	관광용품		○	



제4조(디자인컨설팅 신청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디자인컨설팅 대상 사업 중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은 사업의 효과와 심의의 효율 향상을 위해 심의 전 디자인컨설팅(경관 사전 검토로 이행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2 디자인컨설팅 신청시기

대 상		사업구상	기본계획 및 설계 (공정 30%이내)	실시설계 (공정 30% 이내)
국도비지원사업		△	○	○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	○	○
야간경관사업		○	○	○
공공 공간	공원	△	○	○
	휴양공간	△	○	○
	광장	△	○	○
	가로공간	△	○	○
	항만공간	△	○	○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	○	○
	문화체육시설	○	○	○
	의료복지시설	○	○	○
	교통시설	△	○	○
	환경시설	△	○	○
공공 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	△	○
	보행안전시설물	△	△	○
	편의시설물	△	△	○
	공급시설물	△	△	○
	녹지시설물	△	△	○
	안내시설물(정보매체)	△	△	○
	도로시설물	△	△	○
	임시시설물	△	△	○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조형물	○	○	○
	공공미술	△	○	○
	색채 및 조명계획	△	○	○
시각 이미지	정보디자인	△	○	○
	도시브랜드상징이미지	△	○	○
공공용품	안전용품		△	
	위생용품		△	
	복지용품		△	
	편의용품		○	
	관광용품		○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현재 충남에서는 야간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한 곳이 없으며,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 2024년 9월부터 충남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도가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별도 수립하여 시·군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시·군에서 해당 시·군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야간경관계획에는 야간경관의 개념과 충남에서의 야간경관 현황을 토대로 한 야간경관사업의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심의에서 빛공해 방지 기준 적용 여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비 절감, 조명기구의 적정성 등 야간경관사업에 부합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심의기준과 연계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여 시·군에서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은 도농복합의 특성이 있으므로,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시·군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야간경관사업에 민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제도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조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 주요내용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도가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
- 심의나 사업 완료 이후 RGB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음
-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주민 민원이나 빛공해, 민간 사유지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경관 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야간경관 대상, 유형, 요소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필요

(4) 공무원 및 시·군의원 교육, 홍보

FGI조사나 설문조사, 워크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시·군의원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야간경관에 대한 개념 및 관련 법 제도,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필요성과 활용 방법 등 이론교육을 비롯하여,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과 예산, 디자인컨설팅 제도의 활용방법 및 효과 등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선진지 답사를 통해 야간경관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 운영으로 야간경관사업 이해관계주체의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 및 충남에서 추진된 야간경관사업 사례집 발간도 이해관계주체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성군은 2023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결성읍성 주·야간 특화디자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지원을 하고 있다. 경관협정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홍성군 결성읍성의 사례는 야간경관사업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민간지원의 선진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과 효과 등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민 대상 경관 및 야간경관의 개념과 법 제도 등 이론 교육, 사업완료 이후의 모니터링 및 선진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야간경관사업을 이해하고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여 야간경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5-5〉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교육 주요내용(안)

구분	주요내용	참여대상
이론	- 경관 및 야간경관의 개념	공무원, 시·군의원, 주민
	- 법 제도의 이해(경관법, 경관협정제도, 경관심의, 빛공해 방지법 등)	
	-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역할	공무원, 주민
	- 마스터플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활용	공무원, 시·군의원
사업의 이해	-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단계별 계획, 유지관리, 전문가 자문, 심의 등) - 예산(전기공사비, 디자인개발비 등) - 디자인 전문부서의 필요성 및 역할 - 디자인컨설팅 제도	공무원, 시·군의원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공무원, 주민
현장답사	- 선진사례 견학	공무원, 시·군의원, 주민

*워크숍 주요내용

〈교육〉

- 의사결정권자(지자체 의원 및 국장 이상)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초기단계에 조명계획 필요성,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예산(전기공사비, 디자인비용 등), 디자인전문직의 역할, 심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의사결정권자들은 다양한 색 연출을 선호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사업 담당자 대상 야간경관사업 현장답사 등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추진 필요
- 야간경관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추진하므로 교육 대상자 포괄적으로 확대 필요

〈홍보〉

- 디자인컨설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홍보 필요
- 야간경관사업 사례에 대한 사업비(설계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사업기간, 계약방법, 운영시간 등을 명시한 사례집 발간이 인식 개선에 도움
- 타 시·군 야간경관사업 사례와 비교 검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 발간 필요

(5)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재 충남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사업유형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야간경관, 경관협정 등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야간경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경관관리를 위해 단기사업이 아닌 홍성군 결성읍성과 같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야간경관 중장기계획수립, 경관협정제도와 연계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유형으로 제안한다. 또한 기존 야간경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나 세계유산이 많은 충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야간경관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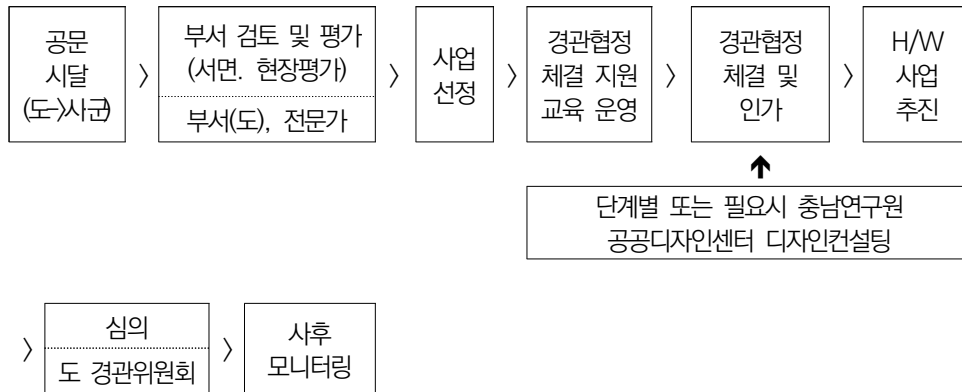
한편, 현재 도민참여예산제로도 야간경관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도민참여예산제를 야간경관사업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평가기준의 명확성 미흡,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에 따른 선정 이후의 사업추진 어려움, 사업 타당성 여부보다 제안자와 의사결정권자와의 이해관계 우선 선정 등의 문제로 도민참여예산제의 야간경관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들은 부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례로 했던 경기도와 같이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과제 선정 시 도 및 해당 시·군 부서와 전문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디자인컨설팅과 경관심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식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물론 야간경관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물론 도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서 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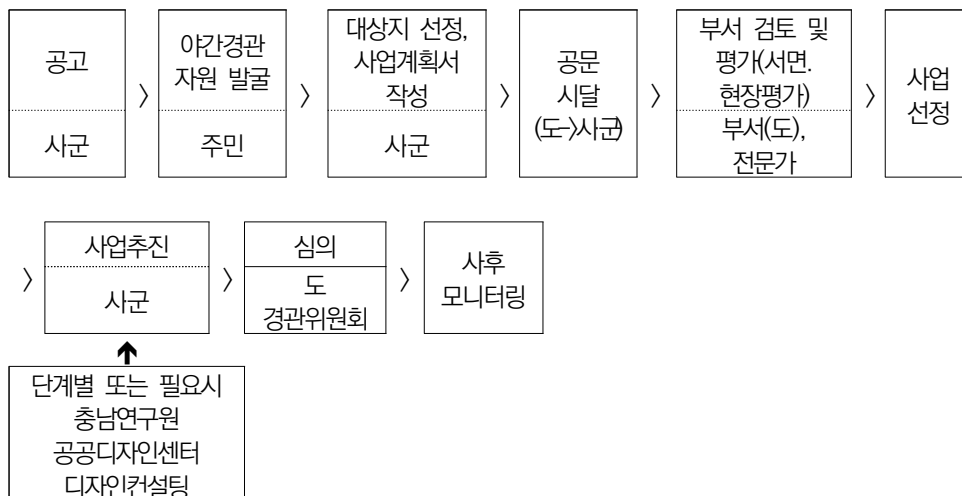
남도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업 추진 시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가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민이 사업 대상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자원 발굴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한다. 이는 매년 추진되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공모사업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 야간경관자원 발굴 공모를 진행하도록 한다. 주민에 의해 발굴된 대상지를 다각도로 판단 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한다. 이러한 방식은 그간 관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주민참여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로서 보다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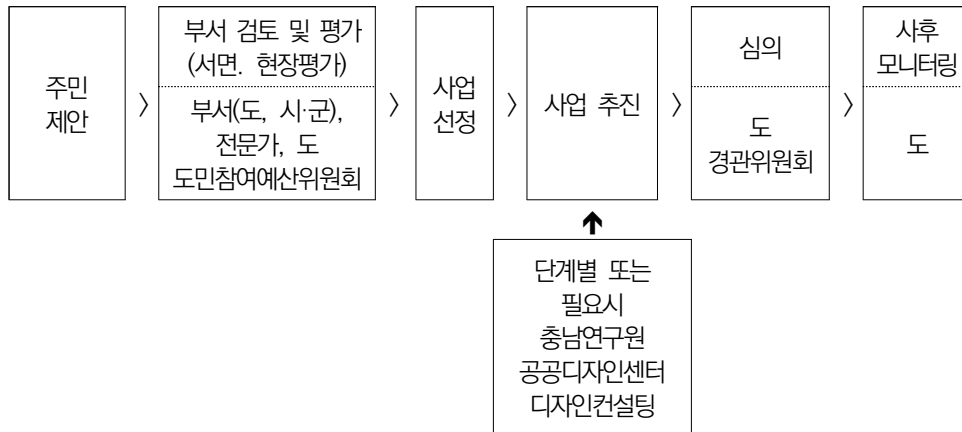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 담당자들의 사업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 앞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시·군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차년도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또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림 5-3]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경관협정의 야간경관사업 연계 추진절차



[그림 5-4]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 야간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절차



[그림 5-4] 충남 도민참여예산제 야간경관사업 공모사업 추진절차

*워크숍 주요내용

〈공모사업〉

-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필요
- 신규 야간경관조성보다 기존 야간경관의 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
- 국가유산 등 지역의 특색있는 건축물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확대 필요

〈도민참여예산제의 야간경관사업화〉

-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시스템 상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진행되어 실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양할 필요
- 이해관계자의 일부 악용 사례가 있지만, 관련 부서장 및 의사결정권자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모사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추진하도록 할 필요
- 건의자가 조명 연출 디자인과 각종 자재(특정 업체의 관급 자재)를 미리 선정 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연계 추진은 부적합
- 공모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충남의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경관관리를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을 경관, 야간경관 및 야간조명의 개념 분석을 통해 '조화성', '조망성', '쾌적성', '정체성', '구경거리', '경제성', '시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야행사업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충남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사업들의 근거법, 즉 「관광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관리 및 지원 수단으로서 자문 및 심의가 있으나, 자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심의에 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을 제외한 모든 법에 있었다. 하지만 자문이나 심의 주체에 경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관법」이 유일하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경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경관관리 수단 규정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각 근거법에 의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경관관리를 위한 법 제도 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인천, 경기, 서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업 초기단계부터 야간경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조례」에 규정, 통합된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해 야간경관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또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야간경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빛공해방지위원회에 경관 부서가 참여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비 또는 사업유형 등을 기준으로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 효과를 위한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전문직이 부재한 시·군의 역량 부족 및 사업 담당자 교체, 계획 미수립 등에 따른 시·군 간 격차와 사업 품질 저하, 사업 담당자의 경관심의 기피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많지만 충남도를 비롯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곳은 없는 실정이며, 2023년 9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2024년 9월부터는 시행하고 있어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야간경관사업의 관리가 가능한 「경관조례」에서의 심의 대상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직 배치 여부 등에 있어서 시·군 간 차이가 많은 실정이며,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한 법 제도와 디자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충남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충청남도 공모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지역현안사업, 시·군 자체사업의 5가지 유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공모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대부분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 담당자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경관과의 부조화 및 통합적 경관조성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 경험에 있는 시·군 사업 담당자 대상 FGI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명계획을 사업 구상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의사결정권자가 야간경관 및 법 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야간경관 분야 전문인력 및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부서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경험 담당자들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업 담당자들은 충남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사업의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경관향상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야간경관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야간경관 전문기술품 확보와 사전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 부서와 협의, 빚공해 방지 기준 적용 심의 기준 개선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행정조직 내 배치 및 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야간경관계획 수립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어려우므로 도가 빚공해 방지 기준과 연계한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전문자 자문 활성화, 조례 및 훈령 등 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야간경관사업 관련 법 제도, 타 지자체 사례 및 충남 현황 분석을 통해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3가지의 기본방향과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시·군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여 실현가능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조례 및 훈령 등 야간경관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 유도 및 사업 이해관계자의 야간경관에 대한 이해 향상의 ‘추진주체 역량강화’, 야간경관 전문가 활용 활성화와 공모사업 추진의 ‘시범사업 지원 및 활성화’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경관조례」 개선’,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의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정책과제별 도와 시·군의 역할도 함께 제안하였다.

먼저 ‘「경관조례」 개선’은 도 및 15개 시·군 「경관조례」에서의 야간경관의 정의부터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사업추진 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여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 그리고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직 배치와 사업추진 시 디자인 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에 대하여, 충남에서는 2015년부터 디자인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디자인컨설팅 범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디자인 범위를 포함하면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국도비지원사업 및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등 경관 및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범위로 해 왔다. 도 및 일부 시·군에서는 심의 전 사전 검토로서 디자인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필요시 야간경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컨설팅 범위에 야간경관사업을 포함하고, 심의 전 사전 검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전 검토 제도로 활용할 시 디자인컨설팅 반영 여부를 심의도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컨설팅 제도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과제는 야간경관계획이 전무한 충남에서 도가 우선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야간경관의 개념부터 정의 및 범위, 시·군에서 빛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심의 기준, 주민이 야간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야간경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야간경관의 이해부터 사업 기준과 민간참여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충남의 도농복합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군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공무원 및 시·군의원,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정책과제는 사업 추진 주체인 공무원, 정책결정권자인 시·군의원, 사업의 수혜자이자 추진 주체인 주민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 정책홍보로서, 야간경관 및 법 제도의 이해에 대한 이론부터 사업 추진 절차 및 예산, 사후관리 방안과 선진사례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야간경관사업 이해관계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은 현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관협정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주민의 야간경관자원 발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관 중심의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 중심의

상향식 사업 방식으로서 지속가능한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충남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함으로 연구 범위를 충남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이 중앙부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의 경우 경관 업무를 부 업무로 다루고 있는 시·군도 있으며,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의 실행주체인 행정조직 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경관사업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경관법」에서 계획 수립 및 심의 범위, 전문가 자문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야간경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등 야간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관련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경관의 보존 및 관리, 형성 관점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사업 담당자 대상 다각도의 인식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군 간 및 부서별 사업 담당자 간 인식차이를 비롯한 충남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여건을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야간경관사업이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목적이 경관형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야간경관사업의 효과로서 관광 활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듯이 야간경관사업은 경관 보존 및 형성, 관리 관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경관 관련 부서와 그 외 타 부서 담당자 간 인식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서의 야간경관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제시는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사업 담당자 FGI조사

1. 야간경관(조명) 사업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는지?

〈홍성-문화관광〉

-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23년 수립: 홍성군 전역을 관광활성화 하는 것이며 야간경관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1단계 기반조성 사업 완료 이후 2단계에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였음
- 3단계는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홍성-디자인〉

- 현재 이미 조성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추가적으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보통 추가적으로 조명설치를 하지만 초기단계부터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목등의 경우 수목 식재 이후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뿌리까지 건드리게 됨(월계천 야간경관사업 할 때 수목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고생했음. 나무박사의 자문, 의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됨). 조명기구 설치 높이, 위치 등도 불규칙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어서 주간에도 경관상 보기 좋지 않음
- 사업별로 다를 것 같음
- 공공건축물의 경우 구상단계부터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산-디자인〉

- 마스터플랜 없이 추진하였음
- '지역별 특색있는 야간경관사업'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진행했음

〈논산-디자인〉

- 현재 이미 조성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추가적으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건축이나 공원 등 이미 조성된 것에 야간조명이 추가적으로 진행됨)
- 하지만 공원의 경우 처음부터 조명계획이 들어가야 함. 이후에 하게 되면 전기 배선 노출 등의 문제로 경관상 보기 좋지 않음
- 최근에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에 전기, 배관, 배선을 뺄 수 있도록 협의, 지원해주고 있음(신축 건물에 전기, 배관, 배선 때문에 덧씌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초기단계(구상단계)부터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천안-경관조명〉

- 관광지, 공원, 하천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으로, 이로 인해 조성된 이후에 야간경관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규모가 큰 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인프라 정비와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2.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지?

〈부여-문화관광〉

- 금강권역 문화유산생 플랫폼 구축 수립 용역(2019년 12월 수립)을 국토부와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여 야간경관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홍성, 논산-디자인〉

- 지금까지는 조명에 신경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꼭 조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천안〉

-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3. 설계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얼마 정도 산정하는지?

〈홍성-문화관광〉

- 야간경관 및 디자인비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총 사업비의 7~8%(50억 원 중) 책정
- 예산이 부족하므로 7~8%정도 책정하고 있음

〈서산-디자인〉

- ‘지역별 특색있는 야간경관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8%(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디자인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함. 충남 관내 대상으로 함)
- 해미C 야간경관사업(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 10%(디자인 개발, 인허가 비용 포함)

〈논산-디자인〉

- 야간조명 사업은 전기설계 면허(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분야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 요율을 기준으로 함
- 조명사업은 전기공사 기준으로 해야 함. 1억 원까지는 기본, 실시설계 때 약 6%(전기 전문업체가 시공, 디자인회사에서 설계를 할 수 없음) 책정함
-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2억 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2천만 원)으로 디자인개발을 발주하고 (7~10%), 전기설계는 별도 분리 발주를 하고 있음(자격조건이 되는 업체에 디자인개발과 전기 설계를 동시에 하도록 함.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수도권에 몇 개 되지 않음).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이후 시공 분리 발주를 함
- 디자인된 것을 실시설계로 전기 발주를 관내 입찰을 했으나, 전기 전문업체가 디자인개발을 하도 발주하는 방식으로 됨

〈천안-경관조명〉

- 전기설계로 주로 하지만 총 사업비의 5%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특화된 사업의 경우 전기와 디자인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음

〈부여-문화관광〉

- 문화유산관광 플랫폼 사업 총 사업비 52억 원(경관, 상설무대, 가상 테마 분야) 중 조경과 전기로 1억 5천만 원(3%)을 설계용역비로 발주했음(전기는 별도 발주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 발주하였음)

〈공주-문화재단〉

- 문화유산야행의 경우 행사의 일부이므로, 용역비를 산정하지 않음(시공사와 논의하여 설계 진행)
- 사업기간 및 예산상 용역 발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행사성 야간경관사업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야간경관조명 예산은 7천만 원 정도임)

4. 설계 발주 및 입찰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홍성-문화관광〉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음(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했을 경우 경관심의 제외가 되므로)
- 계약방식보다 용역사의 성과 품질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짐

〈홍성-디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야간경관 사업의 경우 큰 의미가 없음. 야간경관 사업은 미디어 콘텐츠 까지 포함되는데 제안공모 시 이를 볼 수 없으며, 제안서는 보통 현장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므로 의미가 없음
- 문화유산 조명의 경우 현상변경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용역사 선정이 중요함

〈서산-디자인〉

- 현재 관내 입찰로 가격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낫다고 생각함
- 가격입찰 방식의 경우 사업기간에 여유가 있으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자주 바뀌므로 실제 사업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낫다고 생각함

〈부여-문화관광〉

- 가격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음

〈천안-경관조명〉

-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음.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가격 경쟁 입찰이나 제안공모 방식을 할 수 있을 것임
- 설계시부터 업체와 협의,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있으므로 사업의 품질은 좋다고 생각함

〈논산-디자인〉

- 제안공모는 야간경관에서 의미가 없음
-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수의계약 범위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시공할 수 있게 함(전기설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용역사를 선정)

5.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홍성-문화관광〉

- 관광개발계획에 의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음

〈서산-디자인〉

- 경관계획에서 지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에 제시된 내용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논산-디자인〉

- 주민제안, 시장/시의원이 제안한 대상지를 사업화하는 경우가 많음
-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유지관리 담당 부서에 사업 이후 유지관리 여부(관리 이관), 디자인 개발 이후 담당 부서에서 사업 진행(사업 시행) 여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게 됨(주민 또는 시장/시의원 제안 →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협의(사업 추진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여부 등) -> 시장 보고 및 사업비 확보 -> 사업 추진)

- 특히 조명 기구의 경우 파손이 많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려움(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큼)
- 야간경관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함(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팀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유지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음

〈천안-경관조명〉

-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원 업무를 수년간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공공건축, 시설물 등 대상지를 발굴하여 야간경관사업을 하고 있음(육교, 공원, 교량 등)
- 의회 등에서 대상지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음

6.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디자인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홍성-문화관광(서부해안 사업)〉

- 사업 초기 단계에서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하였음(조형물 1명, 경관 1명(서울빛 수상작가))
- 내부 실무진 사업 아이디어 구상회의를 10회 정도 진행하였음(디자인 개발만 1년째 진행하고 있음)
- 경관심의회는 부서의 의도를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함

〈홍성-디자인〉

- 조명사업은 전기공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등기구 설치로 주간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사업비에 따라서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비 제한을 두지 않고 경관조명사업은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음
-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항목별로 심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산-디자인〉

- 현재 경관위원회만 구성하고 있으며 심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심의위원의 주관적 생각이 심의의견에 많이 반영되어 오히려 심의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며 의견 반영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서장 및 자치단체장의 의견대로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실시설계단계에서 순수미술 분야 전문가(화가, 작가) 자문을 진행

〈논산-디자인〉

- 경관형성에 영향을 준다면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부터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은 무조건 디자인 부서에 의뢰하고 있음
- 공공건축물의 경우 타 부서 사업이라도 계획단계부터 야간경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고 있음. 준공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감재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디자인 검토를 해주고 있음
- 디자인 관리는 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준공 이후 단계 등 사업 모든 단계에서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이전에 협의, 자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천안-경관조명〉

- 디자인팀이 있으나 시설물이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으로 색채 등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음. 하지만 야간경관이나 조명 분야 전문인력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명이나 경관 분야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음

- 조직이 구성된 지 3년 됐는데 야간과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 디자인팀과 다른 점임
- 전문가는 경관위원회 위원들밖에 없는데, 야간 경관 분야의 전문가는 없으므로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음

〈부여-문화관광〉

- 문화유산보호구역이 대부분이므로 문화유산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나 경관 관련 위원 자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업 추진 시 보통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므로 문화유산 위원회의 위원에게 실시설계 용역 중에 2회 정도 자문을 받고 진행함
-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구상단계부터 협의(자문)를 하면 좋을 것 같음. 디자인 및 배치 등 구상단계부터 협의하면 좋지만 실시설계단계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임

〈공주-문화재단〉

- 야행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시공사와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음
- 자문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자문은 필요하나 조명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색온도에 따라 주변 건축물 등이 변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지만 전문가가 없음). 현재까지는 경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조명 디자이너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음(큰 틀에서 야행의 정체성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7.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성군-문화관광〉

- 기본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법적 검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디자인 전문직과 협의하고 있음(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은 협의하고 있지 않음)
-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직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함

〈홍성-디자인〉

- 교량의 경우 도심은 도시재생팀, 국도의 교량은 종건소에서 관리하므로, 사업 대상지에 따라서 부서 협업 대상이 다름. 사업 대상지 시설물 관리 부서와 사업 추진 이전에 협의 이후 사업을 추진함. 관리 부서에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사업 추진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함
- 월계천의 경우 하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받지 않아 사업 조성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민원이 있을 시 야간시간에도 현장에 가보고 있음
- 전문 업체에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음(야간조명은 주변 빛 간섭 등이 중요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 협의를 받는 것이 좋음(배관, 배선, 조명의 종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 구상단계에서 기본방향에 대한 디자인 협의가 필요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기 배선, 배관 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가 필요함

〈서산-디자인〉

- 법적 검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디자인 전문직과 협의하고 있음(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은 협의하고 있지 않음)

〈논산-디자인〉

- 대상지에 따라서 협업 부서, 협의 내용이 달라짐(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수월함. 가로경관이나 교량 사업은 가로등 부서와 주로 협업)

- 보안등 배선을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안등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할 때가 많음. 디자인 부서에서 한 사업은 가로등 부서에서 전기세 등을 부담해주고 있음. 가로경관이나 교량 야간경관사업은 가로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것이 좋음
-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 문제로 대상지 담당 부서(시설물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 공공건축물, 기반시설(교량), 문화유산 및 공원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유형별 15억 원~20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전에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디자인 계획을 협의했음
-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 부서의 유지관리 여부를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사업구상단계부터 디자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 유형이나 사업 담당자의 의식에 따라 지원 단계나 내용이 달라짐

〈천안-경관조명〉

- 디자인팀에서 조명 설치 시 협의 요청하고 있음
- 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음
- 공원, 하천 담당 부서에서 조명 설치를 위한 협의 요청을 하고 있음
- 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관조례에 야간경관 관련하여 별도 협의(자문)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좋겠음
- 전기의 일부분이므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부여-문화관광〉

- 공원, 보안등 등 유지관리 주체가 다 다르므로, 해당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공주-문화재단〉

- 경관 디자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구상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싶으며, 자문을 받고 싶음

8. 야간경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관련 조례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규정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성-문화관광〉

- 경관사업에 대한 규정이 경관조례에 있으므로 '야간경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홍성-디자인〉

- 결성읍성의 경우 주민들이 야간경관을 요청하여 특화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관협정제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음. 군이 야간경관을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빛공해 조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빛공해 민원이 많은 상황임. 현재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 빛공해 조례를 디자인 부서에서 야간경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충남의 경우는 맞지 않음(서울시의 행정조직 체계와는 다름)
-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름. 서울시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빛공해 민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함

- 심의 시 빛공해 방지 조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관에서 빛공해 관리 할 수 있음

〈서산-디자인〉

- 경관사업에 대한 규정이 경관조례에 있으므로 '야간경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천안-경관조명〉

- 야간조명 지원을 하려고 했었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함(단양시의 경우 건축물 조성 시 경관조명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야간경관 분야를 별도 구분하여 추진했으면 좋겠음

〈부여-문화관광〉

- 타 부서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한 거리 일대를 간판정비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면 경관 조례에 넣는 것은 좋을 것 같음(목적에 맞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공주-문화재단〉

- 지원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현재 이벤트 시의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 가설 분전반을 설치하고 있는데 매해 예산이 소요되므로 특정 공간에 대해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 좋을 것 같음
- 특정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음

〈논산-디자인〉

- 포괄적으로 경관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굳이 야간경관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법을 근거한 기준을 경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심의 시 빛공해 방지 조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도는 「공공디자인조례」, 5개 시·군(공주, 보령, 부여, 홍성, 예산)의 「경관조례」에는 야간경관(조명/조형물)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홍성-문화관광〉

- 홍성군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시설물'은 거의 모든 사업에 해당되므로 과하다고 생각함
- 예술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만 심의 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음. 스카이라인의 경우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도 좋으나, 심의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자문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음
- 심의 내용이 대부분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사업 추진 부서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야간경관사업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데 경관심의에서는 규제 위주의 내용임
- 사업기간이 짧게 남아 있을 경우 사업 부서에서는 심의 절차가 부담스러움(가격입찰에 의해 사업추진 이후 남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서산-디자인〉

- 조례상에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규정되어 있으며, 경관심의 시 조명에 대한 내용도 심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경관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음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면 절차가 더 많아질 수 있음)
- 심의보다는 자문이 낫다고 생각함
-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너무 다양하여 오히려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려움

〈홍성-디자인〉

- 야간경관사업의 경우 보다 세분화해서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 경우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심의를 규제라는 인식보다 디자인을 좋게 하려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홍성의 경우 남당항 축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으므로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이런 측면에서 스카이라이프 사업은 좋으나, RGB 조명이 아니라 기본 조명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 때 경관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때 심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서 할 계획임. 심의대상을 세분화했을 시 타 부서의 반발은 예상하지만 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심의 절차를 기피함
- 심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은 올라간다고 생각함
- 도에서 심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 수목등 사업이나 소액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비 기준을 상향시키고 유형도 구분해서 심의대상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논산-디자인〉

- 현재 경관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야간경관 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음. 사업비 1억 원 이상, 홍성과 같이 사업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 권역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 일정 사업비 이상의 경우 심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 5천만 원의 야간경관 사업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 경우에는 디자인 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 도 심의의 경우 현재 도비보조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 사업비 기준을 높이고 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경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경관을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의하고 있음
- 2021년부터 타 부서 야간경관 사업은 디자인 부서에 요청이 들어옴
- 초기단계에 조명계획 자문을 해줬지만 사업준공 이후 마감재 등이 바뀌면 조감도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조명설계를 봐줌(초기단계에 배관을 설치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천안-경관조명〉

- 단계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 우선 야간경관 관련 전문가 풀을 충남도에서 구성하여 심의를 운영 후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 인식 제고가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야간경관 관련된 심의 기준도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각 시·군별로 이를 구축하기도 어려우므로 도에서 야간경관 관련 위원을 구성하여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심의에 의해서 달라지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음
- 각 지자체에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건수, 사업비 등에서 봤을 때 심의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야간경관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천안시의 경우 '각 부서 사업 추진 시 심의를 받도록 한다' 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로 개정하였음(각 사업 부서와 심의위원회와의 충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
- 사업 추진 시 주변 현황(어두움, 밝기 등에 따라)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름
- 빔공해 조례 담당 부서에서도 조도, 휘도 기준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임

〈부여〉

-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음

〈공주-문화재단〉

- 심의위원이 잘 구성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음

10.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 및 시·군의 야간경관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성-문화관광〉

-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음
- 사업비 상관없이 4, 5억 사업도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음
- 사업추진 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는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것 같음
- 야간경관계획, 경관계획 등 계획 수립기간이 매우 짧은 것 같음. 수립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음

〈홍성-디자인〉

- 도에서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 토대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음
- 야간경관사업은 각 시·군에서 할 수 있게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음
-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근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예산확보 어려움). 예산이 있다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싶음. 심의기준도 재정비 하고 싶음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참고하고 있으며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업무가 수월함(계획과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됨)

〈서산-디자인〉

- 경관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경관계획에는 대략적인 사업내용만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오히려 부서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의

건이 우선되는 상황임. 조례에 규정이 필요함(법 개정 필요)

- 이해관계자(담당자, 팀장, 과장, 지자체장, 주민)의 의견이 다 다르므로 유도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참고만 하게 됨

〈천안-경관조명〉

- 중장기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예산 확보). 경관계획이 올해 말에 수립되면 경관조명팀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디자인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야간경관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도, 시·군이 비슷할 것 같으므로 도에서 별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음. 이보다 사업 예산 지원이 필요함

〈부여〉

-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좋는데, 각 시·군에 맞게 (문화유산 유적 등) 야간조명 조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음

〈공주-문화재단〉

-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시 디자인에 조명의 역할이 큼

〈논산-디자인〉

- 야간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음. 도에서 제시한 것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논산시 권역별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야간경관에 대한 권역별 구분,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나 야간경관계획의 둘 중 하나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에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조도, 휘도 기준 등)
-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 야간경관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현재 타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참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상황임

11. 야간경관 사업 추진 효율성 및 효과 향상을 위해 경관, 조명 관련 전문직(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성-문화관광, 서산-디자인〉

- 도나 전문기관(충남연구원)에 조명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을 것 같음
- 해당 시·군에 전문직이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군의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우선시되므로 의미가 없음
- 자문을 받으면 심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칙 등이 있으면 좋겠음
- 자문의 장점은 자문의견 중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부여-문화관광〉

- 전기 담당 부서(가로등 유지관리 부서)만 있는 실정으로 야간경관 관련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음

〈천안-경관조명〉

- 야간경관, 전기 부서를 별도 구성하였으면 좋겠음

〈공주-문화재단〉

- 도에 야간경관 관련 조직이 있어 디자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12. 야간경관 사업을 원활히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성-문화관광〉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선진지 사례 견학, 이론교육(경관, 조명 등))은 많이 했으면 좋겠음 (도에서 해줬으면 좋겠음.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음)
- 전문가 자문(조명, 경관, 디자인, 조형물, 공간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인력풀도 모르고 있음)

〈홍성-디자인〉

- 디자인, 사공까지 가능한 메이저 용역사를 선정해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디자인개발을 하고, 시 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타 부서에서는 디자인팀의 협조를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직이나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추진 시 디자인팀 협조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을 예정임
- 행정직이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정이나 법 등을 잘 반영하므로 오히려 사업의 질이 좋은 경우도 있음
- 홍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담당자 대상 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함(담당자가 많이 바뀌어서)

〈서산-디자인〉

- 심의보다는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선진지 사례 견학, 이론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문가 자문은 디자인보다는 기술적인 자문(법적 기준에 의한 구조적인 검토 등) 등 법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디자인 자문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에 의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의미가 없음(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
-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천안-경관조명〉

-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 담당자의 역량교육(선진지 견학)이 필요함(시의원이 선진지 견학 후 예산을 수립해 주는 경우가 있음)
- 경관조명팀이 3년 전에 구성되었는데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공공디자인팀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었음), 최근 야간경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성과로 인해 유지되고 있음.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함(문화유산이 많은 곳, 이벤트 행사가 많은 곳 등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은 달라질 것 같음)
- 타 시·군의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서로 모르므로 타 시·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 공모사업을 '야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간'과 '경관'을 구분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음
- 타 부서에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조명팀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역으로 사업 부서에 찾아가고 있는 상황임. 경관조명에 야간경관 사업 추진 시 경관조명팀의 협조를 받도록 규정했으면 좋겠음

〈공주-문화재단〉

- 사업 담당자 교육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장 이상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했던 것과 같이 충남에서도 야간조명 포럼(최근 야간경관, 야간관광의 흐름)을 개최해서 도민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공무원 등의 인식을 높이고 충남만의 색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상황임
- 행사성 조명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함

〈부여-문화관광〉

- 사업 담당자가 전기나 공업직 등 전문 직렬이 아닌 행정직의 경우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함

〈논산-디자인〉

-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지만 담당 부서와 협의, 협업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추후 문제가 됨
-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조건 디자인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사업 담당자들보다 팀장, 과장 등 의사결정권자가 디자인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3.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홍성-문화관광〉

- 예산 신속집행으로 자문,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사업 분야에 따라 신속집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분야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지정하여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음)
- 미디어 아트, 이벤트 조명 사업의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야간경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홍성, 논산-디자인〉

- 야간경관사업은 유지관리 담당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며, 마스터플랜 및 사업 구상단계부터 디자인 비용 책정, 디자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팀장, 과장 등 부서장들의 독려가 필요)
- 조명이 저렴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음

〈논산-디자인〉

- 디자인팀 내에 전기직 직원이 배치되어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했었으나,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옥외광고 관련 부서로 전기직 인력이 배치되면서 옥외광고 부서에서 야간경관 사업 실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음
- 현재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만 해주게 되었음(디자인 개발 및 시장 보고(디자인팀), 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와 시공(옥외광고 관련 부서))

〈천안-경관조명〉

- 야간경관사업 사례집을 발간하면 좋을 것 같음

■ 워크숍 주요내용

1. 경관조례 개선

1) 심의대상 포함 기준

- 사업비를 기준에 포함한다면 총 사업비(초기단계부터 야간경관까지 고려한 사업의 경우), 공사비(기존 건축물이나 시설, 공간 등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에 따라 다를 것임
-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기준, 기타 사업과 연계사업의 경우 야간경관 순 공사비 기준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음
- 경관조명 심의 기준은 공사비로 하되, 경관조명 신설 사업인지 기존 사업 보수인지에 따라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기준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시와 군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공사비의 개념보다는 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방향이 용이함
- 제안하고 있는 도 심의 대상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유형과 함께 사업규모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으로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그 이하는 각 해당 시·군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도비 지원 사업 10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 대상, 시·군에서는 10억 원 미만 또는 5억 원 미만의 사업 중 사업비나 유형을 정하여 운영)
- 현재 도 심의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문제가 많음(5천만 원 소규모 사업도 도 심의 대상)
- 도 기준에 맞춰 15개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따라가게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나 인천시가 야간경관사업 경험이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조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충남만의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음
- 심의 및 자문 대상에 유형과 사업비를 함께 적정 기준으로 하되, 특정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은 야간경관사업 전부를 심의 및 자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단, 사업 계획단계부터 디자인컨설팅을 통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시·군 특성에 맞게 일부는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심의대상 기준이 필요함(규모 또는 사업비 기준, 특히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변경심의 기준이 시·군별 편차가 있어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

2) 심의 대상 범위

- 단순 야간 보안 조명, 수목등 등은 야간경관조명이지만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야간경관사업의 명확한 정의나 개념 정리가 필요함(가로 보안등, 로고젝터, 건물이나 옹벽 등에 연출하는 미디어아트 등)
- 예산군의 경우 야간경관사업을 디자인이 가미된 조명기구로서 빛공해 방지법에서의 조명기구 사양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명사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예를 들어, 도시시설물 목적의 조명 신설 교체사업은 심의 제외, 장식조명은 심의 대상)
- 홍성군의 경우 경관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관심의 대상을 개정할 예정이며,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사업비 기준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며 현재 조례상의 심의 대상인 공공디자인 시설 유형은 삭제하려고 함
- 심의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심의 대상 여부부터 민원이 많아 협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며,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도 심의 대상도 개정이 필요함
- 미디어 파사드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함.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이

라고 한다면 야간경관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며,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은 심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심의 대상 포함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미디어 아트를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경관심의회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콘텐츠 교체가 필요한데 교체시마다 심의를 진행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함
- 미디어 아트의 경우 콘텐츠 개발 비용이 사업비의 거의 90% 이상 차지함. 물론 장비도 고가지만 콘텐츠는 계속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임. 이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장소 및 주변과의 조화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술적 또는 디자인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고 작가에 의해 작업이 되어야 함)
-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빗공해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인지, 디자인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고려가 필요하고 일시적 사업인지 상시적 사업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미디어 파사드 영상 콘텐츠 심의는 창작의 자율성 및 비용의 증가,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아트와 같은 영상물도 야간경관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경관사업이므로, 심의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벤트나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디어 아트의 경우 기존의 구조물에 콘텐츠 상영 또는 맵핑을 하는 방식이므로 경관조명과 개념이 다르며, 상시조명 위주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빛공해, 적용 장소의 적정성, 연출했을 때의 주변과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 문화유산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명기구 디자인 등은 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 있음
-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에 조명을 설치할 시 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심의나 사업 완료 이후 RGB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음
- 보여지는 부분 외에 전력 부분을 심의에서 볼 수 있도록(에너지 절감, 사업비 절감 등) 할 필요가 있음
- 경관계획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해야 함
- 경관심의회에서 빛공해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심의 대상에 포함했을 시 심의위원들 중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없으므로 이것 역시 문제임
- 심의에서 RGB 연출보다 차분한 조명 설치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반영했을 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야간경관사업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시 업무가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인력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전문직 배치

- 전문직 배치나 디자인 부서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컨설팅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임

4)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

- 권장사항으로 경관조명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함
-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구조물에는 배선 공사가 초기 단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건축 관련 조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규정을 포함했으면 좋겠음. 사업 준공 이후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물 훼손과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디자인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심의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일정 규모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에 야간조명 설치 권장 규정

이 필요하며, 준공된 시설물에 야간 조명 설치 시 전기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설물 구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5) 야간경관계획 수립

- 야간경관계획만 별도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자체가 많아 경관계획에 야간경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함

2. 디자인컨설팅 규정 개선

- 야간경관사업 발주 시 전기설계 업체가 디자인 업체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하면서 디자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 이에 초기단계부터 야간경관 전문가가 지원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 조명 전문가가 없으므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에서 조명 전문가를 구성해서 컨설팅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특히 조명은 실무 유경험자의 전문성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실무자를 위촉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에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야간경관사업 뿐만 아니라 컨설팅 신청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물론 공공디자인 진흥법과 연계하여 제시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공공용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교통시설의 경우 별도 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디자인컨설팅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등 디자인 컨설팅 가능 범위가 아닌 것도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기 설계사와 디자인 전문회사가 협업하도록 하는데, 조감도와 실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계 변경도 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디자인이 취향 차이도 있으므로 디자인컨설팅에서 전문가가 초기단계부터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사업계획단계에서 디자인컨설팅 전문가가 심의 전 사전컨설팅에도 참여하여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시 자문회의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컨설팅을 추진하면 좋을 것임
- 모든 야간경관사업은 디자인컨설팅 대상으로 규정하고 컨설팅 시기는 사업계획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유형별 사업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정대로 컨설팅 진행 시 사업 진행이 현행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로 사업 구상안과 디자인컨설팅 방향이 일치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기설계업체와 경관조명 전문업체의 공동수급 방식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의 이익(특정 업체 관급자재 사용)이 반영되어 설계되고 있으며, 경관조명 업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음. 그러므로, 사업 초기 디자인컨설팅 진행으로 경관조명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관조명 사업은 시·군 자체 자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정보 제공 및 공모사업 선정 전 후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이 필요함
- 디자인컨설팅 활성화 유도 및 경관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계별 디자인컨설팅을 시행한 사업은 경관심의 제외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함
- 디자인컨설팅의 홍보가 필요함

3.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경관조명과 빛공해는 상충되는 것이 있으므로 도가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적용 대상이 다양하고 콘텐츠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만약 제시하게 된다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음
- 야간경관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 등에 해가 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대상지가 다양한 생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경우, 빛공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물속 및 물 주변에 사는 저서류에게 미치는 문제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도 필요함
- 주민참여 사업을 포함하여 제시한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분별하게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주민 민원이나 빛공해, 민간 사유지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을 중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경관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에 빛공해 방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디자인 부분에서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좋겠음
- 야간경관계획 수립은 지역별, 권역별, 요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방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관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는 야간경관계획은 지역 현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하여 해당 부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에서 우선 수립 후 지자체 적용 확대는 긍정적임
- 도와 시·군 계획의 범위, 역할에 대한 정립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한 홍보도 필요함
- 야간경관 대상, 유형, 요소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가 필요함(설계지침, 심의 등에 활용)
- 야간경관 심의 체크리스트 주요내용은 장소, 빛공해, 주변환경, 조명기구 및 시설물 적정성(모양, 색채)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함

4. 교육 및 홍보

-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기계 장비나 콘텐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예산 소요 내역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했으면 좋겠음(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예산(전기공사비, 디자인비용 등) 등에 대한 교육내용)
- 야간경관사업 현장답사 등 담당자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홍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음
- 담당자 및 고위직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음. 실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녀오고 난 후 인식이 많이 바뀌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음
- 시·군의원 대상 사업 추진 단계나 디자인 전문직 및 심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함
- 의사결정권자(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이 다양한 색 연출을 선호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함
- 야간경관사업은 전기 관련된 회사가 하는 일반 전기 공사와는 성격이 다름. 입찰을 통해 타 지역 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민원이 들어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 시의원/군의원들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이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함(사업비 및 규모, 사업 단계(초기 단계에 조명설계 반영 필요성) 등, 전문직의 필요성, 경관심의회 효과 등)
- 심의기준을 만들고 심의가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음
- 문화유산 구역에 축제 시 조명 설치를 했는데, 고위직 및 시의원이 상시 조명을 설치하라고 해서 난감한 경우도 있음
- 고위직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특히 선진지 견학은 효과가 큼
- 디자인컨설팅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기에 디자인컨설팅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홍보가 필요함
- 우수사례나 공모(연계) 사업 등을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도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각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과 정보교류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며, 특히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
- 주체별 관점이 다양하므로 주체별 역량강화교육 추진이 필요함(지자체장, 지역의원, 담당자, 주민 등)
- 국장급 이상, 시의원,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은 역량강화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도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우며,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 팀장, 과장의 경험과 의지가 중요함
- 사례집 발간 시 사업비(설계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사업기간, 계약방법(협상, 제안서 평가, 입찰), 운영시간 등을 병기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군 담당자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이 필요함
- 담당자(팀장, 과장, 국장 등)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마다 교체됨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현장탐방, 법 제도 등)이 필요함
- 타 시·군의 야간경관사업 사례 등을 비교, 검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 발간도 필요함
- 고위직(지자체장 포함), 군의원 등 정책 및 예산지원 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함
- 야간경관사업은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이므로, 교육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5. 시범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센터가 사업 선정과정에 참여해서 사업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음. 심의 시 사업 대상지가 사업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도민참여예산제의 추진 시스템 상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읍이나 면에서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경관사업으로 시범사업화 한다면 평가기준(현장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명확히 하거나 또는 도 공모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양적인 확대 지원을 위해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도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목적은 이해하지만 변질된 경향이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실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많음(사업 대상지 적합성 및 내용, 사업비의 타당성 등)
- 국가유산 등 지역의 특색있는 건축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함
- 각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추진할 시 이해관계자의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충청남도 야간경관개선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사업대상 주변의 아파트 또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관련 부서장 및 의사결정권자도 쉽게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모사업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도민(주민)참여예산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민(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건의자가 야간 조명 연출 디자인과 각종 자재(특정 업체의 관급 자재 등)들을 미리 선정 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범사업으로서 연계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함
- 단기사업을 아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도 필요함
-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표사례를 만들어 설계 단계부터 조성 완료까지의 과정을 담당자들이 배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야간경관 조성보다 기존 야간경관의 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

6. 기타

-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민간건축물인 성당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는데, 전기세를 시에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조명기구가 RGB 연출이 되는 것으로 나오므로 심의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임(심의에서는 기준을 맞춰 색온도를 3000~3500으로 맞추지만 심의 이후에는 RGB로 연출을 하도록 함)
- 대규모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을 권장하며, 평가 항목에 해당 지역의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경관조명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크게 반영될 경우 공모 또는 제안서 평가 등 다양한 계약방법이 있으나, 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데 인력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음
- 지역경제 및 야간관광 활성화, 지역 부가가치 제고 등 유공 공무원 포상(도지사 이상) 시행이 필요함

■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연구를 위한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최근 야간경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야간시간대 공공인프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야간경관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충남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경관관리 및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 사업 발주방식 및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디자인관리 등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간: 2024.07.16. ~ 2024.09.10.

본 연구에서 ‘야간경관사업’이란 기능성만을 위한 조명설치 사업이 아닌 심미성, 조형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함

ex)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에 조명 설치 사업 (O)

공공공간에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이나 시설물 조성 사업 (O)

보안등 및 가로등 등 기성품 설치 사업 (X)

▶ 담당자: 박혜은 책임연구원 / 정진주 연구원(☎ 041-840-1714)

▶ 주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7층 충남연구원

[설문 문항]

I. 기본정보

1	직렬/직류
	ex.시설/건축, 행정/일반행정, 공업/기계 등
2	아간경관사업 추진 당시 소속부서 분야 (가나다순 표기)
	①건축/주택/도시, ②건설/도로, ③경관/공공디자인, ④공원/녹지, ⑤관광/문화, ⑥기타
3	아간경관사업 추진 부서 근무기간
	(개월)
4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무 경험
	①있다, ②없다
5	4번 문항에서 '있다'로 답한 경우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근무기간
	(개월)

II. 아간경관사업에 대한 인식

1	아간경관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	아간경관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경관 향상, ②공공인프라 이용 활성화, ③관광 활성화, ④안전성 향상, ⑤기타
3	'아간경관사업'과 '아간조명사업'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충남도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5	'아간경관사업'과 '아간관광사업'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6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의 야간경관사업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7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야간경관사업 추진된 사례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ex.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	

III. 야간경관사업의 추진방식 현황

1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2	야간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해당 시·군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참고, ②해당 시·군 관련 계획 참고(관광종합개발계획 등), ③주민제안, ④시·군의원, ⑤자치단체장 등 의사결정권자의 제안, ⑥사업 담당자 판단, ⑦기타	
3	야간경관사업 설계 용역 발주 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설계공모, ②협상에 의한 계약, ③가격입찰, ④수의계약, ⑤잘 모르겠다	
4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디자인관리를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십니까?
①전문가 자문, ②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③해당 시·군 디자인(또는 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④경관심의 또는 공공디자인심의, ⑤진행하지 않았다	
5	4번 문항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로 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②사업기간이 짧다, ③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있다, ④진행하고 싶지만 전문가나 제도를 잘 모른다, ⑤기타	

IV. 야간경관사업의 향후 추진방식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1	야간경관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	야간경관사업 설계 용역 발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설계공모, ②협상에 의한 계약, ③가격입찰, ④수의계약, ⑤잘 모르겠음
3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도 및 해당 시군의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사전검토, ②도 내 전문기관(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 센터) 전문가 활용, ③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컨설팅, ④해당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개별 진행
4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은 사업단계 중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사업구상 단계, ②기본계획 단계, ③실시설계 단계, ④필요한 때마다
5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면 다음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사업유형(「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내 옥외공간 조성사업 등), ②요소(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도로시설물, 도시철도 시설, 하천 시설물 등), 조형물 등), ③총 사업비, ④기타
6	5번 문항에서 '총 사업비'로 답한 경우 다음 중 심의 대상 기준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5천만 원 이상, ②1억 원 이상, ③2억 원 이상, ④5억 원 이상, ⑤기타
	야간경관사업 추진에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가 도움이 되려면
7	가장 먼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기입)
	①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풀 확보, ②사업 담당자 인식 개선, ③심의 전 사전 충남연구원 디자인 컨설팅 진행, ④심의 전 사전 심의제도 도입, ⑤심의 기준 정비, ⑥심의 전 디자인 관련 부서 협의 진행, ⑦기타
	야간경관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법 제도(조례, 훈령, 고시, 방침 등)의
8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기입)
	①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②심의 의견 반영 규정, ③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컨설팅 진행 규정, ④해당 시 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 ⑤야간경관 분야 전문직 배치 규정, ⑥도 경관디자인팀 부서와 협의(자문) 규정, ⑦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⑧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규정, ⑨기타
9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기입)

①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②전문가 자문, ③해당 시·군 디자인(경관조명)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 ④경관/조명 분야 전문직 또는 조직 구성, ⑤경관조례 개선(심의, 계획 수립 등), ⑥의사결정권자 인식 개선, ⑦기타

10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기입)

①의사결정권자 의견 반영, ②주민참여(의견 수렴, 민원 해결 등), ③유지관리 부서의 협조, ④심의/지침 준수 등 법 제도 이행, ⑤경관 및 디자인 적정성 판단, ⑥실력있는 수행기관 선정, ⑦조명 파손 등 유지관리, ⑧전문가 부족, ⑨예산 신속집행, ⑩기타

11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기입)

①야간경관계획 또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조명환경 관리구역 기준, 심의 기준 등 제시), ②전문가 풀 구성하여 우선 도에서 경관심의 운영, ③디자인 협의 및 자문, ④사업추진, ⑤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⑥조례/훈령/고시/방침 등 제도 개선, ⑦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활성화, ⑧기타

■ 선정위원회 의견 반영사항

심의의견	반영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 조명이라고 하면 안되는것인지? 야간은 곧 조명이고, 야간 관광과 혼돈할 수 있어 야간경관조명이면 다 포함되는 용어라서 연구에 적절한 용어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야간경관은 경관조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만들어진 경관과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의 빛,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빛들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으로서, 조명은 야간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원제 유지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이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밤다운 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임. 조명을 화려하게 하면 그게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이 더 화려하게 하면 다 옮겨가 버림 과제 수행시 지역이나 정서에 맞는 야간경관을 해야 하는데 공산성이나 해미읍성이든 다 같아서, 관광지에 조명을 화려하게 하거나 경관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충남에서는 관광지별로 어떤 야간 조명이 어울리는지 등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음. 일본에서는 가나자와가 조레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물과 조명으로 이뤄진 야간 조명이 감명 깊었던 적 있음. 조명을 조레로 정해서 밤다운 밤을 느낄 수 있는 곳, 가장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빛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가게든 관광시설이든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으며 이런 것이 야간경관테마이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등을 많이 달면 화려해 보이지만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느끼는 빛을 할 수 있도록 면모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적임 경관자원 특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야간경관관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빛공해 방지법 연계 방안) 	반영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적 특징별로 경관 방식이 다를텐데 어떤 장소 또는 명소 인근 경관 계획의 중요한 요소들 중 밝힐 것과 주의할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충남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곳이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야간경관사업의 도입단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함(사업 추진 절차, 법 제도 연계, 참여주체의 역할 등) 연출, 제어, 유도 등 야간경관 매뉴얼은 후속과제로 남겨둠 	부분 반영 (전략, 정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략적으로 지금 대상지(필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 공주공산성, 서산의 간월도, 부여의 궁남지, 홍성의 남당항, 당진의 삼교호, 예산의 예당호 등 대략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자원 유형별로 야간경관 관련 사업이 진행된 곳을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지역정서에 맞으면서 획일화되지 않은 밤 다운밤을 느낄 수 있는 야간경관시책을 제안하고, 장소유형별로 야간경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은 후속과제로 남겨둠 	부분 반영 (전략, 과제 발굴)

■ 연구설계 자문회의

일 시 : 2024. 3. 8.(금), 14:00

장 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참 석 자 : 방재성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박혜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정진주 연구원(충남연구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구성과 연구추진 체계는 적절함 연구기간과 예산, 목적을 고려할 때 연구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과 목적, 충남도의 야간경관사업 개념 미정립에 따른 사업 추진단계 규정이 어려우므로, 사업단계별 고려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각 중앙부처, 충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 중 '야간경관 명소화'의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 범위로 하고,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관관리 관점에서 추진주체의 역할과 법 제도 간의 연계 방안 제시, 사업 추진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방향과 범위 조정 	반영 (연구 방향, 연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주요내용은 추진전략, 실천과제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음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추진주체와 법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경관사업 추진단계별 고려요소 제시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충남도의 경우 야간경관사업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 가능한 사업의 추진단계를 규정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야간경관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 '야간경관 명소화'의 개념을 문헌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범위를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설정 	반영 (2장 이론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과 연구비용을 고려했을 때, 충남에서 야간경관사업의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는 후속과제로 할 것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충남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곳이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의 경관관리의 큰 틀에서 접근하고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은 후속 과제로 함 	반영 (연구 방향, 연구 범위)

■ 착수연심회

일 시 : 2024. 4. 12.(금), 14:00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양정순 교수(배재대학교), 방재성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김현신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오용준 기획조정실장(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충남연구원), 박혜은 책임 연구원(충남연구원), 정진주 연구원(충남연구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구체화) (1) 본 연구에서 야간경관의 목적을 관광명소화에 한정할지, 도민편의 목적까지 포함할지 검토, (2) 야간경관명소화 발굴 목적인지, 야간경관명소를 관리하는 목적인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만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사업을 제외하고 경관에 영향을 주면서 이를 통해 주민편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범위로 함 - 연구 목적에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관리 방안 전략과 과제 제시'로 구체적으로 명기 	반영 (p5, p35~p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범위 설정) 명소 선정여부, 야간경관사업 등 연구의 범위 설정, 야간경관 명소화와 야간조명 명소화의 차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야간경관사업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국가유산청(문화유산 야행사업,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충남 공모사업(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시·군 자체 추진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 중 기능성만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사업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야간경관 명소화'의 기본 방향을 고려 및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 -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야간경관사업이 명소화가 되기 위한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 	반영 (p24, p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적 정의) (1) 야간경관 명소화 지향점 설정절차(당위성) 제시, (2) 야간경관 명소화 지향점에 시간성, 장소성 등 반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및 국토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내용에서 경관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 선행연구에서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과 '명소'의 정의 및 개념을 도 	반영 (p11~p24)

	<p>출하고, 도출된 내용들 중 유사 및 중첩된 내용들을 나타내는 개념어 및 요소들 끼리 범주화하여, '야간경관 명소화'의 기본방향으로서 '조화성', '조망성', '쾌적성', '정체성', '매력성', '경제성', '시간성', '지속성'의 8가지로 제안</p> <p>- '장소성'은 '정체성'에, '연출성'은 '매력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p>	
<p>• (선행연구 검토) 조명 관련 선행연구, 야간경관 명소화절차 및 모델 연구 등을 추가 검토</p>	<p>- 조명 관련 선행연구를 추가하여 '빛과 조명' 내용을 추가</p> <p>- 야간경관 명소화 절차 및 모델 관련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야간경관 명소화 모델로서 사업 추진 기본방향, 법 제도 및 추진주체의 역할 등을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안</p>	<p>부분반영 (p14~p17)</p>
<p>• (관련사례 검토) (1) 서울시 등 야간경관 명소화(서울로 7017) 사례(지점 중시) 검토, (2) 선진사례의 추진체계(주체별 역할 등) 검토</p>	<p>- 서울시 사례와, 서울로 7017 사례 분석하였음</p> <p>-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조직 현황 및 역할, 사업 추진 체계(조례, 계획, 공모사업, 심의운영 등) 사례 분석</p>	<p>반영 (p64~p116)</p>
<p>• (추진실태 분석) 충남의 공공디자인공모사업, 도민참여사업(23년 12개 사업 선정)에 반영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실태 검토</p>	<p>- 최근 5년간 충남 공공디자인공모사업, 도민참여사업을 비롯한 야간경관 관련 사업 현황 분석</p> <p>- 구체적인 추진 실태 분석을 위해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진행(인터뷰조사 중)</p>	<p>반영 (p129~p135)</p>
<p>• (기본방향 설정) 야간경관 명소화 절차 및 모델 제시</p>	<p>- 충남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안</p>	<p>반영</p>
<p>• (정책과제 발굴) (1) 충남 야간경관계획 수립 체제 구축, (2) 유사경관사업을 국토부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 체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 검토, (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검토</p>	<p>- 충남 야간경관계획 수립 방향은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안</p> <p>-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대상지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 및 일부 시·군에서 추진중</p>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환경관리구역은 2024년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여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추진주체 역할에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네이버, 위키백과 등 보다는 공신력 있는 자료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자료 인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야간경관 명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명소화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인지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한 다음 이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함. • 또한 야간경관 명소화 지향점 선정에 있어 변수가 나온 절차와 근거 제시와 기존 야간경관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시간성 등에 대한 변수 고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에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관리 방안 전략과 과제 제시'로 구체적으로 명기 - 「경관법」 및 국토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내용에서 경관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 도출, 선행연구에서 야간경관의 기능 및 중요성, '명소'의 정의 및 개념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들 중 유사 및 중복된 내용들을 나타내는 개념어 및 요소들끼리 범주화하여, '야간경관 명소화'의 기본방향으로서 '조화성', '조망성', '쾌적성', '정체성', '매력성', '경제성', '시간성', '지속성'의 8가지로 제안 - '장소성'은 '정체성'에, '연출성'은 '매력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 	반영 (p5, p11~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목적성을 조작적으로 한정화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관 명소화'에 대한 접근모델 : process에 대한 정리 필요 • 경관디자인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만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사업을 제외하고 경관에 영향을 주면서 이를 통해 주민편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야간경관사업 범위로 한정 - '야간경관 명소화' 모델은 충남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안 - 경관디자인팀의 역할로서 조례 개정 및 심의 운영 방안,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역할 등을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문화유산 보존법에 근거한 야간경관 관련사업을 충남의 경관 관리 체계로 끌어올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제안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대상지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도 및 일부 시·군에서 추진중이므로 충남 여건에 맞도록 법 제도 운영 및 주체별 	반영

<p>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 공해 방지법과 연계된 경관관리 체계는 추후 과제로 제안 • 충남 야간 경관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 	<p>역할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초기단계로서 야간경관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충남 야간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방향을 '5장 충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전략 및 과제'에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방향성을 구체화, 차별화하는 기준설정을 위한 사례조사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사례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과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법, 정책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바랍니다. • 조명디자인 전문가의 선행연구와 사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연출성, 시간성, 장소성 등 조명디자인에 대한 특수성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야간경관사업 추진 조직 현황 및 역할, 사업추진 체계(조례, 계획, 공모사업, 심의운영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실태 분석을 위한 방향 도출 - 연구결과가 법 및 정책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사업 담당자(행정) 대상 인터뷰조사 및 설문조사 진행중 - 조명 관련 선행연구를 추가하여 '빛과 조명' 내용을 추가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 명소화' 기본방향에 조명디자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반영 (p64~p116, p14~p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과제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사업인지, 관광명소를 위한 사업인지? 보다 정확한 방향을 제안했으면 합니다. •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충남만의 야간경관을 발전했으면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만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사업을 제외하고 경관에 영향을 주면서 이를 통해 주민편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야간경관사업 범위로 한정 	반영

■ 중간연심회

일 시 : 2024. 7. 1.(월), 14:00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양정순 교수(배재대학교), 방재성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김현신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오용준 기획조정실장(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충남연구원), 박혜은 책임 연구원(충남연구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목) 제목에서 명소화 개념을 삭제한다면,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실태 및 정책과제' 등으로 변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목과 연구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연구제목을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략과 과제'로 변경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체계)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 내용 간 정합성 유지(예: 명소화 개념을 연구목차에 반영하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목과 연구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연구제목을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략과 과제'로 변경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목차 등 수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범위) 야간경관 연구대상을 명확히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하는 야간경관사업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국가유산청(문화유산 야행사업,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충남 공모사업(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시·군 자체 추진 야간경관 관련 사업들 중 기능성만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함 	반영 (p32~p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적 정의) 야간경관 명소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재검토, 예를 들어 야간경관 '형성', '자원화', '명소화' 등에 대한 차이점을 제시하되, 명소화는 널리 알려진 장소로써 소비자에게 소비되게끔 연출한다는 점을 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목을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 전략과 과제'로 변경하고,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의 개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반영 (p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사례 조사) (1) 3개 광역자치체 간 비교 분석(사회적 여건 차이, 문제점 등 발굴) 및 시사점 도출, (2) 해외 사례조사(영국, 호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 광역자치체와 충남 간 법 제도 및 조직에서의 비교 분석, 시사점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반영 (p164~p168)

	(2) 연구기간 및 충남 현황 분석에 충실하기 위해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분석) (1) 충남 야간경관 관련사업 문제점을 파악하는 조사방법(fgi, 설문조사) 활용, (2) 만약, 연구목적에 야간경관 명소화에 초점을 둔다면, 야간경관 명소화 8대 기본방향에 맞춰 충남 야간경관사업을 평가하는 방안 검토 	(1)중앙부처 공모사업, 충청남도 공모사업, 시·군 자체 사업의 사업 유형별 담당자 대상 FGI진행(6개 시·군 7명 대상 3회에 걸쳐 진행), 설문조사 진행(야간경관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15개 시·군 담당자 41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2)연구목적에 충남에서의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에 초점을 둠	반영 (p133~p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1)야간경관사업의 경관심의 도입방안(규모에 따라 심의대상 분류하는 등) 제시, (2)주민참여형 경관 관리방안(주민참여예산, 경관협정제 등) 제시, (3) 빛공해 방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4) 야간경관 개념을 반영한 경관조례 개정방안, (5) 시·군 공무원 대상 야간경관 교육 추진 제안, (6)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거버넌스 구축방안(야간근무인력 배치 포함), (7) 야간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 공방안 등 검토 	(1)「경관법」상 경관사업 이외에 도비보조사업들 중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에 의해 추진되는 야간경관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시(도), 시·군은 사업유형, 사업비, 요소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사례도 함께 제시 (2)주민이 야간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유형으로 경관협정제도와 연계 추진절차 제시, 야간경관계획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하도록 방향 제안 (3)빛공해 방지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및 야간경관계획/가이드라인 방향 제안 (4)야간경관사업의 정의 및 범위,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경관심의에 야간경관사업 포함 등 규정 반영 「경관조례」 개정방향 제시 (5)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군의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안) 및 홍보 추진 제안 (6)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도, 시·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디자인컨설팅) 역할 제시 (7)야간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와 연계 방안 제시	반영 (p178~p196)

■ 최종연심회

일 시 : 2024. 10. 23.(수), 16:00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양정순 교수(배재대학교), 방재성 부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서면), 김현신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오용준 기획조정실장(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충남연구원), 박혜은 책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정진주 연구원(충남연구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비고
• (제목변경) 연구핵심인 5장 내용을 반영해 과제명은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로 변경	- 연구제목을 ‘충남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로 변경	
• (용어정의) p32. 야간경관사업(기간과 예산 수반, 단기적/구체적)과 야간경관정책(정부의 지속적 방향, 장기적/전략적) 중 선택하고, 야간경관사업에 민간사업이 포함되는지 검토	- 야간경관사업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야간경관사업 범위는 민간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반영 (p34)
• (실태진단)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문제점 정리	-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인 사업 담당자 FGI 및 설문조사,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 중 충남 야간경관사업 문제점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아 진행함으로써 경관훼손, 대부분 시군에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하여 사업 담당자 개인 판단으로 대상지 선정 사업 및 의사결정권자 의견 우선에 따른 경관과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추가 정리하였음	반영 (p167)
• (정책과제) (1) 공무원 인식조사(p.144)에 제시된 야간경관사업 효과가 가장 큰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 (2) 교육 및 홍보대상에 상향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 제시, (3) 중앙정부 역제안과제 발굴(정부 지원 역할), (4) ‘충청남도 디자인 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은 ‘야간경관디자인컨설팅 개선’으로 과제명 변경, (5) 디자인 컨설팅 후 모니터링 도입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충남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음((1)에 해당) -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 제시하였음((2)에 해당) -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관련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3)에 해당)	반영 (p204((1)), p191~192 ((2)), p203((3)), p186((4), (5)), p194~195((6), (7), (8)),

<p>(6) 시범사업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2억원) 내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제시, (7) 시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8) 주민 참여 가능한 과제(경관협정, 도민참여예산제 외)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디자인 컨설팅 운영 규정'은 훈령명으로서, 훈령명을 변경하기 보다 '야간경관사업 디자인컨설팅을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 개선으로 변경하였음((4)에 해당) - 디자인 컨설팅 후 모니터링 방안으로서 심의위원 참여 및 심의 도서에 디자인 컨설팅 반영 결과 첨부하도록 제안하였음 ((5)에 해당)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서 경관협정사업과 연계사업 제시, 대상지 선정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6), (8)에 해당) - 시·군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완료한 시·군 대상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차년도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또는 포항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였음((7)에 해당) 	
<p>• (연구홍보)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인포그래픽, 유튜브 서비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와 일정 조정하여 인포그래픽, 유튜브 제작에 참여하겠음 	

참고문헌

(1) 단행본

차주영. 2012. 도시의 또 다른 얼굴, 도시 야간경관. auri(건축공간연구원).

(2) 보고서

김용범·최현주. 2007. 대구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박철희 외. 2023.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소화 전략. 충남연구원.

윤혜영·정민선. 2015.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윤혜영·정민선. 2015.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 사업 정책방향 도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1998.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정비 기본 구상. 인천발전연구원

이형복. 2014. 대전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2024. 세종시 야간경관 정책 추진방안 :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한석호 외. 2023. 충청남도 야간관광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사)한국경관학회. 2011.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조명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사)한국경관학회.

(3) 학회지

김성민, 이훈. 2020. 부산 야간경관 이미지의 사회연결망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9(6): 249-268.

- 김성민, 이훈. 2023. 도시 야간관광지의 관광객 야간경관 경험 평가척도 개발연구: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미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5(1): 33-65).
- 김수한. 2009. 한국 차이나타운의 지역 명소화 전략 연구 - 인천시 중화가를 중심으로 -. 10: 71-102.
- 김영진, 김주연. 2018. 빛 공해에 영향을 미치는 야간 조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4): 39-50.
- 김태현, 박숙진. 2017. 서울한양도성의 경관조명이 체험관광가치와 야간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3(2): 47-64.
- 김현근, 김아연. 2018. 도시공원 야간경관의 조성 과정과 실태 분석: 여의도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6(2): 14-26.
- 박태원, 이명철. 2011. 스토리파생형 명소의 집객요인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10): 179-189.
- 안지윤, 양위주, 이광국. 2015.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요소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문화연구. 43: 157-170.
- 이광국, 안지윤, 양위주. 2015. 도시이미지 및 만족도에 야간경관 공공디자인이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연합 논문집. 17(3): 45-54.
- 이나점, 임수영. 2021. ESG행정을 위한 야간경관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MZ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1(4): 91-97.
- 이새롬, 최춘웅. 2020.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를 통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 구역 기준 분석: 제3종과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11): 171-180.
- 이임정, 최주영. 202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평가항목에 대

한 중요도 평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2): 65-73.
이임정, 최주영. 2020.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 의한 야간경관계획의 전문가
별 특성 연구. 도시정책연구. 11(3): 125-144.

(4) 학회발표자료

김지연, 정윤남, 김세용. 2011. 국내 야간경관 조명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한국경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111-123.
유민태, 박태원. 2013. 새만금 지구 명소화를 위한 계획기준 선정 모델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5-135.

(5) 학술논문

김성민. 2021. 야간관광지 경관평가지표 개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미
(美)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문섭. 2012. 장소성인식이 주거선택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
석 -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양정순. 2016. 도시공원의 야간경관디자인 이용후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철. 2011. 스토리융합형 명소의 집객요인과 재방문의사에 관한 실증
분석 :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지은. 2009. 야간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계획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법관. 2017. 도시공원 산책로의 야간조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유
도공원을 대상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법령

경관법. 2019년 시행. 법률 제15460호(2018.3.13. 타법 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년 시행. 법률 제19592호
(2023.8.8. 타법 개정).

관광진흥법. 2024년 시행. 법률 제20357호(2024.2.27. 일부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5년 시행. 법률 제20286호
(2024.2.13. 일부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20년 시행. 법률 제16610호
(2019.11.26. 일부 개정).

집필자

연구책임자	박혜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진	오병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진주	충남연구원 연구원
심 의 위 원	김현신	충청남도 경관디자인팀장
(가나다순)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순	배재대학교 교수
비상임연구위원	황희정	주무관(인천광역시 건축과)
	이서화	주무관(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전략연구 2024-00

충청남도 야간경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발행인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4년 00월 00일
발행 2024년 00월 00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000-00-0000-000-0

© 2024.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